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8월 28일 수요일 (주간) 제 384 호

산개발 전지칼라인등 佛光院 서울조계사 入口 상문주상 1층 ☎ 02)735-0250(代)

법석 조대 **지운 스님** 광주 법흥사 회주



"믿는 마음이 간절하면 인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어요"

"원력을 세우고 매진하면 안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늘 마음속에서 염원하고 늘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수락 · 불암산 공사' 도 중단돼야

14일 불교계와 정부, LG건설, 서울고속도로(주)가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인접한 수락산 · 불암산 관통터널 공사도 중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노원도봉시민연대는 19일 주민 설명회에서 "수락산 · 불암산 관통터널 건설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



다"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수락산 불암산 노선에 대한 정확한 조사 이후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세 개의 산을 관통하는 기존의 노선을 전면 재검토해 우회노선을 찾아야 한다" 주장하고 20일부터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시민연대는 1만인 서명운동이 끝나는 대로 다음달 정기국회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락산 · 불암산 터널을 막기로 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락산 · 불암산 관통터널 공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찰이 적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원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불교계의 시각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불교계가 수락산 · 불암산관통터널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마냥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불교계가 수락산 · 불암산 관통터널 공사를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이 터널이 곧바로 북한산 관통도로와 연결되기 때문. 수락산 · 불암산 구간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번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사를 중지시킨 불교계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북한산살리기 운동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북한산에 위치한 31개 사찰은 다시 폐사(廢寺)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불교계가 주도적으로 나서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수락 · 불암산 관통터널공사를 중지시켜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때마침 불교계와 지역주민, 시민단체들이 9월 7일 수락산 주민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불암산과 수락산, 북한산을 함께 살리자는 국민 여론을 집결시킨다면 불암산 · 수락산 문제의 해결도 가능할 것이다.

강유신(취재 1부 기자)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찬불가**

1. 불자님께서는 법회 시간 외에도 찬불가를 자주 부르십니까?
①자주 부른다 ②가끔 부른다 ③거의 부르지 않는다

2. 찬불가를 몇 곡 정도 외우십니까?
①5곡미만 ②10곡 미만 ③20곡 미만 ④20곡 이상

설문 참여: 8월 29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85호 9면에 싣습니다.

'수행+휴식' 주말수련회 확산

전국 23개 사찰 테마별 프로그램 운영

종단, 보광 · 월정사 시범 실시 등 적극 지원
불교아카데미, 워크숍 개최 · 전문강사 양성

국내 10개 사업장중 3개 사업장(29.6%)이 토요휴무제 등을 실시중이고,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최근 5개월간 48.7%나 증가하는 등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비한 사찰 주말수련회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3일 현재 파악된 사찰 주말수련회는 무려 23곳. 대부분 올 초부터 준비를 시작, 7월부터 시작된 금융권의 주5일제 근무를 전후해 급속히 늘어났다. 사찰의 주말 수련프로그램은 대체로 수행과 휴식을 병행한 '생활의 재충전'에 비중을 두고 있다.

가장 먼저 주말수련회를 마련한 대둔사의 '새벽숲길' 프로그램과 갑포 관음사(영남불교대)의 주말 가족수련법회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참선, 예불, 간경, 사경 등 수행프로그램과 해수욕 및 산행, 도자기 빚기, 다도, 농사 짓기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중이다. 보성 대원사의 '염불선 주말수련회', 경주 골굴사와 원주 금강승선관문회의 선무도 수행, 하동 국사암의 '그릇이론 참선수련' 등 테마별 주말수련회도 열리고 있다.

서울 조계사와 길상사, 천축사, 고양 흥국사 등 도심 사찰들은 직장인을 위한 주말 참선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영주 부석사와 봉화 축서사는 근일 스님과 무여 스님이 직접 오랜 참선정진의 노하우를 재가자들에게 전수한다.

주5일 근무제의 정착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도 주말프로그램 실시사찰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포교원 포교연구실은 8월30일~9월1일 남양주 보광사, 9월 13~15일 평창 월정사에서 수행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주말수련회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두 사찰의 주말수련은 주5일제 근무에 대한 종단차원의 대응 의지를 보인 것으로 주목된다. 포교연구실은 11월중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학자들의 의견과 테마별 주말수련회 프로그램 등을 담은 보고서도 발간할 계획.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 불교아카데미(이사장 윤현수)가 17일 사찰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일 근무제 대비 경영자 워크숍'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웅기 불교아카데미 교육연구실장은 "사찰 수련프로그램이 일년에 한두번 이색 체험에 그치지 않으려면 흥미와 보람, 수행적 가치를 함께 지니는 가족 대상의 프로그램을 사찰 특성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아카데미는 주말수련회를 대비한 '가족프로그램 안내자 양성과정'도 오는 10월 9일~10월11일 서울 드림텔에서 개최한다.

사찰 주말수련회는 시민들이 산사에서 마음의 때를 벗고 삶에 대한 진지함과 여유를 되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주말 수련회 여는 사찰

사찰명	수련 일시	연락처
화남 대둔사	매월 1,3주 주말	(061)534-5502~3
보성 대원사	매월 1,3주 주말	(061)852-1755
남주 영광사	매월 1,3주 주말	(041)857-1854
나주 불회사	매 주말	(061)337-3440
김포 관음사	매 주말	(032)474-8228
창원 서림사	매 주말	(055)291-6405
문희 축서사	매월 그믐(음)	(054)672-7575
영주 부석사	매월 이각(각 주말	(054)633-3464
춘천 칠봉선원	매 주말	(033)432-3312
금강승선관무회	매 주말	(033)764-6062
하동 국사암	매 주말	(055)883-6661
경주 골굴사	매 주말	(052)744-1989
서울 길상사	매월 넷째 주말	(02)3672-5945
서울 조계사	매 주말	(02)720-1360
서울 봉은사	매 주말	(02)518-5952
서울 보림선원	매 주말	(02)514-4181
서울 길상사	매월 셋째 주말	(02)362-6406
서울 흥국사	매월 셋째 주말	(02)381-7570
서울 천축사	매 주말	(02)954-1474
고양 흥국사	매월 셋째 주말	(02)381-7570.1
남양주 보광사	8/30~9/1(4명)	(031)594-1316
평창 월정사	9/13~15(4명)	(033)332-6661
영천 은해사	9/26~28, 10/26~27	(054)335-3318

비구니스님 폭행 공식사과

'북한산 도로' 시공사 대표 보상 등 3개항 약속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시행사 및 시공사 대표가 비구니 스님 폭행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LG건설 김갑열 사장과 서울고속도로 최병갑 사장 등은 21일 'LG제품불매운동추진본부'를 방문,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등 불교 신행 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산 관통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비구니스님 폭행사건이 발생해, 많은 스님과 불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며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 LG건설과 서울고속도로는 LG불매운동추진본부가 요구한 △불교계 5개 신문에 사과문 게시 △회룡사 방문 사과 △다친 스님들에 대한 보상 등 3개항의 이행을 약속했다.

LG제품품불매운동추진본부 최연 집행위원장은 "비구니 스님들의 사과 동의와 시행 및 시공사가 불교계에 대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불매운동 중단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중국 종교국장 일행 초청

9월 2일 해인사 등 방문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엽소문 국장(장관급)등 11명의 방문단이 조계종 공식초청으로 9월 2일부터 6일까지 방한한다.

한중수교 10주년을 맞아 방한하는 중국정부 종교국 방문단은 해인사 팔만대장경, 법주사 미륵대불, 불국사 석굴암등 전통사찰을 찾아 한국불교의 전통을 확인하고, 중국불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상암월드컵 축구경기장, 판문점 자유의 집 등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의지도 다질 계획이다.

중국 종교국 방문단은 엽소문 국장을 비롯 사풍 국가종교사무국 1국장, 곽위 외사국 부국장, 주신옥 산서성 민족종교사무국장, 림문빈 복건성 민족종교사무청장, 오국재 녕하회족 자치구 종교사무국장, 엄금화 주해시 종교사무국장, 김화 길림성 종교국장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은 "중국정부 종교국 대표단의 방문은 민간외교의 효과 뿐 아니라, 한국불교가 중국에 역수입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세간이 곧 출세간 3개월간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하안거(夏安居)에 들었던 스님들이 정진을 마치고 23일 만행길에 나섰다. 수행 납자들은 본래 결제 해제와 상관없이 사시사철 정진하지만 잠시동안의 만행 또한 수행에 다름 아니다. 사진은 23일 하안거 해제법회 후 만행 떠나는 장성 백양사 운문선원의 수좌들.

백양사=고영배기자

"범부견해 타파 · 득실 시비 끊어야"

하안거 해제, 조계종 1855 · 태고종 30명 정진

임오년 하안거 해제법회가 23일 해인총림 해인사를 비롯 조계총림 송광사, 영축총림 통도사, 고불총림 백양사, 덕숭총림 수덕사등 조계종 5대 총림과 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 등 전국 91개 전국선원에서 일제히 봉행된다.

이날 해인사 해제법회에서 조계종정 법전스님은 "범부의 견해를 타파하고 득실과 시비를 끊어버려야 한다"며 "눈 밝은 납자라면 설사 3개월 용맹정진을 해제하여 만행 중이라고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솜씨가 있어 그 자리에서 사방팔방으로 영롱할 것"이라는 법어를 내렸다. ☞방장 법어 3면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해제를 앞두고 발간한 방함록에 따르면 이번 하안거에는 문경 봉암사 등의 선원에서 모두 1천8백55명(주지등 외 호스님 290명 제외)의 스님이 용맹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대 총림은 138명이며, 비구는 51개 선원에서 858명, 비구니는 33곳의 선원에서 859명이 안거에 참여했다.

태고종도 선암사 칠전선원, 담양 용화사선원 등 2곳에서 총 30여명의 스님이 안거에 참가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고, 기적과 영험이 용솟음치는 도량!! 초대합니다

봉행 大韓佛教總和宗 雲住山 道禪寺 落成大法會



高僧, 大德스님 여러분을 모시고, 雲住山 道禪寺의 落成法會를 봉행코저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日 時 : 佛紀 2546년 9月 13日(陰 8月 7日) 금요일 오전 10時 ■ 場 所 : 雲住山 道禪寺 藥師大佛殿

● 1부 落成法會 : 大韓佛教總和宗 宗正 東光
大韓佛教總和宗 總務院長 全南亭

● 2부 護摩行事 : 大阿闍梨 吉 田 靜 峰(修驗本宗 靜峯院)
(日本스님일행) 韓日佛教文化交流의 일환으로, 1400年의 역사를 가진 日本護摩法會를 한국최초로 소개함과 동시에 자매사찰인 道禪寺에서 개인축원과 영가천도제를 겸하여 봉행함

찾아오시는 길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2리 1488 전화 : 054)246-4467 / 팩스 : 054)241-4748

大韓佛教總和宗
雲住山 道禪寺 住持 雲山 合掌

사 설

한 젊은 스님의 이타행

출가한지 5년밖에 되지 않은 한 젊은 스님이 계속해 생명 나눔의 보살행에 동참해 우리 모두의 심금을 흔들어 놓고 있다.

경남 양산 통도사의 도우스님이 죽음을 눈앞에 둔 30대 가장 김 모씨에게 간을 기증, 새 생명을 얻게 해줌으로써 화제가 되고 있다. 도우스님은 애타게 간 기증자를 찾고 있던 김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생면부지의 그에게 서슴없이 간을 기증했다고 한다. 간을 기증하면서 도우스님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사람들이 장기기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도우스님은 놀랍게도 3년 전에는 신장을 기증한 적도 있으며 앞으로도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를 위해 골수도 기증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남을 위한 헌신적 삶을 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자기 육신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일은 범부로서는 생각하기조차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 법은 구도행과 보살행 두 가지 수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도를 얻으려는 구도행, 그리고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보살행이 쌍이고 쌓여 부처님은 성도에 이르신 것이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구도행과 보살행이 없다면 불자가 아니다. 대자대비의 불교, 보살행의 불교는 이렇듯 생명을 나누려는 스님이나 불자들이 늘어날 때 비로소 구두선(口頭禪)의 불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한 젊은 스님의 이러한 생명 나눔의 이타행(利他行)은 불교의 존재이유를 다시금 돌이켜 보게 함과 동시에 모든 이들을 자못 숙연하게 한다.

탈북자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탈북 사건이 빈번해지고 있다. 재외공관이나 외국 대사관을 통한 이른바 기획 망명에서부터, 최근의 선박을 이용한 탈북 등 방법도 다양화됐다. 과거 귀순 또는 월북 사건과는 다른 양상이다. 과거의 경우는 그 수도 미미했거니와 남북 양측 모두 체제 홍보용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해법이 간단했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탈북은 주로 생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데다 그 빈도도 잦아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불교계에서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로 이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우선 불교계에서는 탈북자를 돕는 문제를 '포교'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 물론 포교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오직 부처님의 자비를 적극 실천하는 차원에서 탈북자 돕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이상적인 형태의 포교이기도 할 것이다.

아직 한국의 사회 보장 수준이나 사회적 성숙도는 지금과 같은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만한 정도가 아니다. 따라서 종교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종교계 간의 경쟁적 선교 또는 포교 행위는 당연히 지양되야 할 것이다. 최대한 그들의 입장에서 아픔을 보듬어 안으며 따뜻한 마음을 건네는 것이 우선이다. 불교야말로 그 역할을 가장 자연스럽게 맡아야 할, '무주상보시'의 종교가 아닌가.

최근 들어 불교계의 대 사회적 구실은 크게 향상됐다. 북한산 관통도로 재검토를 이끌어 낸 것이 좋은 사례다. 탈북자 문제 또한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의 종교'로 불교라는 이름이 인류사에 남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지계진작 율사양성

석사과정 '비니원' 11월 개원

파계사 영산율원, 계율연구원 공식·체계화

지계(持戒) 풍토 진작과 율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 석사과정의 연구원이 설립된다.

대구 파계사 영산율원(율원장 철우)은 계율연구원인 '비니원'을 동안거가 시작되는 오는 11월19일 개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영산율원은 지난해 봄부터 자체적으로 계율연구원을 운영해왔으며, 비니원은 계율연구원을 공식화·체계화한 것이다. '비니(비나야)'는 범어로 '율(律)'을 뜻한다.

철우스님은 "갈수록 계율을 지키는 스님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계율을 강의할 수 있는 율사도 드문 상황에서 지계 '붐'을 조성하고, 후학 율사를 양성한다는 목적에서 '비니원'을 개원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계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스님은 드문 실정. 게다가 계율을 강의할 수 있는 스님은 10여명에 불과하고, 해마다 율원을 졸업하는 스님들조차도 더 이상 율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선방이나 포교사로 나서는 등 율학 연구 및 율사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비니원'은 우선 지계 풍토를 진작시키기 위해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한편, 시대에 맞는 계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니원'은 연구원생들에게 일정의 과제를 주고 매년 한차례씩 중국·대만 스님들과 '계율 세미나'를 여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비니원'은 또 계율을 강의할 수 있는 율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 2~3년간 소정의 교육을 마친 스님에게 율사임을 인정하는 전계(傳戒)를 하고, 계율을 강의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한다. 율사자격을 부여하는 만큼 입학자격도 율원을 졸업했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법납 10년 이상의 스님으로, 계율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스님으로 제한한다.

'비니원' 개원으로 한해 20여명씩 배출되는 율원 졸업생들의 진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율원 이외에 율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승가 전문기관은 비니원이 유일하다. 또 율학을 공부하려는 스님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비니원 개원은 율학연구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율원은 파계사, 송광사, 해인사 등 비구 율원 세 곳과 봉녕사 비구니 율원 한 곳 등 모두 네 곳이다.

모집인원은 10명 안팎. 연구원에게는 개인 방사와 소정의 연구비가 지급된다. 접수는 10월 31일까지. (053)982-2226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계, 탈북자 정착 다각 지원

하나원정기법회·지역탐방·현장체험 등

최근 탈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불교계의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현재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단체는 좋은벗들과 불교자원봉사자연합회, 조계종 포교사단 등. 이들은 지역 탐방, 남한 사회 현장체험 학습, 불교교양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자의 한국 정착을 돕고 있다.

포교사단은 서울경기 대학팀을 중심으로 매주 목요 법회를 개설, 평균 5~20명에 대한 불교교양강좌를 열고 있다. 10월경 2차 정착시설인 하나원 및 3차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도 지역포교사단 및 사찰과 연계해 정기 법회 개설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가능토록 포교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좋은벗들(이사장 유수스님)은 매월 한 차례 하나원에서 진행하는 '불교 배우기' 강좌와 함께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개월 간의 교육이 끝날 때마다 교육생들과 함께 경주지역 불교문화를 돌아보는 역사탐방 프로그램이 반응이 좋다.

불교자원봉사자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북한 이탈주민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2000년 12월부터 격월로 재래 시장보기, 고궁관람, 노래방, 볼링장 등 우리 문화 체험을 통해 탈북자 정착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포교사단 하영태 사무국장은 "앞으로 여러 가지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꾸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문화부 종무관 모철민씨

김성재 문화관광부장관은 20일 종무관(국장급) 부이사관에 모철민씨를 임명했다. 모 종무관은 문화관광부 관광국 관광기획과장, 시설과장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 비서실(4급)에 근무해왔다.

김원우 기자

"삼양식품터에 12~13층으로"

조계사, '사찰환경 저해않는 범위' 건축 합의

조계사의 반대로 97m 고층빌딩 건축허가가 취소됐던 (구)삼양식품 자리에 45m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전망이다.

조계사는 최근 (주)넥스트이미지 소유의 삼양식품 부지 매입 예정자 측과 만나 45m(12~13층 규모)를 넘지 않은 건물을 짓고, 신도들의 신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외장재를 사용하는 등 사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부지 매입 예정자가 중소기업이라는 것 외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가 난 뒤에 공개하겠다고 조계사 관계자는 전했다.

삼양식품 자리에 97m 주상복합 건물 건축 예정이었던 (주)넥스트이미지는 건물 층수를 줄여달라는 조계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다가 지난 3월 건축허가를 자진 철회했었다.

한명우 기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북한 자강도 량강도 지역 인민 협력기금으로 1억원 상당의 밀가루를 마련해 이뤄진 것이다.

종단협은 지원물품 수혜지역의 분배투명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3차 지원부터 현장을 방문한다는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급식용 밀가루 200톤 대북지원

종단협, 자강·량강도지역 어린이용

학교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200톤을 지원키로 결의했다. 이번 대북지원은 26개 종단이 모은 북한지원 성금과 정부의 남북

봉은사 특별감사

아셈보상금 사용처 조사

강남 봉은사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된다. 이번 봉은사 특별감사는 아셈건물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이유로 무역협회로부터 받은 보상금 67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가 주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자승)는 27일 회의를 열고 종회 재정분과위원회, 총무원 재무부, 기획실 감사국, 회계법인으로 이루어진 특별감사팀을 발족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산사에서 휴식과 수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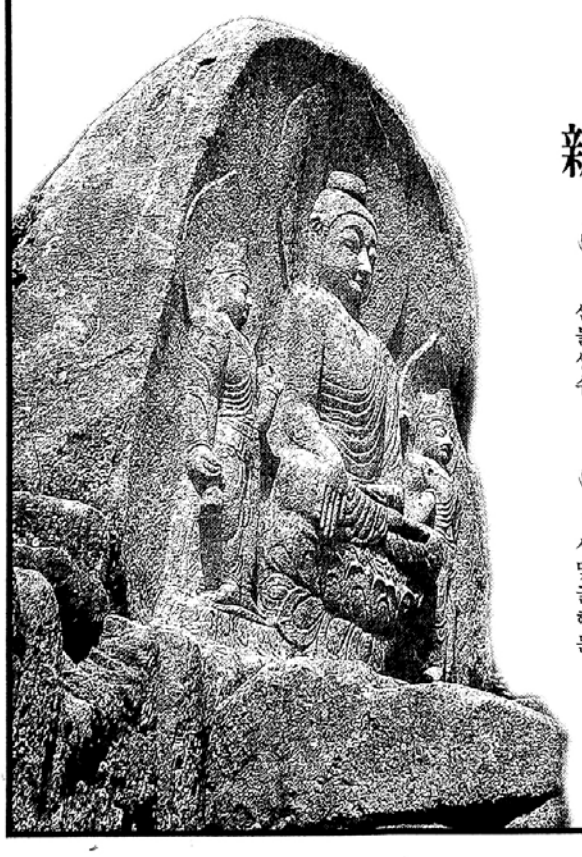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원류이자 조각과 유적의 보고, 세계문화 유산!



慶州南山
GYEONGJU NAMSAN

新羅精神과 藝術의 慶州南山의 총체적 報告書!

경주 남산의 문화유산과 민속자료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완전 올 컬러 사진!

5년간 2백여 차례의 현장정밀조사를 통해 사적 제311호인 경주 남산에 소재한 포석정 등 670여개소의 유물 유적과 140여곳의 절터, 석불 100여기, 등 불교유적 그리고 왕릉 13기등 선사유적과 4개소의 산성 등을 비롯해 경주 남산의 모든 문화유산과 민속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컬러사진 800여장에 담았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경주시의 적극적 협조와 권위있는 조사연구원과 필진으로 구성!

권위 있는 연구진과 필진, 그리고 해설 조사연구진의 빈틈없는 조사연구와 필진의 쉽고도 탁월한 해설이 중요문화재의 명칭은 물론 소재지와 시대, 규격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경주 남산의 진면목에 다시금 눈뜨게 한다.

이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문화재청과 경주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권위 있는 조사연구원과 필진이 구성되어 가능하였다.

경주 남산 관련 방대한 자료를 총망라 했으며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경주 남산의 佛蹟'의 전문도 완역!

남산소재 문화재뿐 아니라 남산에서 옮겨져 박물관과 유관기관에 전시된 중요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비롯해 금석문 자료와 고대문헌 자료 및 연구논저목록 등을 총망라해 수록했으며 영문도 병기했다. 특히 발굴 복원도와 복원에 활용할 탁본과 실측자료를 3차원 IT기록물을 통해 마련했으며 1940년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경주 남산의 佛蹟'의 전문도 완역해 실었다.

총 7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특대판, 고급양장에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

특대판형 圖錄과 解說판 2권에 대중적 가격, 3억여원에 이르는 제작비와 총 700쪽이 넘는 방대한 특대판 고급양장에 도록편과 해설편으로 엮은 '경주 남산'은 전문연구가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사랑을 느낄수 있게 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산정하였다.

〈정가 : 2권 1세트 230,000원〉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圖書出版 民族文化

釜山廣域市 南區 大淵 1洞 1754-11號 전화 051)627-2366, 627-2367 / 핸드폰 018)516-2366 / 팩스 051)627-2368



임오년 하안거 해제법회가 28일 해인총림 해인사를 비롯 조계총림 송광사, 영축총림 통도사, 고불총림 백양사, 덕숭총림 수덕사, 태고총림 선암사 등 전국 9곳 선원에서 개최됐다. 다음은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을 비롯 조계, 영축, 덕숭 총림 방장스님과 태고총림 선암사 중앙선원장의 해제법문을 간추린 것이다.

"하늘과 땅 비춰 사방팔방이 영롱"

하안거 해제법어

법전 스님

해인총림 방장



(상략) 취암 영참(翠巖 令參)선사께서 하안거 해제 날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안거가 시작된 이후로 여러분을 위해 서툰 법문 늘어놓았는데 그래도 이 취암의 눈썹이 남아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서 종전 보복(從展 保福)스님이 말했습니다. "작적인심허(作賊人心虛)라. 도둑질하는 놈은 늘 근심이지." 그러자 장경 혜릉(長慶 慧稜)스님이 말했습니다.

"생야(生也)라. 눈썹이 남지 않기는 커녕 자꾸 자라고 있군." 이에 운문문언(雲門文偃)스님이 덧붙였습니다. "관(關)이라! 관문이다." (중략)

이 말을 투철하게 알아차린다면 고인들이 농부의 소를 빼앗고 굶주린 자의 밥을 빼앗는 솜씨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긴 눈썹에 빛나는 눈동자로다

이제 해제 일을 맞이하여 만행 길에 나서는 납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산승이 한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중략) 보복 스님께서 '도둑질 하는 놈은 늘 근심한다' 고 하였는데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썹이 자라고 있다 말했겠습니까?(중략)

운문스님이 '관문이다' 라고 한 것은 참으로 기특한 말입니다. 하지만 참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지입니다.(중략)

그 선사들께서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 뜻은 결코 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 밝은 납자라면 설사 해제를 하여 만행 중이라고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비추어볼 수 있는 솜씨가 있어 그 자리에서 사방팔방으로 영롱할 것입니다.

보복운문야(保福雲門也)여 수비귀순(垂鼻歸脣)이로다. 취암장경야(翠巖長慶也)여 수미영안(脩眉映眼)이로다.

보복과 운문이여! 늘어진 코와 속이는 입술이요 취암과 장경이여! 긴 눈썹에 빛나는 눈동자로다.

원담 스님

덕숭총림 방장



(상략) 한 주먹에 태산(太山)을 쳐부수고, 한 입에 서강수(西江水)를 마시네
천봉만학(千峰萬壑) 빈골이 없고, 뚜렷이 크게 비어 마실 것도 뱉을 것도 없네.
삼세(三世)가 오직 마음이요, 오직 이 마음이 삼세(三世)로다.
마음은 만법(萬法)의 근본(根本)이요, 만법(萬法)은 한 마음에 통하며 마음에 다른 마음이 없고, 법에 다른 법이 없어 곳곳이 비어 통한다.

크게 비어 뱉을 것·마실 것 없네

마음은 체(體)가 맑고, 물들고, 동(動)하고, 고요함이 둘이 아니며 그 광연(曠然)함은 태허(太虛)와 같다.
형상 없는 몸속에 형상 없는 몸으로 무명의 길 위에 생멸(生滅) 없는 길이어서 곳곳마다 광명이며 곳곳마다 법신(法身)이라. 공겁이전(空劫已前) 한 덩어리 달빛이요, 천지미분전(天地未分前) 눈에 아득한 빛이라. 한 낱 거품의 환(幻)이 한가지로 걸림이 없다.
이 마음은 유심(有心)으로 알 수 없고 무심(無心)으로도 알 수 없다 하니 또한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는고!

지허 스님

태고총림 중앙선원장



금이나 옥반지가 아무리 집에 가득해도, 나를 구해줄 본래 보배는 아니니라
세세생생 나를 따라 다니는 보배는, 참선하는 한 생각이 진실한 것 뿐 이로다.
(중략) 육조혜능 선사의 손제자인 마조 도일선사(馬祖 道一禪師)의 회상에서 마조조실 스님이 세 사람의 수행자를 데리고 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기 그지없는 첩첩산중(疊疊山中)에 휘엉청한 보름달이 떠서 마치 천지가 은가루를 뿌려 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정경에 취한 조실스님이 뒤를 돌아보며 "이런 때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고 수행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참선 한 생각 진실한 것이 보배

맨 앞서 걷던 신라의 서당지장(西堂地藏)스님이 대답하기를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다음 가던 백장회해(百丈懷海)스님은 "선방으로 돌아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마지막 가던 남천보원(南泉普願)스님은 말없이 두 손을 저으며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에 마조조실스님이 말하기를 "교는 서당이 가져가고, 선은 백장이 가져갔는데, 보원만이 오직 홀로 출격 대장부로구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출격 대장부라야 만이 봉불살불(逢佛殺佛)할 수 있고 봉조살조(逢祖殺祖)할 수 있으며, 반야심경에 무(無) 애(碍) 무애(無碍)를 할 수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해제 대중들이여! 우리도 해제 중에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경계에 있어도 마조회상의 달빛놀이와 같이 모든 경계속에 보원스님처럼 한 생각이 진실해져서, 천하의 출격장부가 되어 선방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해제법어 전문은 www.buddhanews.com

보성 스님

조계총림 방장



오늘 해제 법문에는 삼세제불 역대조사가 가장 중요시한 '죽을 死(사) 자'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래서 신라시대 부설거사는 '설사 법문을 구름 피듯 비 내리듯 하고, 하늘에서 꽃 비 내리고 돌이 고개를 끄덕여도, 정력 없는 지혜는 생사를 면할 수 없으니, 생각하면 쓸데없는 허망한 일일세' 라고 하지 않았는가.

아무리 선지식으로 대접 받고 아는 것이 많아도 죽을 때 임종일념(臨終一念)을 매(昧)한다면 일생수행이 반분(半分)의 가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평생 염불해도 임종일념을 매하여 십념미타(十念彌陀)를 못하면 극락세계상품왕생(極樂世界上品往生)은 안된다고 하였고 선사도 임종시에 좌탈입망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오도송보다도 임종게를 더 중시하는 것이다.

일본 조원(祖元) 선사는 이런 임종게를 남겼다.

못 깨친 범부 해제 어찌 있겠는가

부처니 범부니 하는 것은 빈이름인데 그 가운데 실상을 찾는다면 눈 속의 먼지일세.
내 사리는 하늘땅을 뒤덮었으니 빈산을 향해서 식은 재를 뒤지지 말게.
고인의 말씀에 사리방광(舍利放光)이 여불(與佛)로 무이(無異)라도 바른 안목이 없다면 박지범부(博地凡夫)라고 하였다. 깨치지 못한 우리 범부분상(凡夫分上)에 어찌 해제가 있겠는가? 각자가 견성하여 생사문제를 해결하는 날이 바로 해제날 이니라. (하략)

월하 스님

영축총림 방장



한 조각 비고 밝은 것 본래 둥글고 묘해, 유심(有心) 무심(無心)으로는 능히 알 수 없네.
거울 가운데 형상 없는 이 마음은 곧, 확연한 허공 같아 털 끝만치라도 걸리지 않네.
대는 속이 비었고, 달은 빛이 밝다
선원대중(禪院大衆)이여! 오늘 해제라.
비어있으면 받아들이고 차있으면 내어놓아라. 때 맞추어 열고 닫고 또 다시 밀봉하렸다.
산은 그침이 본색이요, 고요(靜)함이 본색이다. 구름은 서(西)로도 갈 수 있고, 동으로 갈 수 있다.

형상없는 이 마음, 확연한 허공

그침과 고요함이 본색인 것은 형상이 있어 땅에 붙은 탓이지만 서로, 동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마음 없이 바람을 따르는 탓이다.

청산은 백운 밖에 푸르고 푸르며, 백운은 청산 속에 희고 희다. 청산과 백운이 하나가 되면, 비로소 가슴에 의심이 없을 것이다.

들쥐는 대숲에 뛰어들어 숨는데, 놀란 노루는 숲을 찾아 달아나구나.

'진각종 군승문제' 타협 가능성

"위덕대 만이라도" "만나서 얘기하자"

진각종과 위덕대의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학 지정 문제를 둘러싼 조계종과 진각종의 입장차가 다소 좁혀지면서 타협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본지 342호 2면 / 343호 3면 기사 참조)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은 19일 위덕대학교를 방문, 교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각종의 군승파견 종단 지정이 어렵다면 위덕대만이라도 지정되도록 하자"는 방침을 밝혔다. 진각종 내 상당수 스승(진각종에서는 성직자를 이렇게 부른다)들도 종단 지정이 무리라면 구태여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는 종단 지정과 위덕대 지정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하던 종전의 입장에서 크게 물러선 것이다.

조계종도 협상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일 문화관광부장관 초청오찬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진각종 일정 종사(전 교육원장)에게 "진각종 군법사 문제는 고산스님이 총무원장으로 계시던 당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다. 논산훈련소 입소대대 군 법당을 진각종에서 건립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만큼 이제는 조계종에서 화답할 차례"라고 말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전망이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다. 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과 종회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진각종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 타협 가능한 방안을 들고 나왔다는 점, 그리고 군 법사 부족 문제 해소 등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해 위덕대의 군승사관후보생 선발대학 지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두 종단의 타협 여지는 어느 때보다 높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바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_?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요!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일지만 강력한 마음스쿨 여행 – 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요
해산아바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바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사 과 문

우리 회사는 지난 2월 18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4공구(사패산터널)공사와 관련하여 스님들의 기도 정진 중인 공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패산 터널 공사를 재개하려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도중인 비구니 스님이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당초부터 스님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여 공사를 진행시키고자 했으나, 전혀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스님들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끼치게 된 점 유감스러운 일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02년 8월 14일

◈ 시행사 : 서울고속도로(주) 대표이사 최병권 ◈ 시공사 : 엘지건설(주) 대표이사 김갑렬

일주문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기도회

다정 광주 전남 조계종 4본사 협의회장은 24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기도회를 봉행했다.



29~31일 종단수련회

일오 대승종 총무원장은 29~31일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종도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개최한다. (031)448-8811



막사이사이상 수상 축하

법륜 정토회 지도법사는 9월 10일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막사이사이상 수상 기념 축하행사를 연다.



김교각스님 추모 헌다례

무구 남양주 백천사 주지는 9월 1일 백천사에서 '제5회 김교각 스님 성도 및 추모 헌다례'를 봉행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에

정문 불국사 기획국장은 16일 열린 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만장일치로 조계종 종회의원에 선출됐다.

화 촉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김판동 주임은 김미숙 총무주임과 9월 1일 오전 11시 마포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에서 화촉을 밝힌다.(02)703-0108

일저스님 23일 입적



본지에 '감춰진 불교이야기'를 연재해 온 일지 스님(경학회 회주)이 23일 서울 수국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44세.

해박한 교학을 바탕으로 한 직관적인 문체로 '불교인문주의'라는 독특한 영역을 개척해 온 일지 스님은 1974년 백양사에서 서옹스님(현 고불총림 방장)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80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했다. 1997년 불교경학연구소를 설립해 후학들을 지도하며 많은 경전과 선어록을 번역했다. 〈삼수갑산으로 떠난 부처〉〈선불교 백문백답〉 등 20여권의 저서가 있다.

스님의 지인들과 문인들은 고인을 추모하는 사업으로 '일지 문고'의 출간을 준비중이다.



"수행자는 숫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개원 20주년 맞는 강남포교원장 성열 스님

"10 · 27 법난을 보고 한국불교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82년 9월 7일 서초동 서초상가 3층에 세를 얻어 포교원을 마련했습니다."

재를 올려주지는 않지만 모든 운영을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하는 곳, 신도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중요시하는 강남포교원(원장 성열 · 사진)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9월 1일 기념법회를 갖는다.

"강남포교원은 교육을 우선시합니다. 월요선어록 강좌, 수요경전 공부 등 각종 소모임과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심포교원의 선두주자중 하나로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강남포교원은 다른 사찰과는 달리 신도와 스님간의 엄격한 구분을 두지 않는다. 스님들도 돈을 내고 인등을 달고, 각종 행사마다 회비를 내, 의무와 권리를 똑같이 실천한다. 포교원 운영은 한달에 한 번 열리는 신도들과 스님들의 연석회의에서 모든 것이 보고되고 결정된다. 여기에서 나온 결과는 소식지를 통해 공개된다.

"서초동에서 현 5층의 역삼동 포교원으로 옮기는 데 신도들의 힘이 컸습니다. 특정인의 큰 시주가 아니라 신도들 정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느 신도는 유학 시절 받았던 장학금 1,300 마르크를 불사에 내어 놓기도 했고, 초등학생 신도는 돼지저금통을 털기도 했습니다."

'붓다의 생애와 교리' 출간 준비

성열스님은 개원 20주년이 되었다고 특별한 행사는 없다고 말한다. 법회 전날 가족법회가 있을 뿐이다. 양적인 확장보다는 불자들의 심성정화, 여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재발심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숫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의 몸을 갈아 칼날을 벼리는 숫돌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만 좇아 실천하면 이는 당연한 귀결이죠."

스님은 초기불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정판 〈부처님 말씀〉(현암사)을 내 놓았다. 또 '붓다의 생애와 교리'도 준비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불교 전통수행법 널리 알리고 싶어"

칼라사진 교본 '관선무' 펴낸 광원 스님

"관선무는 단순한 무술법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관법수행에서 비롯된 불교 전통수행법입니다. 관선무에는 부드러움과 강함, 고요함과 역동력이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관선무(觀禪武)의 수행동작을 전면 칼라사진으로 엮어 펴낸 광원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과 4 · 사진)은 "중앙승가대 관선무 동아리에서 학인스님을 지도해오면서 체계적인 교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지난 2년간의 작업 끝에 이번에 교재를 발간하게 됐다"고 발간계기를 밝혔다. 육군 7사단 법왕사 건립을 시작으로 포교활동을 해온 광원스님은 서울 개운사에서 관선무도장을 4년째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오는 9월 21일부터 서울 수서동 전국비구니회관에서 관선무 도장을 연다. (02)926-3181.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스님 · 신도 사회참여 앞장서야"

창립 1돌 영주장애인복지관장 지현 스님



"이제는 스님과 신도가 앞장서 사회참여에 나서야 합니다."

28일 창립 1주년을 맞는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현스님(사진)은 "관혼처럼 늘 처음같은 마음을 지켜 지역사회 발전에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지난 1년동안 여러 사업을 시행해 보니 우리 사회는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편견이 남아있어 지역 3,500~4,000여명의 장애인 중 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는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확충할 계획임을 밝혔다. 스님은 이를 위해 재가복지센타를 영주시에 신청한 상태이며, 이동목욕서비스 등도 곧 시작할 예정이다.

얼마전 지역의 스님 및 신도, 장애우들과 함께 '죽령터널개통기념 마라톤대회'도 참가하고 '정신지체장애인 축구한마당', '장애체험행사' 등을 개최한 지현스님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내겠다"고 말했다.

지역의 대표적 도교도량 봉화 청량사 주지기도 한 지현스님은 "이제부터는 직접 삶의 현장을 찾아가 포교하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며 "불교가 앞으로는 교육과 복지사업 등에 적극적인 참여불교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스님은 "우리 복지관의 오늘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관심과 후원을 보내준 영주, 봉화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첫 한걸음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면, 다음 한걸음은 참된 장애인 복지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주= 박원구 기자·

"美지역 불교포교에 주력"

센트루이스 첫 한국사찰 알리기 장정윤 씨

"채식위주의 사찰음식문화를 통해 생명과 환경의 중요성도 알리고,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는 청년불자 장정윤씨(24세 · 사진). 2년 전 불교에 귀의한 그는 요즘 세인트루이스 최초의 한국 사찰인 '불국사' 홍보에 여념이 없다.

불국사는 장씨와 같은 대학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비구니 선각스님이 지난 5월 국내 불자들의 도움으로 마련한 절이다. 현재 현지 주민과 교포학생 등 20여명이 선각스님의 지도아래 참선과 경전공부, 일요법회 활동을 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3월 일시 귀국해 조계사에서 템플스테이 통역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가 하면, 지난 월드컵 때는 붉은악마 응원단에서 활약했다. 당분간 한국에 머물면서 3월 결성된 국내 불국사 후원회와 함께 사찰음식문화를 알릴 포교사업 재원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장씨는 "세인트루이스에 한국불교문화의 전통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내외 불자들의 많은 후원을 부탁했다.

(031)971-3513 불국사 후원회 안명희 총무

이은자 기자



동국대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22일 중강당에서 200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56명, 석사 517명, 학사 523명 등 모두 1096명이 학위를 받았다. 졸업사를 통해 송석구 총장은 "자랑스러운 동국인으로서 학교 명예 선양은 물론 한국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한마음선원 거사합창단 야외법회

한마음선원 거사 합창단은 10일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법흥리 관음사(주지 보륜스님)에서 제1회 야외법회를 가졌다. 안영준 단장을 비롯,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관음사 주지 보륜스님은 "남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며, 사섭법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라고 법문했다.



대원회 27사단 신병불자 수계식

대원회(회장 명진, 광명 자비사 주지)는 18일 27사단 신병교육대대 법당인 호국용호사에서 수계법회를 가졌다. 운봉스님(화천 쌍용사)과 청봉스님(양평 용천사)이 계사로 나선 이날 법회에서 400여 군불자들이 5계를 수지했다. 대원회는 군불자들에게 떡과 다과 등을 제공했다.



삼광사, 초청작가 서화전시회

천태종 삼광사(주지 도원)는 21~23일 삼광사내 부산금강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제2회 초청작가 서화전시회를 개최했다. 21일 개막행사에는 감사원장 정산스님, 삼광사 주지 도원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스님을 비롯 1백여명이 동참했다.

법사과정(3년)

능엄경 대강좌



송찬우교수

⊙출가수행자 뿐아니라 재가수행자들도 한번쯤은 꼭 독파해야할 경전 능엄경!
지행합일의 실천수행의 경전, 선학, 교학,밀교를 융합시킨 경전을 송찬우교수께서 시작합니다.

- 楞嚴十義 -

① 色 { (일곱군데에서 마음이 있다고 진술함) (여덟 가지 돌려보내는 예문 등하여 견을 밝힘)
② 受 { (근원으로 돌아가 한가지로 쉼) (세계와 인간을 분석하여 설명함)
③ 相 { (여섯 가지가 풀리면 곧 하나마저도 없어짐) (25명이 그들의 원통을 저마다 선택하여 피력함)
④ 行 { (능엄주의 持誦 과 효용을 설함) (보살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단계들을 설함)
⑤ 識 { (수행하는 데에서 오는 장애는 모두 오음에 의한 망상임) (그망상을 세밀하게 50가지로 나누어 설함)

1. 개강일시 2002년 9월 10일(화)오후 2시
2. 과 정 정규반 · 통신반
3. 원서교부및접수 02) 732-1206~8

동산불교대학 부설 어학강좌(1)

영어로배우는 불교

21세기 세계 공용어는 영어로 불교인들도 국제화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영어불교를 알아야 합니다



조길문교수

◎ 일 시 2002년 9월 11일(수) 오후 7시 개강
◎ 과 목 부처님 생애 · 교리 · 깨달음의 길
◎ 교 수 조길문교수(승가대)

동산불교대학 부설 어학강좌(2)

산스크리트문법및 강독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의 원전을 공부하기 위한 산스크리트 강좌



최종남교수

◎ 일 시 2002년 9월 13일(금) 오후 2, 7시 개강
◎ 과 목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日빗어
◎ 교 수 최종남교수(승가대)

불교한문학과 (9월12일 (목)오후 7시개강

명심보감 · 논어 대강좌



김병조교수

▣정규반 · 통신반

과 목	· 한문법(1), 한문법(2) · 명심보감, 장자, 주역, 논어 · 발심수행장,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육조단경
교수진	· 심재동 교수(동국대), 한정섭 법사 · 송찬우 교수(승가대), 무진장 스님, 김병조 교수

불교미술학과 (9월11일 (수)오후 2 시개강

과 목	· 단청, 사천왕, 8부중, 광삼성도, 보살상, 부처상 · 영산변상도, 정토변상도, 화엄변상도
교수진	· 윤열수 교수(동국대) · 김익홍 교수(전동국대)

우리춤학과 (9월11일 (수)오후 4시개강

과 목	· 우리춤기본, 승무기본 · 작법기본, 북과장단기본
교수진	· 이애주 교수(서울대교수) (중요 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예능보유자)

원서접수 및 접수문의 02)732-1206~8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1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가을반)
2.교육장소	동산 법당 (동산불교회관)
3.개강일시	2002년 9월 4일(수요일) 오후 7시
4.교 과 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 학 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 2매)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전문연구원

불교 교육 전문 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732-1207
인터넷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금강회 우란분절 정진 회향

19~21일 3일간을 우란분절 정진기간으로 정하고 점심시간과 일과 이후 시간을 이용해 불공을 올린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회장 윤종우)는 21일 회사내 금강원에서 우란분절 특별정진을 회향했다. 이날 지도법사 증악스님(대구 보리사)과 회원 및 가족 3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108배와 축원 등으로 진행됐다.



금강메아리 복계산 산행법회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공형수)는 18일 강원도 철원 복계산에서 산행법회를 봉행했다. 2시간여의 산행에 이어 복계산 정상에서 열린 법회에는 회원 및 가족 30여명이 동참했다. 한편 금강메아리는 9월 1일 경북 봉화 청량산으로 산행을 떠난다. 이날 청량사도 참배한다. (02)730-1080



서초반야회 천수경 강좌

법조인 불자들의 모임인 서초반야회(회장 김동건)는 21일 서울 으면산 대성사에서 일산 원각사 정각스님의 강의로 천수경 강좌를 가졌다. 반야심경, 금강경에 이어 천수경 강좌를 시작한 서초반야회는 매월 한차례 경전 강좌를 겸한 법회를 열고 있다. 박홍우(서울 북부지원 부장판사) 총무는 "경전 강좌는 회원들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전산통신망 회보·소식지 불교계 신문 i메신저 e-메일

직장 포교 "이렇게 하세요"



◇직장 불교단체들은 불교와 모임을 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각양각색의 홍보방법을 선보인다. 사진은 공무원불자연합회 박현남 간사가 동호회란에 부처님말씀을 올리는 모습.

춘천시 서면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박연순(45) 씨는 시청 전산통신망 게시판에 올라 있는 부처님 말씀을 읽고 감동받아 시청 도반회에 가입했다. 박씨는 출근하자마자 전산통신망과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부처님 말씀, 큰스님 법문 등을 검색한 뒤 하루를 시작한다. 수협중앙회 최운이(41) 씨도 사내 전자결재망에 오른 경구(經句)를 읽고 환희심을 느껴 불자회 가입원서를 썼다. 서울 도봉경찰서 정보1계 나상인 경사(37)는 경찰불교회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펼친다는 〈경찰신문〉을 보고 발심을 일으켰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불자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은 많지 않다. 때문에 직장불교회는 불교와 모임을 일반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각양각색의 홍보방법을 선보인다.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사내 전산네트워크다. 공무원, 경찰청, 한전, KT, 금융권 등이 대표적.

지난해 1월, 20여명의 불자들이 모여 창립한 춘천시청 도반회는 청내 전산통신망을 통해 불교와 모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1년 6개월만에 회원은 50여명을 넘어섰다. 춘천시내 사찰을 순회하며 매월 한차례 열고있는 법회에 매번 4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여해 시청 동아리 모임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보도 홍보에 많이 활용된다. 서울아산병원, 철도청, 지하철공사 법우회 등 단체들은 정기적으로 회보를 발행, 이를 나눠주며 회원가입을 이끌고 있다. 직원보다 외부 사람들의 출입이 많기 때문이다. 아산병원 법우회는 매주 부처님 말씀을 담은 주보를 각 병실에 배포,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불교와 법우회 활동을 알리고 있다.

수협중앙회 불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이용한다. 'i메신저'라는 사내 전자결재망과 노동조합 소식지, 〈수산신보〉 등에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i메신저'에는 매주 부처님 말씀과 큰스님 법문, 교리를 게재해 일반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i메신저'에 홍보를 위한 글을 읽고 불자회에 가입한 신규회원은 10여명.

자신이 가진 5%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도봉경찰서 불교회는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홍보 효과를 얻고 있다. 도봉경찰서 전 직원이 알고 있을 만큼 잘 알려진 경불회의 활동은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생활비 지원, 노력봉사, 유치인 계도 등 '실천하는 경찰상'을 세우고 있다. 2000년 5월 12명의 회원으로 출발해 현재는 50명을 넘어섰다.

전남 강진경찰서 불교회는 불교계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이용한다.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신문을 한부씩 비치하고 있는 것. 부처님 말씀을 전단으로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방법도 함께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자메일, 일반직원도 참가할 수 있는 행사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기도 한다.

도봉경찰서 불교회 고광선 회장은 "일반직원들에게도 법향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직장불자들이 더욱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구미시청불자회 봉정암 성지순례

경북 구미시청 불자회(회장 신영근)는 31일 설악산 봉정암으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이날 순례에는 회원 및 가족 4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구미시청불자회는 매 분기마다 성지순례를 갖고 구미시청 불자회는 회원들의 다양한 신행체험을 돕고 있다.

석불선양회 홍성 상하리 미륵불 참배

한국석불선양회(회장 이귀인)는 9월 8일 충남 홍성 용봉산에 소재한 상하리 미륵불과 신경리 마애불을 찾아 친견법회를 개최한다. 또 인근의 용봉사에 들러 참배하며, 명상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석불선양회는 공양물 헌공, 예불, 주변 정화활동 등을 통해 올바른 석불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불교산악회 법주사 성지순례·산행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오길수)는 9월 8일 속리산 법주사로 성지순례 및 산행을 떠난다. 속리산 세심정과 보현재, 문장대 등을 거쳐 법주사에 들러 법회 봉행과 문화재를 관람할 예정이다.

불자교정인련 간부수련회

9월 7~8일 백양사서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오희창)는 9월 7~8일 전남 장성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하계 간부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30여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정인 불자 200여명이 동참하는 이번 수련대회는 수행정진을 통해 재소자 포교 원력을 다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장흥, 순천, 군산교도소 등에 불자모임이 없는 점을 감안, 재소자 포교 관계자들을 초청해 호남지역 포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조직 활성화 및 재정확보' '지회와 불교교화위원회와의 관계 설정' '회원 배가' 등의 당면 현황에 대한 토의와 신행사례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오희창 회장은 "이번 수련회는 전국 교정인 불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포교기법을 공유하고, 재소자 포교에 더욱 매진하기 위한 화합의 장"이라며 "이를 위한 교정전문가들의 특강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세무사불자회 봉은사서 첫 합동법회

국세청 보리회와 한국세무사불자회는 29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합동법회를 갖는다.

이번 합동법회는 조세업계 불자회간 교류의 물꼬를 여는 첫 모임이다. 특히 최근 동일직종간 불교단체들의 연합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어 불교계에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향후 지도법사 문제와 관련해 법회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봉은사 측에 협조를 요청,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매월 둘째주 목요일 봉은사 선불당에서 합동법회를 개최한다.

세무사불자회 정구정 회장은 "이번 합동법회를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불자연합회 불자들은 중국 서안의 대표적인 사찰인 법문사를 참배했다.



◇전남도청 불자회원들이 중국 소주 한산사에서 기념촬영했다.

공불련·전남도청 불자회 중국성지 순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와 전남도청 불자회는 한국에 불교를 전래한 중국의 불교성지를 순례했다.

12~17일 중국 대동의 운강석굴 현공사, 오대산 탑원사·현통사, 서안 법문사·대안탑, 북경 자금성 등을 참배한 공무원불자연합회 소속 40여 불자들은 중국불교를 체험하고 견문을 넓혔다.

전남도청 불자회도 5~10일 3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항주 영은사, 소주 한산사, 상해 옥불사 등 중국 불교성지를 참배했다.

김채홍(전남도청 지식기반산업과) 씨는 "문화적 측면에서도 한국불교가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는 불교라는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신입회원 기초교리 강좌 한전본사 반야회

한전본사 반야회(회장 이인규)는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매주 목요일 불교기초강좌를 실시한다. 이 강좌에서는 불교예절, 사찰구조와 배치, 법회의식, 기초교리 등 불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절과 상식을 교육한다.

반야회는 22일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합장과 절, 법당에 담긴 의미'를 주제로 첫 강좌를 열었으며, 앞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이순형 구도부장은 "신입회원들이 절과 불교를 친숙하게 느끼고 올바른 신행활동을 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30명 ■통신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각 종단 승려 포교사 · 30세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통신80명		
	4년	■통신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4년	■주간30명 ■야간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30명		

2.학교연혁

1989.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9. 중국 한의대 본과 34명 합격
2002. 2. 제11회 졸업생 배출
2002. 9. 중국 한의대 본과 50명 합격(예정)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본과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2002년 9월 1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02)511-2026~7 FAX.02)511-2028
인터넷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376-1321, 132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 화 불 교 대**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
9월 본과(학사) ■석사·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건강진단서(영문)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여권용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학사 졸업자 한함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한국한의사 시험 2005년3월예정(국회법통과)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2년 9월 10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문의처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석사과정 졸업자는 중의사고시 시험가능 1년인턴
주소: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 화:25-6798167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전화 : 02-511-2026~7 팩스: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쉼없는 수행

8월-용맹정진의 달

- 해태심의 극복
- 날마다 발심하기
- 정진의 방편
- 쉼없는 수행

23일은 하안거 해제 날.

올 하안거 기간에도 여전히 전국 90여 선원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모여든 2천여 수행자들이 화두를 불잡고 더위와 수마, 끊임없이 번뇌하는 자신과 마주 앉았다. 3개월의 하안거 수행은 이날로 끝이 났지만,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흔히들 안거 기간이 끝나면 수행도 당분간은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상당수의 스님들은 그동안 못다 한 경학공부로, 다시 화두참선으로, 만행으로 안거 이후의 시간 역시 수행자의 본분지키기를 위한 정진으로 이어나간다.

특히 조계종의 수행가풍을 이어오고 있는 종립선원 봉암사는 동·하안거 외에도, 봄과 가을 반결제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안거가 끝난 뒤 보름간의 해제기간을 가진 후 한 달간 하루 14시간 가행정진하는 안거를 매년 어김없이 실시해 오고 있다. 봉암사의 수행가풍은 이렇듯 끊임없이 용맹정진하는 수행의 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자들 또한 이러한 수행자들의 의지와 생활을 거울삼아 쉼 없이 수행해야 한다.

수행은 우리삶 지탱해 주는 원동력

굳은 의지·노력으로 끊임없이 정진

본지가 지난 6월 둘째주 붓다뉴스 '불자의 생각'을 통해 네티즌 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자들은 하루에 참선이나 기도, 염불, 경전읽기 등 수행을 위해 평균 30분미만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불자들 가운데 51%가 하루 30분미만 수행한다고 답했으며, 1시간미만은 22%, 2시간 이상은 15%, 2시간미만은 11%로 조사됐다.

실제 수행하는 시간은 언제냐는 질문에는 56%가 '형편대로 한다'고 답했고, 31%가 '새벽'에, 12%는 '저녁'이라고 답했다.

소수의 네티즌 불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이 설문 결과는 현재 우리 불자들의 신행행태를 읽을 수 있는 표본 자료로 참고할 만하다.

과반수 이상의 불자들이 30분미만이나마 수행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정진에 마음을 쏟으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또 1시간 이상 수행하는 불자들이 26%나 된다는 사실은 상당수의 불자들이 생활 가운데서 용맹 정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들어 전국의 사찰에서 주말수련회가 잇달아 신설되고, 곳곳에 시민선방이 문을 열고 있다. 이처럼 수행도량과 프로그램이 하나둘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생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쉼없이 수행하려는 불자들의 욕구가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가을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접어두었던 자신의 수행의지를 다시 한번 곧추 세우자. 혼자가 힘들면 가족, 친구와 함께 수행 계획을 세워, 가까운 사찰의 주말수련회나 시민선방을 찾아가자. 굳은 의지와 노력으로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성숙시키고, 우리 가정, 사회,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은자 기자

신행 캘린더

8월 28일 (수)

■전주 '세계소리대축제'=국내외 156개 팀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하모니의 향연이 9월1일까지 전주시내 소리문화전당, 전통문화특구 등지에서 펼쳐진다.

티베트 명상음악가 나왕케촉을 비롯, 권삼득 명창의 공연과 중국 최고의 공연단인 돈황예술극원의 공연, 소설가 최명희의 '혼불'을 주제로 한 창작극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063)280-3324

■용진신행회 '성진순례'=금강산 건봉사 부처님 치아사리 친견 순례.

건봉사는 조선시대 고승인 사명대사의 사리를 봉안한 곳이자 처음으로 염불만일회를 열었던 곳. 출발은 오전 6시 30분 을지로 5가. 참가비는 2만5천원.(02)2279-1191

8월 31일 (토)

■정신세계원 '명상음악 축제'=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에서 신비한 명상음악의 세계를 느낀다.

정신세계원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양수리 두물워크숍에서 '인도 전통음악과 자연 친화력의 관계' 주제의 강연, 인도음악 연주그룹 '반디쉬'의 시범연주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연다.(02)747-7033

■원성스님의 '인도이야기'=교보문고는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풍경〉의 저자이자 동자승 그림으로 유명한 원성스님을 초청, 스님의 창작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원성스님과의 만남은 최신작인 〈시선〉의 배경인 인도를 여행하면서 겪은 체험담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02)397-3500

9월 1일 (일)

■영남불교대 '가을맞이 청소년 특강'=대구 영남불교대학이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4층 법당에서 5주간 '가을맞이 청소년 특강'을 마련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능인중학교 김영진 교사의 '빠르고 쉬운 학습법', '대구 하나병원 성춘희 간호원장의 '성, 바로게 알아야 한다' 등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제공된다.(053)474-8228

■동화사 '지관스님 초청법회'=대구 동화사가 가산불교문화원장 지관스님을 초청해, 오전 10시부터 백고좌법회를 봉행한다.

91년 가산불교문화원을 창립한 이래, 해인사 1200여년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가야산 해인사지〉 발간 등 불교학 발전에 큰 힘을 쏟은 지관스님은 '관세음보살의 수행법'에 대해 설한다.(053)982-0101

9월 2일 (월)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이혼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 교육'=이혼과 가정 해체는 현대사회의 큰 문제. 한국여성불교연합회는 9월 2, 3, 9, 10일 4회 20시간에 걸쳐 이혼 등 가정불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여성합동변호사 협회 박정혜 변호사, 이동원 이대 교수 등이 '가정폭력의 배경과 원인' '가부장적 제도와 여성인권' 등에 대해 강연한다.(02)738-5586

9월 4일 (수)

■경주박물관 '문화강좌'=경주박물관은 내년 2월 26일까지 제18기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31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에는 박영복 경주박물관장, 강우방 이대 교수, 조유전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등 전문가들이 신라의 불교사상, 건축, 미술사, 역사학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12차례의 유적 및 문화재 답사도 진행된다. 참가비는 22만원.(054)772-5173

"낮가림 심한 분 우리절로 오세요"

우리 절 우리 신도

서울 보현정사 김춘자 신도회장



◇김춘자 회장은 신도관리부터 청소, 공양간일, 화초 물주기 등 사찰의 온갖 일을 도맡아 한다. 김 회장이 법당 앞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

10여년 한결같이 초심자 배려·친절안내

연내 어머니합창단, 실버타운 건립 서원

"집 근처 법당에 나가고 싶어도 낯설고 쑥스러워 사찰에 나오기가 쉽지 않다면 꼭 우리절로 오세요."

서울 서초동 보현정사의 김춘자(65·서울 여의도) 신도회장이 절일을 하며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바로 초심자들이 부처님 법을 알고 싶어 사찰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그 마음가짐이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김 회장은, 불자들이 불법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아도 낯선 곳에 처음 나와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10여년간 보현정사 신도회를 이끌어 오면서 한결같이 자신은 물론 간부들에게도 초심자들에 대한 깊은 배려와 친절한 안내를 강조해 왔다.

"하다못해 구걸하는 걸인이 찾아와도 누구나 항상 친절과 미소로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 사찰을 일단 한번 찾은 사람은 바빠서 자주 나오진 못하더라도 인연만은 계속 유지하는 편입니다."

김춘자 회장과 보현정사와의 인연은 10여년 전 창건 때부터 시작됐다. 보현정사(당시에는 마하연 포교원) 초대 주지였던 해인사 정빈 스님이 도심포교에 원력을 세웠지만 재정 문제에 부딪치자, 김 회장이 자신의 건물 중 4·5층을 기꺼이 보시하며 불사에 팔을 걷어붙인 것. 김 회장은 사찰 건립 후 주지 스님과 의논해 제일먼저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했다. 주변이 교회로 둘러싸인 서초동 일대에서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 불사 밖엔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한정섭 법사, 박완일 교수 등 불교계의 이름 있는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수요일마다 기초교리와 경전공부를 했다. 이런 포교 전략은 교육 수준이 높은 서초동 일대의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져 나갔고 대성공이었다.

교양대학을 개설한 후 2개월이 채 안돼 강의가 있는 날이면 법당이 비좁을 정도로 주민들이 구름같이 모여 들었다. 이러한 열기는 보현정사가 도심포교당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큰 디딤돌이 되고 있다.

현재는 보현불교교양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어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강의를 열고 있다.

김 회장이 보현정사 신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유는 특유의 부지런함과 겸손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불교유치원인 혜성유치원 이사장이기도 한 김춘자 회장은 바쁜 일과 중에도 짬만 나면 2시간 거리에 있는 보현정사로 달려와 신도관리부터 시작해 법당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공양간일, 화초 물주기 등 허드렛일까지 도맡아 한다. 또 5월부터는 기혈치료 전문가인 수암 옥지미 교수(세종대 사회교육원)를 초청, '기혈순환 마사지' 특강도 마련해 이를 배운 신도들이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불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부처님 법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현정사의 신도들이 사회의 그늘진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봉사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사지 특강을 마련했지요."

올해 안에는 어머니합창단도 결성해 음성포교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 회장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마지막 꿈이 하나 있다. 경기도 인근에 무료복지 실버타운과 법당을 건립해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기도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

"현재 경기도 화성에 1만여 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고 성공적인 불사를 위해 매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김 회장은 "언젠가는 부처님께서도 제 소원을 들어 주시겠지요"라며 활짝 웃었다.

김주일 기자

추천의 말

보현스님 보현정사 주지



김춘자 회장은 불심도 깊지만 자신이 배운 부처님 법을 몸소 실천에 옮길 줄 아는 참불자입니다. 특히 보현정사 신도들을 친 형제처럼 여기며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도들이 믿고 따르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신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불자로서의 범주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 지체없이 충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절의 신도들 대부분이 보살들이라서 자칫하면 친한 사람들끼리 무리지어 알력이 생길 법도 한데, 주지인 저와 신도들의 가교 역할은 물론 신도들끼리도 서로 우애있게 지낼수 있도록 항상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김춘자 회장이 보현정사를 지키고 있는 한 신도들이 마음놓고 찾아와 신행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天下名品

- 참나무 목초 수액시트 -

발건강법

수정은 예언, 집중력 향상, 건강증진 명상수련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天下名品을 소량 한정판매 합니다)



天下一品 (19cm)
판 매 가 : 200만원
특별판매가 : 45만원
(용발침대 5만원 별도)

名 品 (10cm)
판 매 가 : 33만원
특별판매가 : 25만원

♣ 수정구 사용법
·명상수련 예언 예측수련
·氣건강수련 소원성취
·민사형통 복부풀기 명기풀기
·차크라수련

天下名品 名 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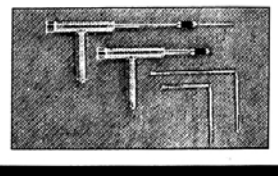
50억년 전에 생성된 수정은 지구상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받는 물질로 알려져 왔으며 기수련, 건강증진, 소원성취, 명상, 예언 등에 사용해 왔습니다.

◆ 일찍부터 점성가들은 수정구로 예언 예측에 사용해 왔습니다 ◆

※ 천하명품은 중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명품이며 귀한분 들에게만 선물하였습니다.

▶ 수맥, 명당찾기전자로드, 피라밋트

수맥, 온천, 지하수, 명당, 금광 및 지하자원 찾기



· 전자로드(1Set) : 350,000원
· 전자로드(1개) : 180,000원
· L로드 : 20,000원
· 수정주 : 45,000원
· 펜드럼 : 10,000원
· 손통L로드 : 40,000원
· 피라밋트 : 350,000원

韓國氣研究院
☎ 02) 455-6944

자고나면 온몸이 상쾌해지는 새로운 발건강법!!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 분
- 항상 몸 컨디션이 불편한 분
- 가정주부, 수험생, 산후조리
- 손, 발, 어깨, 무릎, 허리가 상쾌해집니다

배꼽다이어트 씰 ★수입완제품 ★일본大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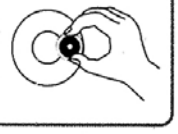
⊙ 일본에서 매월 60만개가 팔리는 히트상품!
⊙ 이학박사 "사카이 미쯔루"증언
⊙ 배변원활, 체중감소, 허리날씬, 냉증

정가 : 69,000원

간단히 배꼽에 부치면 효과가 있습니다.
복부가 따뜻해지고 배변이 원활합니다.

♣ 500분에 한하여
수액시트 2BOX(160,000원)를
주문하시면 무료증정

※ 별도 구입 가능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상담해 드립니다.
우체국 014092-06-011003 (예금주)김건순

☎ 02) 453-5851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최근 중국산오가피를 북한산이나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적발된 업체들이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는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오직 국내에서 재배한 국산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국내최대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칠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며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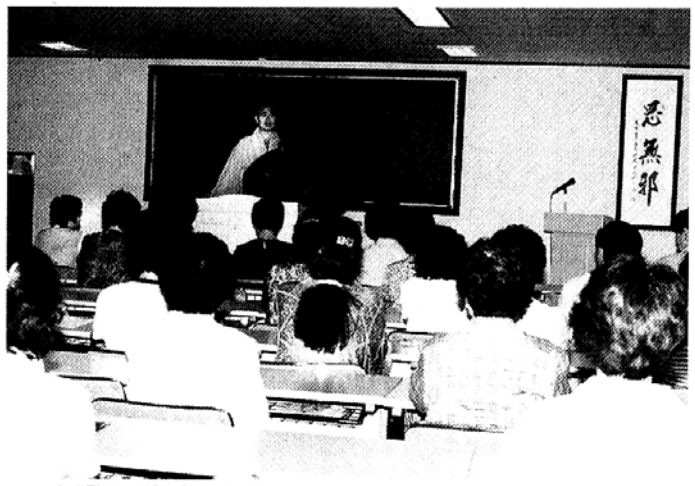
사진 확인하셨습니까?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문의전화 (02) 447-5300

불교대학을 찾아서

⑩ 대광불교대학



◇대광불교대학 2학기 개강법회에서 학장 상진스님이 수강생들에게 법문하고 있다.

전국유일 3개과 나눠 석달간 분과수업
사회복지과선 건강 · 환자간호법도 강의
포교사 재교육 등 전문과정 신설 계획

통도사부산포교원(주지 상진) 대광불교대학의 2학기 개강일이었던 16일, 화엄회관 강당에 모인 수강생들은 예불을 올리고 학장 상진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법문이 끝나자 수강생들은 수업준비를 하지 않고 일부는 강당이나 법당으로 서둘러 장소를 옮겼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광불교대학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분과 수업 때문인데 각각의 장소로 옮긴 수강생들은 사회복지과, 신행과, 포교사과로 나눠 3개월간 진행될 과별수업을 시작했다. 이날 30여명의 사회복지과 수강생들은 불교대학의 교과목치고는 다소 생소한 건강과 질병, 환자간호법 등에 대한 첫 수업을 가졌다.

분과 수업은 불교 전반에 관한 기초 교육을 공통으로 하되 수강생들이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야는 과를 나눠 실시하는 전공 수업 방식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내용으로 진행되는 분과 수업은 이론과 실천을 하나가 되게 해준다. 부산적십자사와 연계, 간호의 기초과정, 질환별 간호, 임산부 돌보기, 응급처치 등의 과정을 이수하면, 응급조치요원 자격증과 간병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의 경우, 절대적으로 부족한 불자 간병봉사자 양성의 장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참선 실수, 발우공양, 염불, 108배 등 체험위주로 진행되는 신행과와 포교사 시험대비를 위한 포교사과 등의 분과 수업도 수강생들의 피부에 와닿는 교육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많은 불교대학이 포교사고시를 위해 학원화되어 가는 상황에 맞서 불자 교육의 본질을 강화하고 실천의 토대가 되는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분과 수업은 조계종 포교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 성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신행을 최우선 과제로 표방하고 나선 대광불교대학은 1996년부터 개설된 제 1기 신행학교를 모태로 야간신행학교 개설, 대광불교대학 설립을 위한 도덕경 강의 등을 거쳐 골격을 갖췄다. 3개월 과정이었던 신행학교는 대광불교대학 부설 6개월 기초교육과정으로 연 2회 개설되고 있다. 특히 신행학교 수료이후 지속적인 신행활동을 위해 기수별로 고불공양, 생불공양, 현불공양, 연불공양, 진불공양 등의 신행단체를 결성하고 사찰 참배, 보리암 기도, 자체 행사 봉사, 무료급식봉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운 만큼 회향한다'는 신행학교의 풍토는 대광불교대학의 신행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정착했다. 이 밖에도 각종 봉사활동과 사물놀이, 다도, 서화, 서예부, 문화답사회 등의 특별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대광불교대학은 불법을 배우고 그 배움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길 기대하는 불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새로운 교과 과정 도입으로 개교 2년의 짧은 기간에도 부산에 3곳뿐인 조계종 인가교육으로 인정받는 성과도 거뒀다.

박규보 교무처장은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을 마친 포교사를 위한 교과과정을 준비중"이라며 "장기적으로 3년 과정 정도로 전문화된 교과 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천미희기자

후배 뒷바라지로 1년간 배움 회향
1기 졸업생 구영희 포교사



"포교사가 된 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운 것을 회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고 보람 있다".

수업전반에 관한 업무 보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1기 졸업생 9명중의 한사람인 구영희(49 · 당감동)보살은 "내 몸짓과 말 하나가 불법을 전하는 향기가 될 수 있길 발원하며 봉사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매주 목, 금요일 열리는 수업에 빠짐없이 참석해 출석 점검, 명찰 배포 등 후배를 뒷바라지하는 일로 스스로의 공부를 점검하고 있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곰팡내 단칸방서 꿈 키우는 성재자매

"'백의의 천사' 될래요"

아버지·어머니 가스중독·당뇨병으로 타계
학교지원금 등 월25만원으로 힘든 하루하루

성재(18 · 혜원고2)와 성진이(15 · 면목중2) 자매가 4년 째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서울 면목동 연립주택 지하단칸방. 퀴퀴한 곰팡내가 진동한다. 올 여름 장마와 한바탕 전쟁을 치른 탓이다. 벽마다 시커멓게 슬어 있는 곰팡이. 묵은 달력으로 덧댔다. 척척 갈라진 방바닥, 붙여놨던 청테이프 모서리가 돌돌 말려있다. 하지만 뗄 생각은 하지 않는다. 엄마가 누워있던 방이었기 때문이다.

평소 조용하고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성재는 좀처럼 말이 없다. 여동생 성진이는 아예 자리를 피하고 없다. 보기 좋게 '불청객'이 되어버렸다. 한참 후 성재는 짧은 호흡의 단문으로 말문을 열었다.

"어려서부터 '병원'을 '집'처럼 드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스중독으로 산재 판정 받은 뒤로 쭉, 아빤, 식물인간이었어요. 말하지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

초등학교 5학년 때 맞은 아빠의 죽음, 사실 가물가물하다. 성재가 4살 때 화학섬유공장에서 일하던 아버지 홍원표 씨는 '시에스투 가스 중독'이라는 산재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그 후로 8년 넘는 투병 끝에 96년에 세상을 떠났다. 곧이어 2년 뒤, 엄마 신영희 씨도 당뇨 합병증으로 몸져누웠다. 아빠의 병 수발이 엄마의 병으로 이어진 것이다.

"원래 엄마는 자주 피곤해 하셨어요. '나 죽으면 어떻게 살래'며 늘 말했어요. 돌아가시기 3일전에, '죽은 것 같애'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러다 누워만 계신 줄 알았는데, 혼들어 봐도 의식이 없었어요. 급히 응급실로 옮겨갔었는데…. 그날 성진이는 엄마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밖에서 뒤늦게 놀다 들어와 마지막 모습도 못 봤어요. 생각해 보면, 오히려 어린 동생에게는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성재는 엄마를 중학교 1학년 때 보냈다. 엄마얘기를 하며 성재는 터져 나오는 눈물을 연신 닦아 낸다.

요즘 들어 심각한 고민에 빠진 성재. 몇 달 후면 고3이 된다. 남들 다 다니는 학원 문턱에도 못가보고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전부인 성재지만, 그래도 공부는 제법 잘하는 축에 든다. 장래 희망이 간호사란다.


◇아빠를 보살펴줬던 원진산업재해자협회 봉사단원 박쌍순(사진 오른쪽) 씨와 어윤희(왼쪽) 씨가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네자 성재가 말없이 눈물을 훔쳐 내고 있다.

하지만 성재자매는 소년소녀가장 정부지원금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모님이 남기고 간 서울 홍제동 판자집이 이들 자매 앞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이집에서 나오는 사글세 10만원과 학교지원금 15만원으로 힘겨운 삶을 꾸려가고 있다.

"성진이에게는 제가 '엄마'나 다름이 없어요. 이제 고3이 되면 바쁠 테지만, 동생에게 불 꺼진 방만큼은 보여주지 않을래요."

열여덟 사춘기 소녀 성재. 이미 거친 세상을 이겨낼 만큼 당당하게 홀로서 있었다.

주소:서울 중랑구 면목3동 575-5 지층

후원계좌:신한은행 357-02-192895 (예금주 홍성재)

김철우 기자

시인 김홍성의 네팔사는 이야기



〈10〉 바람 앞에 일어선 말

룽다, 우주의 본질이나 진리 상징
히말라야 곳곳서 마음속 법음으로 펄럭

룽다는 티베트 불자들이 삿된 것을 물리치기 위해 사찰 주변이나 불탑, 혹은 동네 어귀나 마당에 세우는 깃발이다. 깃대는 보통 대나무를 사용하고, 기폭은 청 · 백 · 적 · 녹 · 황(靑 · 白 · 赤 · 綠 · 黃) 다섯 가지 색깔이 있다.

이 다섯 가지 색깔은 우주의 본질이나 구성 요소 또는 진리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사찰에서는 보통 색깔별로 다섯 룽다를 세우고 일반 가정에서는 다섯 가지 색깔의 작은 깃폭을 하나로 이어 매단다.

룽다의 기폭에는 힘찬 말(馬)의 형상과 경전이나 만트라를 목판으로 인쇄한다. 이는 룽다에게 삿된 것들을 물리치는 힘이 부여되어 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 온 세상 구석구석 퍼지라는 원력을 이룬다.

룽다라는 말의 〈룽〉은 티베트어로 바람(風)을 뜻하고 〈다〉는 말(馬)을 뜻한다. 영문 번역서에서 룽다를 Wind Horse 라고 직역했듯이, 룽다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은 마치 거센 바람 앞에 갈기를 휘날리며 일어선 성난 말 같다.

여러 해 전 봄, 네팔 동쪽에 인접한 소왕국 '씨킴'의 변방인 욕숨 마을에서는 향년 80세 노비구니의 시신을 운구하는 상여가 사찰 뒷산에 마련된 화장터로 가고 있었는데, 룽다가 이 행렬을 앞뒤에서 장엄하고 있었다.

씨킴의 불교도들은 시신을 입관할 때 가부좌로 관에 앉히는 풍습이 있어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진 목관은 우리의 그것처럼 장방형이 아니라 정방형에 가까웠다.

룽다는 목관 속에 가부좌한 노비구니의 시신이 불타는 동안에도 끊없이 펄럭이고 있었다. 룽다는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도 화장터에 남아 펄럭인다. 그래서 설산이 잘 보이는 능선의 화장터에는 깃발이 거의 닳아 없어졌거나 깃대만 남은 룽다들을 볼 수 있다.

그들 씨킴의 불자들은 룽다가 악귀나 병마 또는 재난을 물리치게 하는 영험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저승에 가는 혼령의 업장을 소멸시켜 극락왕생 도아 준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룽다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도 펄럭인다. 펄럭이며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부는 바람을 거른다. 탁한 바람을 맑게 하고, 거센 바람을 부드럽게 하며 찬 바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들리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룽다는 히말라야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법음(法音)으로 펄럭이고 있다.

2002학년도 후학기 대원불교대학 입학안내 직장인을 위한 야간대학

- 교계 최초로 1972년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법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 과정임(30년 전통 2000여 동문 졸업 및 500여 법사 배출) -

● 강의시간 2002년 8월 26일 개강 주 4일 출석(월화수목), 필수 : 5과목, 선택 : 2과목 강의(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옥(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김종욱(동국대)
● 불교의식실수 특별초빙교수 마일운스님(범패전승자)
● 교육과목 (※2년간 불교의식 실수 및 동·하계 수련회[2박 3일] 개최)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현대불교윤리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 선사상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원전강독 · 불교와 철학
	2학기(14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우리말불교의식

●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 - 출강 · 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불교학 통신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지
· 불교학 편입 00명	· 타불교 대학과정 졸업자(2학년 편입)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편입생에 한함)	- 편입생은 2학년과정으로 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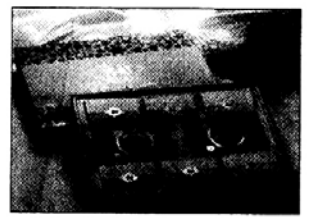
● 원서교부 및 접수 2002년 8월 31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수시모집)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성적우수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 大圓佛教大學 학장 혜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 754-1613, 773-9171, 776-7156 FAX : (02)756-7258
Homepage : www.idaewon.or.kr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괘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매당되는 증상에 (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그림 · 문병성

박영재 교수의

첨단 과학과 불교 ⑪

화장문화의 정착

납골묘 점증…매장 대체 과도적 제도

'화장후 산개' 불교식전통 도입 서둘때

현재 세계적의 과학 · 의학계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일환으로 인간의 장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형질전환 복제돼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2001년 3월 세계 최초로 '형광유전자(GFP)'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복제돼지가 탄생시켰다. 한국에서도 지난 8월 5일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형질전환 복제돼지 1마리를 출산하는데 성공했으나, 약 16시간만에 폐사했다.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비록 생존에는 실패했으나 형질전환에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인간에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질전환 돼지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첨단과학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다. 이때 고인(故人)의 시신 처리 문제는 가족 친지분들(우리 모두 해당)에게 매우 중요한 인간사의 하나이다. 한국의 경우 몇몇 지도층 인사들의 화장 이후 요즈음 화장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00년 기준으로 한국의 화장률은 33.7%로 90년대 중반 이후 매년 3%포인트씩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의 98.4%, 태국의 90%, 홍콩의 78.5%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한국토지행정학회가 2월20일부터 3월24일까지 전국의 성인남녀 1,187명을 대상으로 '장묘문화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부모님의 경우는 매장을 선호했으나, 자신의 장례 방식으로는 화장을 원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2.3%라고 한다. 화장 선호자들은 국토면적의 협소, 묘지확보의 어려움, 묘지관리의 어려움 등을, 매장 선호자들은 전통적인 관습, 화장시 두 번 죽는 느낌 등을 선택의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한편 현재 남한 면적은 9만9600㎢이며 이 가운데 1% 정도인 998㎢가 묘지로 덮여 있다. 묘지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배를 넘었고, 분묘수로는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2,100만기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이 가운데 40%가 버려진 무연고 분묘라고 한다. 아마 필자의 견해로는 요즈음 젊은 세대들이 묘에 묻히게 되면 '매장'을 통해 조상의 고마움을 가슴깊이 새기던 성묘 문화는 더더욱 변질될 것이리라 본다.

이제 불교계에서는 국민들의 헌재의 정서와 위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화장'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매장' 문화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일깨우며, 불교의 전통적인 '화장'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라 판단된다. 그런데 필자의 견해로는 특히 문제의 핵심은 자신은 화장을 선호하지만 부모님은 매장을 하겠다는데 있는 것 같다. 즉 화장을 선호하는 자신이 부모가 됐을 경우, 그 자식들이 또 자신의 부모는 매장을 하겠다고 할 경우 매장의 연결고리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필자의 경우 일찍이 '매장'의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고, 가톨릭 신자이신 부모님께서 필자에게 친구 분들이 어디에 묘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마다 필자(불효자)는 압력(?)의 뜻으로 새겨들으면서도 이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10여 년 전부터 부모님(현재 부친 83세, 모친 78세)께 조금씩 '화장'의 장점을 이해시켜드려 왔었다. 마침 몇 해전 선경그룹의 최종현 회장의 '화장' 기사와 경기도 장흥의 홍수로 인한 '분묘 2,000여기의 소실'에 관한 기사는 부모님의 마음을 '화장'으로 정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덧붙여 필자는 사실 납골묘 제도도 '매장' 문화를 바꾸기 위해 과도적으로는 필요할지 모르나, 자연환경을 적지 않게 훼손하며 납골당을 조성해야하기 때문에 궁극에 가서는 '화장' 후 산개(散開)하는 본래의 불교식 전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요즈음은 아내에게 내가 언제 죽더라도 반드시 '화장'을 한 다음, 즉시 재를 뿌리라는 유언을 틈만 나면 하고 있다.

끝으로 죽음과 관련되어 '무문관' 제47칙에 도솔종열(兜率從悅: 1044~1091) 선사가 설한 '도솔삼관(兜率三關)'이란 화두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행을 하는 것은 단지 견성을 하기 위함이니, 지금 그대의 성(性)은 어디에 있는가? 자성(自性)에 눈을 뜨면 곧 생사의 속박에서 자유로울 것이니, 죽을 때 어떻게 생사에서 벗어날 것인가? 생사를 해탈하면 곧 갈 곳을 알 것이니, 몸뚱이(사대四大: 오늘날로 하면 90여종의 원소)가 흩어질 때 그대는 어디로 갈 것인가?' 삼관이라고는 하나 따지고 보면 첫 번째 관문인 견성만 해결하면 나머지 관문은 자명하다. 자! 여러분! 이번 무더운 여름 동안 수련회를 다녀온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 기른 수행력을 바탕으로 48세란 매우 짧은 생을 살았던 종열 선사의 이 화두를 세밀히 살펴, '죽음'을 돌파하며 올바른 '화장'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해 보시지 않겠는가!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yjpark@ccs.sogang.ac.kr

이렇게 들었다

거듭되는 총리서리 자질시비

지도자의 자격

최근 총리서리에 임명됐던 장상 씨는 부동산 투기와 자식의 이중국적 등으로 총리인준을 거부당했다.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결과였다.

이번에는 장대환 총리서리지명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장 지명자는 전국 각지에 산재한 소유부동산으로 인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가 하면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까지 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니얼 퍼거슨 교수는 부도덕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갈취하는 CEO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위 계층 1%가 국부의 38%를 차지하는 등 부도덕한 CEO와 개인투자자간 신계급투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한때 부도덕한 방법 또는 불로소득으로 갑작스런 부를 쌓은 사람을 '졸부'라 불렀다. 부에 맞는 인격을 갖추지 못한 데 대한 비하적인 표현이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마저 졸부와 그리 달라보이지 않는다. 상위 1%를 제외한 나머지 99%의 무력감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기만을 빌 따름이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도 만족할 줄 몰라서 늘 남의 것을 침범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적이 많고 죽어서는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니건자경>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염치있게 사느라고 비록 고생을 겪을지언정, 정직과 의를 취해 청백하며 간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㉓

환상이 실상이다

항상 끊임없이 불안정되게 변화

꿈같고 환상 같은 이 육신에 집착하지 말라. 나이가 들면 바로 죽음으로 돌아간다. 해탈하려면 모름지기 선지식을 찾아야 한다. 무기력하게 습관을 따르며 쾌락만을 쫓지는 말라. 시간은 순간 순간 덧없이 흘러가며, 굵게는 지 · 수 · 화 · 풍에, 가늘게는 생 · 주 · 이 · 멸의 4가지 모양에 핍박받고 있다. 바로 지금 4종의 모양 없는 경계를 알아서 경계에 핍박 받지 않도록 하라. 무엇이 4종의 모양 없는 경계인가? 그대의 한 생각 마음의 의심이 땅이 되어 가로막고, 그대의 한 생각 마음의 좋아함이 물이 되어 빠뜨리며, 그대의 한 생각 마음의 성냄이 불이 되어 태우고, 그대의 한 생각 마음의 기쁨이 바람이 되어 휘몰아친다. 만약 이와 같이 분별해낼 수 있다면, 경계에게 굴림을 당하지 않고 곳곳에서 경계를 쓸 수 있어서, 동쪽에서 솟았다 서쪽으로 가라앉고 남쪽에서 솟았다 북쪽으로 가라앉으며, 가운데에서 솟았다 가장자리로 가라앉고 가장자리에서 솟았다 가운데로 가라앉으며, 물을 땅처럼 밟고 다니고 땅을 물처럼 밟고 다닌다. 왜 이러한가? 지 · 수 · 화 · 풍의 4대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것은, 항상 안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변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항상 안정되어 불변하는 것을 가리켜 실재니 실상이니 도니 법이니 진리니 유일자니 창조주니 본래면목이니 본성이니 자성이니 불성이니 본지풍광이니 부처니 조사니 하는 온갖 이름으로 부른다.

이름은 이렇게 다양하게 붙지만 안정되어 불변하는 이것은 사실 이름을 붙일 만한 그 무엇이 아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다른 무엇과 구별되는 그 무엇이어야 하는데, 불변하는 이것은 다른 무엇과 구별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모든 것이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제각각 다르지만 그 실속을 알고 보면 바로 불변하는 이것이다. 그러므로 삼라만상이 온갖 므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저 이것 하나일 뿐이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모습에 속아서 다양한 의식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진실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 온갖 다양한 모습이 모습 없는 이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함은 곧 다양하지 않음이요 다양하지 않음이 곧 다양함이며, 있음이 곧 없음이요 없음이 곧 있음이고, 모두가 곧 하나요 하나가 곧 모두이며, 변화가 곧 불변이요 불변이 곧 변화이고, 생사가 곧 불생불사요 불생불사가 곧 생사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습 있는 것만을 경험할 뿐이고 모습 없는 것은 알지 못한다. 그 까닭은 우리가 모습 있는 것만을 경험하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습 없는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컨대 차 한 잔을 마시는 경우를 살펴보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개 입안에 느껴지는 차의 맛이나 코에 느껴지는 차의 향기나 예쁜 찻잔의 모습일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경험하는 것은 모두 어떤 모습들이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들을 경험하는 그 움직임은 경험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경험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경험의 살아 있는 움직임 속에 바로 모양이 아니어서 변함없이 항상 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길이 있다. 그 움직임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을 뿐이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박사 선어록 강좌 안내
부산무심선원 매주 토요일 오후(2~5시), 수원 경기불교문화원 매달 1.3주 일요일 오후(1~4시) 문의 011-9520-0054(이정화)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방문객이 지켜야할 예절 Manners to be observed by visitors

Temples are places where monks and lay people live and practice. When we visit temple, there are a few points of etiquette which should be observed.

사찰은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거주하며 수행을 하는 곳이다. 사찰을 방문했을 때는 지켜야할 몇 가지 예절이 있다.

1. In temple neat clothes and appearance are required and do not run, but walk quietly.
2. If you want to stay overnight in temples you must get permission from the monk who is in charge of the temple office.
3. Do not take pictures inside the Buddha Hall without permission.

1 사찰에서는 정갈한 옷차림과 몸가짐이 필요하고, 뛰지 말고 조용히 걸어야 한다.

2 사찰에서 하룻밤 머물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사찰 업무를 맡고 있는 스님에게 허락을 얻어야 한다.

3. 법당 안에서는 허락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없다.

전국 육임(六壬)강의 안내

오행하는 사람이라면 **을 · 기 · 임(乙 · 奇 · 壬)**이란 말은 다 알고 있습니다. 天文(천문)은 太乙, 지리(地理)는 奇門, 인사(人事)는 六壬이라는 것이지요.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五術之中帝王**」이요, 「**神示**」라고도 합니다.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하락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한 육임가의 판단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도(道)를 이룬다고 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활인천역(活人天役)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방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 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입시 · 선거 · 구재 · 취직 · 승진 · 매매 · 임신 · 가출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육임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것입니다.
한국 육임학회에서는 이 좋은 육임을 전국적으로 개강(開講)시켜 방방곡곡에 계시는 **현인 · 기사 · 이인** 여러분에게 육임의 진수를 알려드리고자 전국 주요도시에 「**육임학당**」을 개설합니다.
아래 장소를 보시고 편리한 곳을 택하여 육임에 입문하십시오. **법력**과 **신명**과 **도력**에 있어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육임학당 「**효사숙**」 제3기 02-998-8683
육임학당 「**일경숙**」 제1기 02-2203-4805
육임학당 「**복경숙**」 제1기 02-3446-4118
육임학당 「**부산숙**」 제1기 011-883-8347
육임학당 「**대구숙**」 제1기 016-580-6654
육임학당 「**전주숙**」 제1기 011-650-8835
육임학당 「**수원숙**」 제1기 011-9189-9399
육임학당 「**인천숙**」 제1기 011-729-6011
육임학당 「**청주숙**」 제1기 011-492-2376
육임학당 「**광주숙**」 제1기 011-9606-7090
육임학당 「**원주숙**」 제1기 017-377-7005
육임학당 「**대전숙**」 제1기 016-445-4580
육임학당 「**시흥숙**」 제1기 011-326-8374
육임학당 「**제주숙**」 제1기 064-743-3703

■ 개강 : 2002년 9월 6일 금요일(효사숙 기준)
■ 시간 : 매주 1회 4시간(각 학당별로 일시가 정해짐) 13주 52시간
■ 교재 : 효사육임강의록
■ 비용 : 일백오십만원(효사육임강의록 포함) ■카드결제 됨.

한 국 육 임 학 회 육임학당 **효 사 숙**

■활인전문천역자용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W1,500,000(휴대용)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W1,300,000(좌정용)
●효사 육임강의록 W300,000
●효사 육임비디오 강의수강(총28개) W900,000
■각종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주문전화:02-993-8680 ▶부산지사:051-851-2349 ▶서울강남지사:02-2203-4805 ▶입금계좌: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목어

소금



러시아 우주 정거장 미르(Mir).

지금은 산산 조각이 난 채 태평양 한 가운데에 폐기되긴 했어도 아직 미르는 우주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우주선이다. 그 미르에서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 우주 비행사들이 방문했을 때 러시아 우주비행사들은 그들에게 암염과 빵 한 덩이를 선물로 주었다던가. 예부터 러시아에서 멀리서 온 귀한 손님에게 주던 선물풍습에 따른 것이었다고 들었다.

암염을 선물하는 풍습에는 손님과의 강한 연대감 형성을 위한 기원과 벽사의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은 동서양이 같은 것인지, 아랍 권에서도 손님과 함께 소금을 먹음으로써 연대감 형성이 된다고 믿었던 것 같다. 이것이 영어권에 가서 '소금을 함께 먹는다.'는 표현이 '식사 손님이 되다.'라는 이디엄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처님은 '일미(一味)의 법'으로 바닷물의 동일한 소금 맛에 비유, 평등을 가르치셨다. 소금, 함께하는 식사, 연대감 등 모두가 '일미의 법'과 어딘가에서 맥이 닿아있는 것 같다.

사실 소금만큼 종교적 심성과 깊은 연관을 갖는 식품도 없다. 요즘도 우리 주변 상가 등에서 나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이곳저곳 소금을 뿌리는 것을 보게 된다. 소금 뿌리는 것이 어디 한국에서만의 일일까. 구미 선진국에서도 왼쪽 어깨에 소금을 살짝 뿌려 소금의 힘으로 악령을 쫓는 풍습이 전해진다.

요즘 그 소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죽염 등, 소금을 굽거나 인공으로 가공한 '구운 소금'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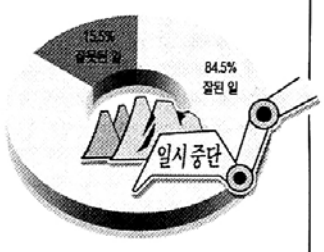
앞으로 과학적인 검증이 더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많다. 무엇이든 사람의 손을 많이 타면 탈수록 어딘가에서 문제점이 생기며 나빠진다는 점이다.

소금뿐만 아니라 자연을 변형시키는 모든 인공(人工)이 다 그렇고, 부처님 가르침에 무언가 덧칠하는 일도 그럴 것이다.

김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불자의 생각

북한산 관통도로



불자들은 북한산 관통도로와 관련, 불교계와 건설업체가 공사 일시중단 등을 합의한 것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일시중지 잘된일" 84.5%

271명이 동참한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조사 결과 229명(84.5%)이 이같이 응답했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2명(15.5%)에 불과했다.

향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199명(73.4%)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노선 재검토, 53명(19.6%)이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계속적인 감시, 18명(6.6%)이 정부의 중립적인 가치판단, 1명(0.4%)이 기타라고 응답했다. 김두식 기자

불자 세상보기

기부와 봉사…함께 '나눔의 미덕'을



이우상
소설가
대진대 교수

재물은 똥과 같은 것이다. 한곳에 있으면 썩어 냄새만 날 뿐이지만 들판에 널리 뿌리면 거름이 되어 초목을 풍성하게 키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돈맛 보며 사는 길이다. 〈증일아함경 참괴품〉에 담긴 내용의 일부이다.

'오늘밤에는 잠이 잘 올 것 같다'는 기사의 제목을 보고 무슨 양심선언이 있었나보다 라고 생각했다. 내용을 보니 팔순의 실향민 강태원 씨가 평생 모은 재산 2백70억원을 사회에 환원(KBS 사랑의 리퀘스트에 기증)하고 난 후 밝힌 소감이었다. 그는 작년에도 100억원 상당을 충북 청원군 꽃동네에 은밀히 기증했다. 이번에는 '나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공개했다고 한다.

막노동판에서 쉰 떡으로 주린 배를 채우는 등 50여 년 간 남들보다 덜 먹고 덜 입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이었다. 그만한 돈이면 아무리 작심하고 탕진을 한다고 해도 3대 아니 5대는 너끈히 세습될 수 있다. 그러나 부의 대물림은 자식들에게 독약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그의 지적이 얼음물을 정수리에 쏟아 붓는 것처럼 정신이 퀭하다. 그라고 해서 어찌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는가. 그의 거룩한 뜻을 받든 자녀들 또한 외경스러운 분들이다.

선배 P와 친구 S가 묻혀있던 기억에서 퍼더덕 살아난다. P는 지금 식물인간 상태이다. 야산과 잡초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의 부친이 갑자기 졸부가 되었다. 아들인 P는 가득 찬 떡시루 받듯이 아비가 던져주는 돈푸대를 덥석 받았다. 그날로부터 그는 직장을 버리고 돈 쓰는 일에만 몰두했다. 최고급승용차를 사고 고급 술집을 안방처럼 드나들고 무계획적인 해외여행 따위에 질주하는 그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다 교통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죽고 가해자인 자신은 척추가 망가지는 중상을 입었다. 지금은 아내도 없이 반지하 사글세방에서 근근이 숨만 쉬며 살고 있다. 돈푸대가, 멀쩡한 인간을 식물로 만드는데 10년도 안 걸렸다.

친구 S는 빌딩 몇 채를 유산으로 받았다. 그가 내게 내뱉는 탄식은 진실인 것 같다. "야, 정말이다. 내 고민이 뭔 줄 아냐? 아침에 해가 뜨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느냐 바로 이것이다, 이놈아!" 눈물을 찔끔 짜며 하는 말이 엄살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손을 씻었지만 마약에 손을 댔다가 철창신세도 졌다. 자기 소유의 빌딩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관리인 영감들과 100원짜리를 놓고 화투판을 벌이는 것이 유일한 낙이자 일이다. 번듯한 일거리가 없이 불평만 늘어놓는 그에게 친구들은 가까이 다가가길 꺼린다.

강태원 할아버지는 재물관리에 관한 한 '선지식'이다. 엄청난 재물이 자식들에게 가면 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상에 뿌리면 거름이 된다는 것도 깨달은 분이다. 물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진 분이다. 동물은 자신이 먹을 만큼만 사냥을 한다. 사자, 호랑이 같은 맹수도 배가 부르면 지나가는 먹이를 바라보기만할 뿐 해치지 않는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는 것이 무소유 정신이다.

기부와 봉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아름답게 회향하는 것, 이것은 국가의 몫이다. 간헐적으로 출몰하는 희생보다는 삶의 일부로 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와 명예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다. 나눔의 미덕이 야말로 첨단 자본주의 시대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지난 19일에는 황필상씨가 200억 상당의 재산을 아주대에 기증했다. 그는 기증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세상 사람들의 탐욕에 경종을 울렸다.

"재산이나 몸은 내 소유가 아니라 잠시 보관할 뿐이다."

인도 다람살라 탐방기 (下)

심장·혀 사리 남기고 환생한 깜툴 린포체

스님 170명 캄바까사원 무문관 수행
선지식 깔마바 린포체 친견 인상적

불교의 세계는 희유하다. 모르면 신통(神通)이고 알면 평상심(平常心)이다. 〈열반경〉에 '일체 중생 모두에게 불성(佛性)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 세상 영혼을 가진 모든 생명은 불가사의한 신비의 세계를 체험하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7월 30일, 따시종에 있는 카규파의 캄바까사원 무문관(無門關) 수행도량의 야외 동산에 잠시 모습을 나타내어 친견의 기연(奇緣)이 된 제9세 깜툴 린포체는 조용하고 단아하며 초롱초롱한 눈을 지니고 있었다.

"따시 델레"하고 인사는 했지만 대화는 없었다. 일행도 무언으로 감사드리며 공양을 올렸다. 헤어지는 순간, 깜툴 린포체는 의자에서 일어나 필자의 손을 꼭 잡고 무언의 인사를 나누고는 손을 흔들어 보이고 숲 속 너머로 모습을 감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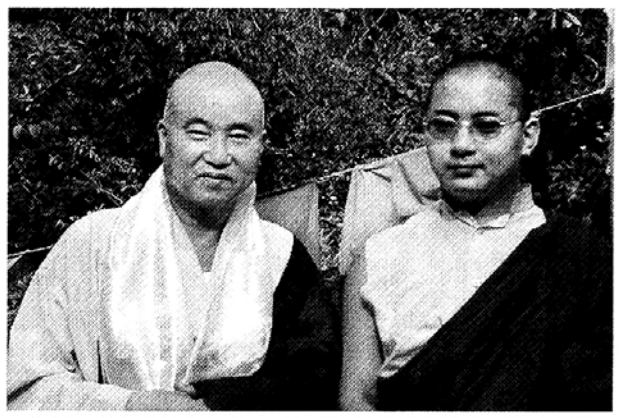
제8세 깜툴 린포체가 이 무문관에서 열반에 들어 다비했는데, 심장과 혀가 타지 않고 사리로 남아있어, 혀 사리는 법당 안에 탑으로 봉안하고 심장사리는 법당 옆 하얀 탑에 모셨다고 했다. 사리탑 옆에는 한 그루 보리수가 자라고 있어 참배하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신비에 젖어 들게 했다.

심장과 혀가 어떻게 화장을 해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사리가 되었을까? 모든 생명에 있어서 심장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며, 심장이 박동을 멈추면 죽는다. 우리의 몸에서도 힘차게 뛰고 있는 그 심장이 뜨거운 화염에도 타지 않았다는 것은 영원한 영혼의 생명이 깃들었던 영혼 불멸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또, 혀가 타지 않은 것은 진실된 말만 했다는, 부처님의 진리만을 설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나 하나만이, 내 가족만이 잘 살고 오래 살겠다며 탐욕에 찌들어 시기와 질투, 투쟁과 살상을 일삼으며 서로 죽이려고만 하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일깨우기 위한 상징적 방편이 아닐는지. 전신사리로 남겨진 육신보살도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8곡 4두의 사리가 나셨다니 종교적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믿으면 반드시 공덕이 되고 정신적 안정으로 영혼이 편안해 질 것이다.

이 캄바까 사원에는 170명의 스님들이 무문관에서 정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18년간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수행차제에 따라 나로바 6성취법을 한 단계 한 단계 스승의 점검을 받으며 승급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공(空)을 수련하여 돈오의 경계에 도달하는 수행을 한다고 한다. 이곳에서 수행하는 대중들의 생계는 전생 깜툴 린포체의 제자인 스위스인이 공양하고 있다. 깜툴 린포체는 규정에 의해 금생(今生)의 나이 20세를 지내야 관정법회와 설법을 하고 외부에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9세 깜툴 린포체도 21세가 된 이번 여름에야 스위스에 가서 전생의 제자들을 만나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리고 깜툴 린포체를 삼생(三生)째 모시며 캄바까 사원에서 수행하는 독땐 암틴은 처음 만났지만 친숙한 도반처럼 느껴져 세번씩이나 머리를 부딪치기도 했다. 금생의 나이 20세가 되기까지 이 절의 법석을 지키며 평생 삭발 한번 하지 않고 수행하고 있는 독땐 암틴과는 많은 시간 수행에 대한 토론을 나누는 등 소중한 만남의 인연이 되었다.



◇법산스님(왼쪽)이 7월30일 카규파의 캄바까 사원에서 제 9세 깜툴 린포체를 만나 기념촬영한 모습.

특히 이 사원에서는 무문관 수행법의 전통 외에도 밀교의 창시자 파드마삼바바가 창안한 수행의례의 하나인 '참 댄스'라는 라마들의 무용이 전수되고 있다. 깜툴 린포체를 모시고 매년 4월에 한번씩 축제가 열어 '참 댄스'를 선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 사원에는 50명의 어린 라마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시설이라 할 것도 없이 빈약한 공간이지만 그들의 밝은 표정에서 티베트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들에게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대회를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잘 안다고 하며 매우 재밌어 하는 표정이었다. 필자는 교실 구석에 있는 물렁물렁해진 공을 보고 새 축구공을 보내주겠다고 약속 했다.

이번 다람살라 달라이 라마 친견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은 금생 나이 17살로, 17번째 환생한 깔마바 린포체다. 그는 2년 전 티베트에서 넘어와 임시로 겔룩파 링 린포체의 규메사원에 머물고 있다. 1시간여 동안 수행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의 두 눈동자에서 비치는 시선은 마치 아침 햇살처럼 밝게 빛났다. 참으로 소중한 선지식의 친견이었다.

이번 다람살라 탐방을 통해 잠시 티베트 불교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달라이 라마의 소탈한 모습, 깔마바와 깜툴 린포체에게서 느껴진 천년의 적정(寂靜)과 광명, 엄격한 수행차제와 교학체계, 그리고 고국을 떠난 망명의 설움에도 굴하지 않고 면면히 수행을 이어가는 모습…. 앞으로의 수행에 큰 견인차가 되는 기연(奇緣)이 되었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신선한 충격을 준 이번 탐방은 나태한 내 자신에 채찍과 회초리가 되었다.

법 산 (동국대 정각원장)

불자님들이 꼭 읽어야 할 불교 신행의 지침서

신간



불행을 행복으로, 장애를 향상의 기회로, 고난을 해탈의 원동력으로 바꾸어 주는

보왕삼매론 강의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김현준 著
신국판 / 240쪽 / 값 5,000원

불자들이 즐겨 독송하는 「보왕삼매론」은 병고해탈, 고난퇴치, 마음공부와 마장극복, 일의 성취, 참사랑의 원리, 인연 다스리기, 공덕 쌓는 법, 이익과 부귀, 억울함의 승화 등 누구나 인생살이에서 겪게 되는 장애들을 속시원하게 뚫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삶의 장애 요인들을 원리에 입각하여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불행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절한 일화들을 많이 삽입하여 누구나 편안하고 감동있게 읽을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이제 『보왕삼매론 강의』를 통하여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지혜를 터득하시고, 복덕과 향상의 길로 한발 한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성
1 장 : 병고를 양약으로 삼아
2 장 : 고난은 해탈의 원동력
3 장 : 마음공부와 장애
4 장 : 수행인의 서원과 마(魔)
5 장 : 일은 업 따라 이루다
6 장 : 서로를 살리는 정을 나누며
7 장 : 인간관계 속의 수행
8 장 : 베풀되 보답을 바람이 없이
9 장 : 참된 자기 이익의 길
10장 : 억울함을 향상의 기회로
11장 : 막힌 데서 통한다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엮은 오분향 예불문의 해설서.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사물(事物), 석등, 탑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7,000원

육바라밀 수행법
특별한 수행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의 성불을 보장하는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반야의 여섯 가지 바라밀에 대해 그 정신과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쉽고도 재미있게 서술하였습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 주는 관세음보살! 이 책은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관음기도법, 관음관법 등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관음신앙의 길잡이요, 관세음보살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바라는 분들의 필독서 입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천수경 천수신앙

불자라면 누구나 독송하는 천수경에 대한 강설집. 경에 숨겨져 있는 참뜻, '천수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준제진언, 여래 십대발원문까지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혜국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시작하는 마음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 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 누구나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7,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해 놓았다. 이 책을 읽다보면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자경문(自警文)》은 야운스님이 자기를 돌아보고 깨우쳐 가는 속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발현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것이다. 구구절절 게으름과 방종을 막는 따끔한 말씀으로 빛을 돌이켜 스스로를 비춰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불교신행의 주춧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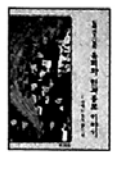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하는가?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우룡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의 마지막 법문집. 불자의 근본 마음가짐에서부터 불교의 4대수행법인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에 대해 자세히 설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

부드럽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의 대표법문집. 고된 삶 속에서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맑고 주옥 같은 법문으로 행복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한국불교 세계 알리는데 힘쓸 것"

세계 최대 불교출판사 사무엘 버콜즈 사장 내한

포교사 대상 특별강연 · 월정사 등 사찰 방문



◇21일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왼쪽)을 만나 뉴욕 한미불교문화원 설립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버콜즈 씨. 사진= 남동우 기자

"강원도 상원사와 월정사 선방에서 안거에 든 스님들의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 수정처럼 맑은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대의 불교전문 출판사로서 세계적 불교 붐의 진원지중 하나인 샴발라(Shambhala) 출판사의 사무엘 버콜즈(Samuel Bercholz, 55) 사장. 21일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불교의 첫 인상을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서 불교 포교에 애쓰느라 수고가 많다는 도영 스님의 말에 버콜즈 사장은 "불자로서 당연히 해야할 작은 봉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개신교와 불교를 비교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서양 사회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주 현대불교' (대표 김형근) 주선으로 방한, 강연과 사찰 순례 등 열흘간의 일정으로 16일 내한한 버콜주 사장은 내한 이틀 뒤인 18일 샴발라센터 한국분원 주최로 서울 정신세계원에서 특강한데 이어, 19~20일 월정사와 상원사, 낙산사 등 사찰을 방문했다. 21일 조계종 도영 포교원장을 예방하고 국제포교사들을 상대로 특별 강연을 했으며, 22~26일에는 영호남과 충청지역 사찰을 둘러봤다.

서구사회에 처음으로 티베트 불교를 전한 트룽파(Trungpa) 린포체의 지도로 불교에 본격 입문한 그는 티베트 카규, 닝마파의 법사로서 북미와 유럽에서 불교를 가르치고 있다.

버콜즈 사장은 1969년 설립한 샴발라 출판사 이외에도 서구 최초의 불교대학인 나로파대학의 이사를 맡고 있으며, 노인전문 불교봉사기관인 다나 홈케어의 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저서로 〈Entering the stream(불교개론, 공저)〉이 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수익 불서번역 · 연구비 재투자"

사무엘 버콜즈 사장과 일문일답

샴발라국제센터 세계 200여곳에 지부
美 불교수련원서 수행 · 수계 … 법명 혜월



◆샴발라출판사 성공 비결은.

"성공이란 상대적 개념이다. 창립 이후 25년간은 고생도 많이 했다. 비결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들의 눈과 귀가 되려고 노력한 점일 것이다. 그동안 펴낸 수천여권의 책중 불서가 절반 이상이었다. 각종 동양학 및 종교 관련서와 채식 요리서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불서 번역 및 연구비로 재투자했다."

◆'샴발라(Shambhala)'의 뜻은.

'샴발라는 중앙아시아에 있던 전설적인 불교왕국이다. 모든 사람들이 세속의 직업을 버리지 않고도 성불할 수 있다는 전통을 갖고 있다."

◆샴발라 국제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스승인 트룽파 린포체(서구에 맨 먼저 불교를 전한 스님 중 한 명)가 설립한 샴발라국제센터는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200여 지부를 갖고 있다 나는 이 단체의 교사(Teacher)로서, 격월간 계간지인 〈샴발라 선〉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티베트 불교의 서구 전파가 성공한 이유는.

"많은 스승들이 마음을 열고 가슴과 가슴으로 가르침을 전한 것이 가장 주요했다. 중국의 티베트 침공으로 갈 곳이 없어진 티베트 스님들은 영어를 배우며, 서구인들의 근기에 맞춰 불법을 전했다."

◆한국 사찰을 둘러본 소감은.

"상원사 선방에서 정진중인 두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불법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있는 한국 수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려깊은 대화와 유머 감각을 통해 스님들의 수행력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과 티베트 불교의 차이점은.

"티베트 불교는 각 유파의 특성이 잘 보전되면서 공존하고 있는 반면, 한국 불교는 통불교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두 전통 모두 수행과 믿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매우 많다. 한국의 간화선 수행과 티베트의 마하무드라적 선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불교의 세계화 전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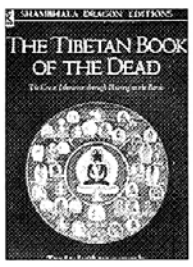
"한국불교 세계화는 서경보 스님과 승산 스님이 지극히 겸허한 마음으로 한국 선의 정수를 전한 포교사례를 볼 때 가능하다고 본다."

◆서경보 스님과의 인연은.

"1967년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북미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인 불교수련원(The Buddhist Lecture Hall)에서 공부할 때, 서경보 스님을 만나 한국선의 전통을 접했다. 이후 혜월(慧月)이란 법명으로 보살계를 받았으며, 육조혜능 선사의 선종을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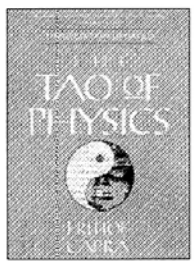
◆미국내 한미불교문화원 설립을 지원하는 이유는.

"오랜 친구인 미주 현대불교 김형근 사장의 포교원력을 돕고 싶었다. 미국에 영향력이 큰 일본 선불교의 경우, 선(Zen)과 관련된 서예, 미술, 공연 등을 통해 선불교의 이미지를 보편화시켰다. 문화원과 한국 불자들의 활동을 지원해 한국 전통선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싶다."



▶티베트 사자의 서(The tibetan Book of the Dead)

1927년 에반스 웬츠에 의해 영역된 이후 티베트 불교가 서구의 관심을 끌게 한 최초의 책. 죽음이후의 49일간의 중음(中陰) 상태와 윤회 과정에 대한 원리와 수행법을 다룬 경전이다. 트룽파 린포체의 주석을 첨부해 1975년 재출간됐다.



▶물리학의 도(The Tao of Physics)

동양의 종교와 서구의 과학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들여다 본 신과학운동의 고전. 프리죠프 카프라가 동양의 신비주의와 과학적 연구성과가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놀라운 책. 1975년 펴냄.



▶행선(Mediation in Action)

티베트 불교를 처음 영국으로 전한 트룽파 린포체의 가르침. 티베트 불교의 명상법을 통해 일상 속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재가불교의 수행법을 제시했다. 1969년 샴발라 전통을 서구에 알린 최초의 책.

샴발라 출판사의 대표적 불서들

▶타사자라 브레드 북(Tassajaja Bread Book)

일본 선불교의 관점에서 쓴 요리 책으로 일명 '빵 굽기의 성전'으로 불린다. 사랑과 관심, 명상으로 빵을 구울 때 가장 빵 맛이 좋듯이 선은 가장 일상적임을 가르친다. 에드워드 에스페 브라운이 1970년 출간이후 채식 요리의 고전이 됐다.

▶벽암록(Blue Cliff Record)

12세기 중국 선종의 화두와 선문답을 소개한 책으로 화두선을 서구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토마스 클리어리가 그의 동생과 함께 번역, 1977년 출간했다.



http://www.sunjaeavatar.com

당신의 신념이 바뀌면
당신의 경험이 바뀐다

당신은 행그린 일을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원하게 웃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폐당을 원합니까? 옳고 옷는일은 누가만듭니까?
당신은 영미트지 자기 뜻대로의 영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치않는 신념은 지우고 원하는 신념을 창조하여 변화된 삶을 만드십시요.
당신의 신념이 바뀌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바타 코스는 당신을 뜻대로 사는 길로 안내합니다.

선재아바타 센터 ☎ 02-362-3647 ☎ 018-206-3647 E-mail avatarsunjae@yahoo.co.kr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4-1 북아현맨션 2동 502호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36. 연담과 묵암의 심성논쟁

1785년 10월 지리산 천은사의 상선암에서 조선불교계의 대학승, 연담유일(蓮潭有一, 1720~1790)의 제자들인 화일(華日), 경현(敬賢)등은 논쟁을 끊기위한 것이라는 명분하에 스승 연담유일과 동시대의 대학승 묵암최눌(默庵最訥, 1717~1790)이, 심성(心性)이라는 논제로 주고받은 왕복서간을 불태워버리고 만다. 작은 분서갱유라고할 수 있는 이 심성론 소각사건은 속악한 우열 논쟁으로 치달리기 쉬운 사람들의 알팍한 생각을 보여주는 오랜 악습이기도 하지만 맹동주의자들의 실수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며 조선후기 불교학의 진수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망실하게 된 안타까운 일이다. 연담유일과 묵암최눌은 서로 시문을 주고 받을 정도로 친숙한 도반으로서 동문수학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간의 심성에 관한 두 분의 관점은 서로 달라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던 것이다. 1775년 가을 송광사 감로암에서 이루어진 이 대론의 요지는 〈심성론(心性論)〉 3권으로 정리되고 연담유일 스스로 〈심성론서〉를 쓰고 있다. 이 소각사건을 두고 정작 대론의 당사자인 묵암최눌은 "십년동안 쌓아올린 공을 생각하니 가히 애석할 뿐이다(十年收集之功 思之可惜)"이라고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현재 심성론은 남아있지 않고 연담유일의 〈임하록〉에 수록된 〈심성론서(心性論序)〉만이 남아 그 대론의 면모를 알리고 있을 뿐이다.

두 스님의 서로 다른 심성론 화엄교가 논쟁으로 큰 의미

여기서 필자 나름대로 〈심성론서〉와 〈임하록〉에 보이는 단편적인 기사들을 통해 본 심성논쟁의 요지를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묵암은 "여러 부처님과 중생들의 마음은 각각 원만하여 일이라고 할 수 없다(諸佛衆生之心 各各圓滿 未曾一箇者)"라고 주장하고 게송으로 "나는 지금 뜻대로 홀로 돌아가나니 남들이 걷는 곳으로는 따라가지 않으리라(我今任獨歸 勿行行處去)"라고 자신의 견해를 증성(證成)한다. 이에 비해서 연담유일은 "여러 부처님과 중생들의 마음이 각각 원만하여 원래 일개이다(各各圓滿者 元是一箇者)"라고 주장하고 "앞서 가신 성현의 학설이 모두 같으니 후생으로서 누가 감히 어길까?(先聖皆同說 厚生孰敢違)"라는 게송으로 자신의 견해를 천명하고 있다. 즉 두 스님 모두 심성의 자족적 완결을 의미하는 원만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묵암스님은 일심(一心)을 약기(約機)를 주안으로한 득법분재(得法分齊)의 연기론(緣起論)으로 파악하고 있고 연담스님은 일심을 약법(約法)을 주안으로한 성비중덕(性備衆德)의 성기론(性起論)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 스님의 대론 주제였던 일심사상은 대승불교의 층위(層位)가 높은 교학이 집약된 상징적인 주제이다. 즉 대승불교의 일심사상은 유식(唯識)의 아뢰야식연기론과 화엄의 유심론적 교리, 기신론의 여래장사상에서 정교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바로 마음의 사상이 대승불교생성의 이념적 핵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다시 말한다면 선(禪)과 교(敎) 양자 모두 이 심성의 깨달음을 통해서 불교의 자명한 명제들, 즉 대승적 행(行)의 관념, 자비의 원리, 발보리심의 원리, 보살의 행위들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연담스님 자신이 그토록 정통했던 화엄경이 설하고 있는 불교이해 또는 체험이란 먼저 세계와 인간에 대한 붓다의 직관을 체험하고자 정진하는 것이며, 그 직관을 생의 중심에 투영시킨 체험을 실존적인 전제로 투입함으로서 주체적인 불교의 실천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그 붓다 화엄의 깨달음, 그 근본적 세계관을 사상과 운동의 동력으로 가지면서도 동시에 보살도의 실천이라는 새로운 전제를 투입하려면 반드시 심성의 문제가 검토되고 체험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연담유일과 묵암최눌 두 화엄종장의 심성대론은 백파긍선(白坡亘璇)의 〈선문수경(禪文手鏡)〉으로 촉발된 조선후기 선학논쟁과 비견할만한 화엄교가의 논쟁으로 실로 큰 의미가 있다. 때문에 이능화는 〈조선불교통사〉에서 "조선선문의 심성설에 관한 변쟁은 진실로 묵암과 연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朝鮮禪門心性說之辯爭 固已肇始於默庵與蓮潭之時)"라고 쓰고 있는 것이다.

경학회 회주

필자의 갑작스런 입적으로 연재를 중단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 제18기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 과정 모집 ▶

본 협회에서는 각 사찰의 어린이, 학생, 청년회 지도자들은 물론 각 신행 단체의 지도자들을 위해 매년 전 · 후반기로 나누어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 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들로 새롭게 짜여진 이번 제18기 강좌는 어린이, 청소년 교화에 자신감 고취는 물론 생활의 즐거움이 2배로, 불교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 기　　간 : 불기 2546년 9월 16일 ~ 11월 24일 (중합실습 포함 총 72시간)
- ▣ 강의시간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오후 7시 ~ 10시 (토요특강 2회 오후 3시 ~ 9시)
-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계사 건너편)
- ▣ 대　　상 :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불자 (선착순 30명)
- ▣ 강좌내용 : 이　　론 – 레크리에이션개론, 스피치법, 모임진행법, 프로그램작성법
  교리부문 – 불교지도자론, 레크리에이션포교론, 포교방법론
  댄스부문 – 포크댄스, 레크리에이션댄스, 스포츠댄스
  음악부문 – 노래 지도법, 율동 지도법, 찬불가
  생활부문 – 만들기, 종이접기, 풍선데코레이션
  게임부문 – 실내 · 실외게임, 전래놀이
  야외활동 – 캠프, 오리엔티어링, 야외장비사용법
- ▣ 참 가 비 : 350,000원 (교재, 재료비, 실습비 포함 – 분납 2회 가능)
- ▣ 온라인접수 : 국민은행 006-01-0801-770 / 농협 053-02-177171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김재성)
- ▣ 문　　의 : ☎ 02-738-7860 본회 사무국(다음카페 – http://cafe.daum.net/burec)

※ 특　전 – 수요강좌 무료수강(강의 기간 내) – 교계 이벤트 참여 기회 제공
– 2급 지도자 고시 응시자격 부여 (과정 60시간 이상 이수자)

대한불교조계종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禪 心理治療의 科學的 接近

雜阿含經에 "탐욕을 떠나 마음이 해탈하면, 그는 능히 生 · 老 · 病 · 死의 두려움을 벗어나게 되느니라"고 하였다. 마음의 안정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모든 활동의 기초인데, 특히 肯定的 思考의 중요성 및 參禪의 절대적 가치는 현 시점에서 새삼게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인지되어 오고 있다.

우리는 흔히 六識을 통해 느끼는 외부의 자극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든 이것은 단순한 抽象的인 思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뇌가 활동하고 판단하는 사고의 결과들은 모두 물질화 되어 화학반응을 일으킨다. 즉, 단순한 생각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실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며, 기억 핵산인 디옥시리보핵산(DNA : Deoxyri- bonucleic Acid)이 감응하고 리보핵산(RNA : Ribonucleic Acid)을 합성하게 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때와 부정적으로 사고할 때의 단백질 분해방법은 서로 다르다.

한편 楞嚴阿含經에도 "사람 몸은 부모의 정기를 받아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DNA 즉 개체발생을 일으키는 유전인자는 부모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행위는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佛教的 관점에서는 선체적인 유전은 부모로부터 받는 것은 물론이며, 또 다른 측면은 과거 자신의 행위가 유전인자로 된 業識의 영향이라고 보는 것이다. 業의 잠복상태가 種子化 되어 아뢰야식에 이식되면, 이 업의 영향으로 생전의 행위에 적합한 생명체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부모에게 잉태되고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것이 자신이 만든 業緣으로 인해 유전 제승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이런 까닭에 世尊께서는 각자 개인의 사고와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로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간이 최고의 경지인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개달음을 향한 각자의 의지를 강조하셨음을 다시금 인지해야할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다

1) 肯定的 思考

스트레스를 받아도 긍정적인 사고 즉 플러스 발상과 禪 修行으로 깊은 명상에 도달하면 인체는 호메오스타시스(homeostasis/ 항상성, 생체 항상 상태)라는 메커니즘이 작용을 받아서 호르몬의 일종인 腦內 모르핀 을 분비시키며, 그와 동시에 뇌파가 α波(14~30Hz) 상태에서 미들 α波(10 Hz, 우뇌에서 방출됨) 상태로 다시 θ波(4~7Hz)로 파장이 감소되면서 시상과 시상하부 사이에 있는 뿌리비 동굴(W 에스테스)에서 念波가 증가되고, 이 상태에서는 意識世界와 潛在意識世界가 하나로 통합되어 긍정적인 사고와 득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신통력이나 초능력이 발휘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 뇌 가운데서 가장 진화된 전두엽합아(前頭連合野)가 활성화된다. 전두엽합아가 자극을 받아 '腦內 모르핀'이 분비될 경우에는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네가티브 피드백(negative feedback/ 한쪽이 많아지면 그것을 억제하는 현상)이 작용하지 않고, 이때 '腦內 모르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쾌감을 주는 물질인 β-엔돌핀 등 도파민 호르몬(각성제인 Amphetamine, 메탄 페타민, 티로신 등과 유사분자구조를 갖고 있는 패락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통증이 소멸되고 쾌감을 느끼게 하며, 항암시장벽(抗癌示障壁)도 허물어지며 의식이 억제되고 潛在意識과의 교류가 활발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禪 修行을 통하여 추 번뇌(추 煩惱)가 끊어지고, 세 번뇌(細 煩惱)도 거의 끊어진 상태 즉 禪 心理治療가 완성된 깨달음의 경지인 二昧에 가깝게 도달하게 된 상태라 말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腦內 모르핀'의 효능이 밝혀짐에 따라 인간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인간의 마음은 뇌 안의 뇌간과 대뇌변연계 그리고 대뇌신피질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마음을 관장하는 이 뇌에는 에이 텐(A10)이라는 신경이 들어 있다고 하며, 미국 L.A. 사이몬트 암연구센터에서는 침선과 조식을 활용하는 심리치료를 응용하고 있다.

2) 否定的 思考

반면에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경우를 佛教에서는 집착에 의한 욕망과 그것을 향해 가는 행위 등으로 인간이 윤회에 매여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요소라고 하였다. 신기하게도 현대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사고는 β-엔돌핀이나 부신피질 호르몬을 전혀 다른 물질로 변화시킨다 즉,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이 바로 그것인데, 이 물질 자체도 독성물질이지만 이 물질로 인해 더욱 강한 독성물질인 활성산소(O2H2NO2 : 活性酸素)가 발생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부정적 사고가 異常心理를 형성하는데,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어원은 한스 셀리에(Hans Selye)의 생활 스트레스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불교에서는 무명업인에 의한 근본번뇌를 스트레스라고 한다.

② 노이로제(신경증)

노이로제는 스코틀랜드의 컬렌(cullen)이라는 의사가 1776년부터 사용하였는데, 그는 유기적 원인이 발견될 수 없었던 모든 신경병에 적용했으며, 현재까지 병리학적 기관조사결과가 따르지 않는 신경병에 대한 집합개념으로써 사용되고 있다.

③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1911년에 Bleulen. E.가 소개하였다. 흔히 정신병(psychosis)으로 알려진 장애인데, 다른 어느 정신장애보다도 가장 심한 장애로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도록 황폐화시키는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다

禪 修行의 목적이 科學的으로는 腦皮質 皮波상태에서 미들 α波상태나 θ波로 만드는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參禪의 상태는 전5식과 제6의식의 활동이 정지되고, 거꾸로 이제까지 無意識으로서 억압당하고 있던 제7말나식과 제8아뢰야식까지도 전면으로 올라오게 하여 카르마의 心理治療까지도 감당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선심리치료연구원 Tel : 02)738-1275/02)326-0248

시방세계

현대불교

인터넷 타켓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M 89.9 MHz
BBS 불교부산방송

제 384 호 서기 2002년 8월 28일 수요일







◇통도사에서 신경수 · 양대응스님에게 학춤을 전수받은 김덕명옹.사찰에서 스님들이 춤 때는 흰 장삼에 홍가사를 수했으나 민간으로 나오면서 복색이 갓과 도포로 변했다.

◇학의 날개짓 등 기본 동작을 응용한 80여가지 춤사위로 불교적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양산사찰학춤은 중생교화의 방편인 동시에 부처님의 공덕 찬탄, 국가의 태평성대를 기원했다.

◇1천여년이 넘게 통도사에서 전승되어 왔던 사찰학춤은 정화 이후 사찰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김덕명옹과 백성스님(사진)등에 의해 맥이 이어지고 있다.

무애행·깨달음 표현…양산 사찰학춤

통도사 중심 전승…김덕명옹 명맥유지

다양한 춤사위로 부처님 찬탄 ·중생교화

"현재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돼 있는 동래학춤보다도 춤사위가 30여 가지나 더 많더군요. 그래서 춤을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더니 양산 통도사에서 스님들이 추던 춤이라고 해요."

동래야류, 지신밟기 등 민속예술의 무대화에 주력하며 연출가로 활동해왔던 서박사가 김덕명씨가 보여준 양산사찰학춤의 예술적 가치를 놓칠 리가 없었다. 전공 논문 준비 까지 제쳐두고 곧바로 그 춤에 관한 계보 조사와 무보 작성,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영원히 역사속에 묻혀버릴 뻔 했던 양산사찰학춤은 이렇게 해서 세상 빛을 보게 되었다.

1년 뒤인 1976년, 서국영박사는 양산사찰학춤 조사보고서를 펴냈다. 양산사찰학춤은 신라 선덕여왕 15년(646년) 자장율사에 의해 통도사가 창건된 이래 대재(大齋) 등 사찰의 큰 행사 때 꼭 열렸던 의례였다. 즉 승무와 학춤이 대대로 계승되어 왔다. 보고서는 명무승려(名舞僧侶)로 유명했던 신경수 스님의 말을 전해들은 김말복(보광중 교장, 통도사 주지 역임) 스님의 증언을 기초로 작성됐다. 김말복 스님에 의해 철종시대까지의, 춤을 추었던 스님들의 계보는 남아있지 않으나, 고종시대인 1880년대부터는 이월호, 김설감, 신경수, 양대응 스님 등으로 승무와 학춤이 계승되어 내려왔다고 고증이 되었다.

실제로 양산 통도사 경내에서나 사하촌인 신평리에서 스님들에 의해 학춤이 추어졌던 사실이 당시 통도사에서 지냈거나 통도사 인근에 살았던 이들의 증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1930년을 전후해 승려로 있었던 김상도씨나 1938년부터 통도사 강원에서 공부했다는 윤장우씨, 신평리에서 나고 자라 하북면 면장을 지낸 지명구씨 등은 모두, 통도사 스님들이 학춤을 추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한다. 특히 1920년경 통도사에서 수행했던 용명스님(97)은 "20년경 금강산에서 통도사로 왔는데, 봄에 열렸던 계회(契會, 수계산림법회)가 끝난 후 신경수 스님이 대웅전 앞마당에서 흰 장삼에 홍가사를 수하고 학춤을 추는 것을 보았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처럼 사찰에서 스님들에 의해 추어졌던 학춤은 사찰계와 민간계의 학춤 계보로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흘러나왔다.

그러나 중생교화의 한 방편으로 통도사를 중심으로 전승되어오던 학춤은 비구 대처 분쟁시기인 정화를 거치며 통도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됐다. 그나마 사찰계와 민간계를 통틀어 유일한 생존자인 김덕명옹(현 79세)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각종 전통무에 능한 김옹은 현재 '한량무' 인간문화재로 되어 있다. 김덕명옹은 8살 어린 나이에 범어사로 갔다가 다시 통도사에 입산, 신경수 스님과 양대응 스님으로부터 학춤을 전수받았다. 김옹은 9월 5일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6일과 7일에는 호암아트홀에서 양산사찰학춤을 공연한다.

"내가 학인가, 학이 나인가 경계를 모르겠다. 추다보면 어느새 내가 학이 되어 있더라"는 김옹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사찰학춤의 가장 큰 특징은 학의 동작을 모방한 모방무에서 한 걸음 나아가 마음의 세계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몸과 마음의 합일(合一)로 이루어내는 세상, 그것이야말로 사찰학춤이 구현하고자 하는 세상이다. 스님들이 가사 장삼을 입은 채로 장삼자락을 휘날리며 너울너울 추었던 학춤은, 현상과 인간계를 넘나 들 수 있는 새인 학의 몸짓으로 깨달음의 세계, 선(禪)의 세계를 중생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교화 방편이었다. 날개짓, 다리놀림, 고개짓 등 24가지 학의 기본동작을 섬세하게 표현한 양산사찰학춤은 기본 동작을 응용한 80여 가지의 다양한 춤사위로 무애행(無碍行)과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공덕 찬탄, 국가와 백성의 태평성대 기원 등을 표현해 내고 있다.

서국영박사는 "양산사찰학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동래학춤은 무형문화재(부산시 제3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오래되고 예술적 가치도 높은 양산사찰학춤의 문화재 지정이 여러 차례 보류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학계, 문화계 등 뜻있는 전문가들의 올바른 판단으로 하루속히 문화재로 지정, 계승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산사찰학춤의 문화재적 · 예술적 가치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최근 신기남 의원 등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양산사찰학춤을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문화재청에 보냈다. 양산시와 시 의회도 조만간 경남도에 건의문을 보내기로 하고 관련자료를 준비중이다. 또 양산사찰학춤을 보존해야 한다는데 공감한 문화 예술인들이 모여 '보존회'를 결성하고 보존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불교문화의 정수이면서도 사찰에서는 자취를 감춘 양산학춤. 부처님도량에서 훨훨 선의 경지를 펴보이며 대중들에게 환희심을 줄 그날은 언제일까.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팔순을 바라보는 노령에도 양산사찰학춤을 알리는 일과 후학 양성에 열심인 김덕명옹이 제자에게 춤사위를 전수하는 모습.

정화이후 사찰서 자취감춰
김옹, 9월5~7일 서울 공연
"무형문화재 지정해야" 여론
영향받은 동래학춤 이미 지정



◇최근 양산사찰학춤의 탁월한 문화재적 예술성을 인정해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산사찰학춤을 사랑하는 문화인들이 모여 보존회를 결성하고 양산문화원에 사무실을 개원, 현판식을 가졌다.

"학춤 사찰문화로 정립"

복원에 힘쏟는 백성스님

"학(鶴)은 저의 화두입니다. 학과 학춤 연구는 물론 학춤을 새로운 사찰문화로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사찰학춤의 학문적 연구와 함께 사찰학춤의 사찰계 복원에 힘을 쏟고 있는 백성스님(울산 금선불원 주지)은 '학에 미쳤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연구를 요약했다. 양산사찰학춤 보존과 계승에 평생을 받쳐온 학산 김덕명옹의 아들인 백성 스님은 어릴적부터 아버지 김옹의 춤을 보며 자연스럽게 학춤과 접했고 현재 스님으로는 유일하게 학춤을 추고 있다. 학춤 연구를 위해 동국대 불교무용과에 입학, 4학년에 재학중인 스님은 "사찰에서 스님들에 의해 추어졌던 학춤과 불교와의 연관성을 밝혀내어 사찰학춤을 새로운 불교문화로 정착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중생을 교화하고 스스로에게는 수행의 방편이 되었던 것이 사찰학춤"이라고 정의한 스님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찰학춤의 보존을 위한 외길을 걸어온 양산사찰학춤 예능보유자인 아버지의 삶에 감사하다"고 고마워했다.



스님중 유일한 기능자

'학춤전승계보' 등 연구

'울산학춤연구' '한국전통학춤의 전승계보에 관한 사적 고찰' '사찰학춤과 궁중학무 비교연구' 등의 논문을 발표했는가 하면 여러차례 사찰에서 학춤을 선보인 스님은 "사찰학춤의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사찰 학춤을 승려들에게 전승, 불교예술로 승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납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㊵ 여래수량품 제16

진리의 나타남

이 '16장 여래수량품'에서 부처님께서는 구도자 마이트레야('彌勒')를 비롯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들은 극히 깊고 오묘한 여래의 본체('秘密')와 자유자재('神通')한 능력('力')을 들어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이란 생신(生身)의 석가모니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구원실성(久遠實成)의 부처님, 다시 말해 이름 붙일 수 없고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는('名不得 相不得') 진리를 임시로 이름지어 부처님이라 한 것이다(그러므로 부처님이라는 말도 가명(假名), 즉 일시적인 이름이다. 왜냐하면 부처님도 실체가 없는 공성(空性), 즉 변해 가는 존재('法空')이기 때문이다).

앞에 설명했듯이 법이라는 말 자체가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부처님의 본성은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말이 바로 '비밀(秘密)'이라는 말이다. 천태는 비(秘)란 1신 즉 3신(一身卽三身: 法身·報身·應身)인 것, 밀(密)이란 3신 즉 1신(三身卽一身)인 것, 다시 말해 1신과 3신의 상즉(相卽)을 '비밀'이라 해석하여 <법화문구>에서 이를 "지금까지 설하지 않았던 것을 '비'라 하고, 오직 부처님만이 아시는 것을 '밀'이다"라고 설명한다. 또 삼론종의 길장도 그의 저서 <법화의소 권10>에서 말하기를, "지금까지 설한 바가 없는 것을 '비'라 하고 그 감춰져 온 법이 매우 깊기 때문에 '밀'이라 한다"고 하여 천태의 <법화문구>와 그 해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법상종의 자은대사(慈恩大師) 기(基)는 해석을 조금 달리 하는데, <법화현찬 권9>에서 그는 "법신과 보신의 2신(二身)의 본성이 심묘(深妙)하므로 '비밀'이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에 '신통(神通)'이란, 천태에서는 법·보·응 3신의 작용을 '신통지력(神通之力)'으로 해석하고, 길장은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함을 짧게 나타낸 것이 '신통'이라 하며, 자은대사는 화신이 중생으로 응해서 나타나는 작용이 '신통'이라고 해석한다. 길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신론(佛身論)에 의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밀신통지력'의 원어는 가지력(加持力) 또는 위신력(威神力), 즉 신비한 힘이라는 뜻이다.

'아설연등불등(我說燃燈佛等)'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크다. 연등불이란 과거세에 출현하여 석존에게 성불의 예언('授記')을 하신 부처님이신데 정광(錠光) 또는 보광(普光)이라 번역된다. '제1장 서품'에서는 묘광(妙光)에게 교화되어 차례 차례로 성불한 일월등명불(日月燈明佛)의 여덟 왕자 중 최후에 성불한 분이 연등불이라고 설하고 있지만 이 연등불과 석존의 관계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이 '아설연등불등'이라는 말은 쉽게 지나칠 글귀가 아니기 때문에 예로부터 두 가지 해석이 있어 왔다. 그 첫번째는 "내('釋迦佛')가 연등불 등이라 설해 왔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설, 즉 연등불 등의 부처님들은 본불인 석존이 중생 교화를 위해 방편으로 나타난 응현불(應現佛)이며 본래는 석존과 동체(同體)라고 하는 설이다(천태 이전의 해석과 자은대사의 <현찬> 등). 이 설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두번째의 해석은 연등불과 석가는 별도의 부처님이라는 설이다. 이 해석은 천태의 학설인데 천태는 앞의 해석을 비판하여 배척하고, <법화경> 이전의 경에서는 석가불은 연등불 아래서 수행하고 연등불로부터 성불의 수기를 받았다고 설해져 있으나 그것은 모두 방편으로써 실설(實說)은 아니며 종래의 석가('迹')에 대한 인식을 개혁시키기 위한 것이 <법화경>이 바라는 글의 뜻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경을 해석하면 '아등연등불등'의 뜻은

석가불은 적불·화신불·응신불

세상 모든 현상은 본불의 화현

"나('釋迦佛')는 연등불 등의 일을 설해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첫번째의 해석인 연등불이 곧 석가불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연등불과 석가불은 별도의 부처님이 된다. 그러나 범문(梵文)에서는 "선남자여, 나는 그 동안 다판카라여래 등을 칭찬해 왔다"라고 되어 있어 "내가 연등불 등을 설해"라는 첫번째 설이 타당한 해석인 듯하다.

결론적으로 법신에서 법이란, 변화하는 능력('功能')을 말하고, 이 법이 의지하는 자체를 몸('身')이라 한다. 몸이란 마음('淸淨一心')을 말하고 이를 세간에서는 진여·부처님·우주의 대생명 또는 본불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종래에는 석가모니불만을 가리켜 부처님이라 생각해 왔으나 그 석가불은 본불, 즉 대생명 또는 비로자나불이 일시적으로 변화해서 나타난 적불(迹佛)이며, 적불은 화신불 또는 응신불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본불의 화현임을 말하고 있으니, 두두물물(頭頭物物) 화화초초(花花草草)가 부처('如來')아닌 것이 없다. 이로써 우리 모두는 여여불(如如佛)임을 알아야('覺')한다. 이것이 바로 '여래수량품'이 가지고 있는 진면목이다.

▩무설정사 조실

절 옆에는 작은 부도 밭이 있고 그 앞에 절 내력을 담은 안내판이 있다. 방계산 자락에 이 절이 들어선 것은 1928년이다. 당시는 행정 구역상 광산군이었다. 군내에 절이 없어 지역 유지들이 뜻을 모아 지은 절이 관음도량 법흥사다. 창건 불사는 손영월 스님이 주도했고 1949년에 서국산 스님이 중창했다. 화엄종 소속이다.

법흥사는 다시 중창 불사가 진행되고 있다. 낡은 법당에서는 비가 새고 요사채는 기울어 모든 전각을 헐고 새로 짓는 작지 않은 불사다. 이미 대웅전과 요사채는 이미 마무리 단계다. 대웅전 좌측의 낡은 요사채를 뜯어내고 강당을 짓고 정면에 사천왕문을 세우고 그 2층을 종루(鐘樓)로 장엄하면 불사는 일단락된다.

이 불사는 올해 83세의 노스님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지운(池芸) 스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법흥사 중창 불사를 원만히 회향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원력을 세우고 매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음을 믿어야 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因果)란 게 뭔가? 인을 바로 하면, 과도 바른 법 아닌가. 이 세상에서 팔순이 넘도록 살았고 부처님 은혜를 크게 입었으니 창건은 못해도 낡은 절 새로 짓는 불사는 하고 가야지. 내 발원이 있고 평생 병원 신세라고는 한 번도 져 본 일이 없는 몸이 있으니 하루 일하면 하루만큼 불사는 진행되는 거야. 거창하게 소문내고 요란하게 화주 받으며 절 짓는 것 보다는 이렇게 조용히 절 짓는 일을 즐기는 것도 좋은 수행 방편이라 생각해 주게나."

지운 스님은 기자의 방문을 한사코 거절 했었다. "공부도 잘 하지 못 했고 나이 들어 말도 잘 못하니 찾아오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법흥사를 찾아 갔을 때, 스님은 "시내 좀 나갔다가 방금 돌아왔는데 용케도 찾아 왔군"하면서 밝게 웃어 보이셨다.

지팡이를 들고 있는 스님의 모습은 아무래도 어색했다. 노스님들에게 지팡이가 몸의 일부처럼 아주 잘 어울리는 경우도 있지만 지운스님에게는 아무리 봐도 지팡이가 몸의 일부라는 느낌을 주지 않았다. 이유가 있었다.

"난 원래 이런 지팡이에 몸을 의지할 정도는 아니었어. 건강 하나는 항상 자신 있었지. 그런데 몇 달 전에 허리를 다쳐서 이 모양이 아닌가. 그날도 일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리어카에 흙을 실어 나르고 있었어. 아, 그런데 저쪽 경사로에서 리어카가 기우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지 뭔가. 병원에 가서 X레이 촬영을 해 보니 크게 다친 것은 아닌데 이렇게 허리를 쓰기가 불편하고 걷기도 힘들어서 지팡이에 몸을 맡기게 됐어."

하지만 스님은 중창불사 원만 회향을 위한 300일 기도는 매일 지극한 정성으로 올리고 있다. 300일이 지나도, 불사가 회향 되어도 스님은 기도를 계속 할 생각이다. 300일이라는 시간의 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시간 맞춰서 무슨 기념식 하듯 하는 것이 아니야. 늘 마음속에서 염원하고 늘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 불사를 하려고 마음을 내고 일을 하다 보니 불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데 그 방편으로 300일 기도를 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그 시간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불사를 하고 있는 것도 기도일 수 있으니 말이야."

스님은 살아 있는 자체가 절실한 기도라는 것을 강조했다. 사람은 생각이 움직이고 있는 한 뭔가를 바라고 설계한다. 그 생각의 틈새에 끼어 있는 염원들 혹은 계획들이 모두가 다 기도라는 것을 스님은 전쟁이라는 체험을 통해 알았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기도라 믿어라. 모든 생각을 기도하듯 간절히 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기도라는 것은 형식을 좇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에 머금고 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것을 스님은 출가 본사인 대둔산 대흥사에서 알게 되었다며 오래 전의 일을 회고했다.

전쟁의 광풍이 대둔사에도 불어 왔다. 대둔산은 이미 유격대(빨치산)들이 출몰하고 있었고 토벌을 위한 접전도 벌어져 그야말로 살벌한 시절이었다. 사중의 스님들이 절을 두고 피란을 가는 와중에 스님도 인근 마을에 방을 얻었다. 은사이신 붕명(鵬溟)스님을 모시러 갔는데 "나이 팔순이 넘은 중이 피란을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죽어도 부처님 도량에서 죽어야지"하며 안 떠나겠다고 했다. "죽음을 두려워해 마을로 내려간다고 그곳에는 죽음이 없느냐"는 은사 스님의 말에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노스님을 모시고 절에 그냥 남아 있었다. 대둔사에는 붕명 스님 말고도 다른 노스님이 남았고 나이 든 공양주 보살 등이 남게 되었다.

"그렇게 무서운 시절을 맞으니 늘 마음속이 허전하고 두려운 생각도 자주 들게 되더군. 그럴 때마다 부처님이 도우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기도로 바뀌었어. 늘 부처님과 보살님들, 신장님들이 나를 돕는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무슨 생각을 해도 그 믿음의 생각을 먼저 했지. 그래서 전쟁을 겪으면서도 죽지 않았는지 몰라. 두 눈으로 그 험한 일들을 다 보아야 했지만 마음은 늘 든든했어.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바야흐로 대둔사도 낮에는 경찰이 차지하고 밤에는 산사람들이 출몰하는 위험지역이 되었던 즈음이었다. 절 아래 마을의 젊은이들과 스님은 청년단을 조직해 야경도 서고 면소재지의 지서와 비상연락망도



◇지운스님은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무엇이든 이룰수 있다고 강조한다.

오직 일념으로 간절하면

因果 바르게 다스릴수 있어

한생각 믿음의 자리로 집중을

"생 굳 지운 가

광주의 외곽도 이전 주공항으로 이어지는 도시 외곽을 설명하는 언저리에 아파트촌이 광주시 광산구 신천 에서 들판으로 연결되니고 신개발지역의 이 말하자면 언제든 모습가 위치해 있다.

지운스님은?

지운(池芸)은 스님 해리에서 출생, 15세 를 거두어 머리 깍아 사 불교전문강원에서 방과 6.25 전쟁을 겪

전국의 모든 불자 여러분께 알리는 메세지

1. 한반도에 불교가 들어온지 1700여년! 그동안 교학(경전)과 참선(묵조선,간화선,조사선)이 주류가 되어 호국불교로써 대단히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마침내 한국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선인(仙人)에게 佛法을 전수받아 수행하셨던 – **「이근원통법문(耳根圓通法門)」**이 설산 히말라야에서 우리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모든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이 아닐수 없으며, 앞으로 수많은 아라한과 도인들이 출현한다는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법화경의 서품과 비유품에 예언되어 있음)
2. 과거칠불과 아미타불, 연등불,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의 십대제자와 십육아라한, 오백아라한, 천이백아라한, 라훌라, 용수보살, 밀라래빠, 달마대사, 6조혜능대사 등의 모든 불보살과 아라한들이 화두(話頭)가 아닌 오직 유일무이한 해탈법문인 「이근원통법문」을 전수받아 수행하여 **완벽한 깨달음(확철대오)**을 성취하시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증득하셨습니다.
3. **『능엄경』**과 **『아미타경』**, **『금강경』**, **『법화경』**을 비롯한 49년동안 설하신 팔만사천법문이 모두 다 한결같이 이근원통법문 이 해탈하고 성불할 수 있는 가장 수승한 法門임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즉,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이 바로 「이근원통법문」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근원통법문」에 入門하도록 권유하기 위하여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수 없는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로써 팔만사천 법문을 설하셨던 것입니다.
4. **『능엄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직 「이근원통법문」만이 **모든 법문중에서 최고의 법문이며 열반으로 가는 유일한 법문**이요, **과거세의 모든 여래(如來)가 수행했던 법문**이다. 또한 이것은 성불하고자 하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보살마하살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법문이다. 아득한 과거세에 관세음보살도 이 법문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으며 나 또한 그러하다. 이 법문은 불가사의한 힘이 있으며 시방삼세불도 모두 이 법문을 수행해서 마침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증득하였다. **모든 수행법은 다 임시방편일 뿐 영원한 법문은 아니다. 유일하게 「이근원통법문」만이 영원하고 가장 궁극적이면서 확실한 수행법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5. 「이근원통법문」을 직접 수행해보면 여러분도 석가모니불의 말씀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불은 49년동안 오직 이 법문만을 찬탄했으며, 중생들에게 **성불하려면 반드시 「이근원통법문」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화경』**에 보면 석가모니불이 이 법을 설했을 때 5천명의 대중들이 이 전에 들어보지도 배워보지도 못한 생소한 법문이라고 의심하고 비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6. 지금 이 세상에는 **이름난 스승**(큰스님)들이 너무나 많은데, **『능엄경』**에 석가모니불은 "말법시대가 되면 자칭 불보살이나 큰스승(큰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생을 속일 것이다. 사람들을 불보살의 경지와 해탈의 세계로 인도하지 않고 기복신앙, 의식, 경전, 형식에 집착하게 하고 오계(五戒)도 지키지 않고 술, 고기, 마약(담배)을 먹는 성직자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재난과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7. 여러분을 해탈시켜 줄 수 있는 **참된 스승**을 찾으십시오. 석가모니불의 법맥이 28조 달마대사(450~536?)에 의하여 중국으로 들어가 혜가, 승찬, 도신, 홍인, 혜능대사(638~713)까지 전해졌으나 혜능은 法을 전할 법기(法器)가 없어 더 이상 전하지 않았습니다.
8. 「이근원통법문」을 「금강법문(金剛法門)」, 「법화법문(法華法門)」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여래의 비밀하고 중요한 법장(法藏)으로서 너무나 깊고 오묘하여 천만겁에도 만나기 어렵고 반드시 부처님과 인연이 있고 복덕이 많은 사람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법화경中)
9. 「이근원통법문」은 만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렵고, 입문하기도 어렵고, 끝까지 수행하기도 어렵습니다.(법화경中)

1. 「이근원통법문」은 **성스러운 입문식**(入門式)을 통하여 전수해 주는데 **무료로** 행해집니다. 입문식을 **점안식**(點眼式), **마정수기 정법안장**(正法眼藏)이라고도 합니다. 점안식은 본래 불상이나 탱화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부처님이 살아 있는 사람의 불안(佛眼)을 열어주는 의식을 뜻합니다.
2. 「이근원통법문」에 입문하면 누구든지 이번 생에 살아 있을때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도, 해탈, 보살, 성불을 증득할 수 있으며 누구나 수행할수 있는 쉬운 법문입니다.
3. 불법(佛法)은 불교(佛敎:교리,경전)가 아니며 무형무상(無形無相)으로 일종의 힘이다. 반드시 현존(現存)하는 부처님으로부터 점안식을 통하여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법(法)을 전수받아야만 해탈, 성불할 수 있다.
4. 설산 히말라야 과거칠불,석가모니불 법맥은 해동 대한민국에 살아있다.
5. 해탈, 성불은 살아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죽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니다.
6. 「이근원통법문」은 일세해탈법문(一世解脫法門)이며 정법안장(政法眼藏), 열반묘심(涅槃妙心), 마정수기(魔頂授記),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이다.

※『능엄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법시대에 고기먹는 출가승(出家僧)들이 비록 마음이 열려 삼매에 들어간 것 같지만, 그들은 모두 대나찰(大羅刹: 귀신)로서 고기먹은 과보로 임종후에 반드시 생사고해(生死苦海)에 빠질 것이다. 그들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 그들은 삼계를 벗어날 수 없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대승정사** 연락처 : 02)391-7032

TTS 티티에스무역

오키나와 해양심층탈염음료

「신카이」한국상륙

한국·일본 매스컴들이 주목하는 바로 그 해양심층탈염음료가 「신카이」브랜드로 한국시장에 첫선을 보입니다

미네랄음료 「신카이」는 해양심층탈염음료 중 가장 뛰어난 건강음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신카이(해양심층탈염음료)"는 태양이 미치지않는 수심 800M 깊이 북극에서 곧바로 내려오는 오키나와 바다에서 사막 속의 오아시스라고 불리우는 산호초의 퇴적지층을 통과하고, 전혀 오염도 되지않아 맑고 깨끗하며, 살아있는 수많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현재 생산되고 있는 해양심층탈염음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건강 음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건강음료 피부미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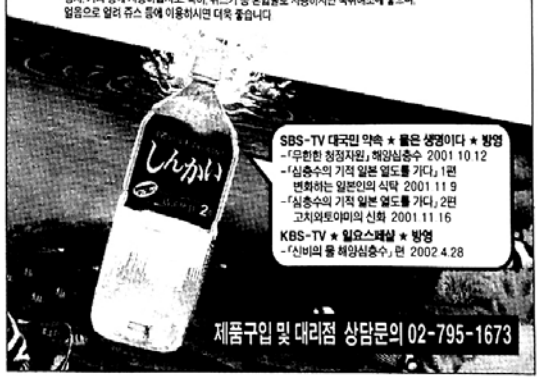
1일 200cc의 컵으로 2~3잔을 꾸준히 매일 마시고, 이침에 일어나면 먼저 물1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피부미용 및 악 복용시에도 좋습니다

건강요리에…

밥을 지을 때 물량의 15%정도 신카이를 사용하시고, 된장국에도 신카이로만 또는 절반을 사용하십시오. 조리시 물로서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하면 좋습니다

각종 식음료 혼합물로…

냉차, 커피 등에 사용하십시오. 특히, 위스키 등 혼합물로 사용하시면 숙취해소에 좋으며, 입음으로 얼려 쥬스 등에 이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제품구입 및 대리점 상담문의 02-795-1673

생각이 기도일 때 믿음 유지가능"

서 뵌 큰스님

님 (광주 법흥사 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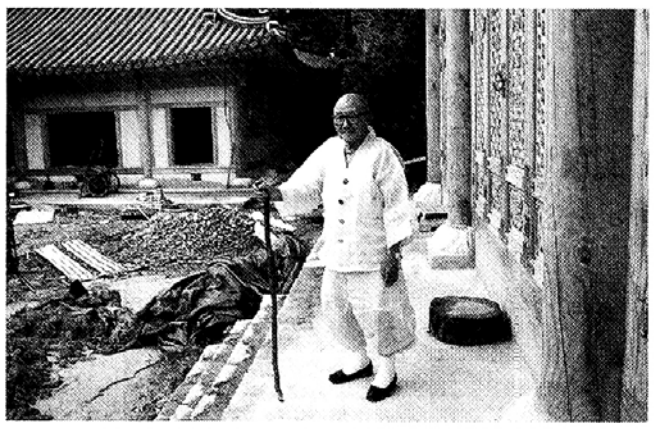
…숲으로 변했다. 시내에서 송정리 광… 중심으로 펼쳐지는 아파트 단지들은 …한 장치라는 느낌을 준다. 어느 도시나 …그 바깥으로 숲과 산과 들이 있다.
…흥사는 도시의 외곽을 이룬 아파트 단지 …정평한 마을에 위치해 있다. 도심도 아…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촌마을도 아닌, …을 수 있는 '대기상태'의 마을에 법흥사

…년 12월 23일 전남 해남군 부평면 동…년에 대둔사로 출가했다. 어린 행자…를 주신 은사는 붕명(鵬溟)스님. 대둔…스님에게 경을 배웠고 그곳에서 해…5 때 은사스님의 "마을로 내려간다

…때 대둔사 출가…현재 화엄종 전남 종무원장

…추고 있었다. 절 아래 마을의 이장이 신산스님이란…이었는데 참으로 지혜로운 수행자였다. 신산스님…경찰들과 빈틈없는 관계를 유지해 마을이 안전하…록 하는데 많은 애를 썼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발생했다. 마을을 지키자…결성된 청년단 단원들 사이에 은밀한 연락이 돌았…'오늘 밤 목포댁의 집 근처에 잠복하고 있다가 신…가 올리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나와 대응하라'는…지였다. 목포댁은 마을에서 주막을 하는 여인이었…제 영리한 사람이었다. 주막을 하다보니 밤에 산사…들이 내려와 음식물을 빼앗아 가곤 했다. 목포댁은…들에게 반항할 힘이 없었으므로 조용히 온 그들에…조용히 음식들을 내주곤 했는데, 그날은 지서장과…종의 작전을 세웠던 것이다.
…산사람들이 주막으로 찾아오면 목포댁은 총이 무…우니 치우자며 총을 뒷방으로 치우고 음식을 먹이

기로 했다. 그들이 음식을 먹는 사이에 경찰이 공격을 하고 마을 청년단이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런 작전을 아는 사람은 오직 목포댁과 지서장뿐이었다. 청년단원들이 영문은 모르지만 전갈을 받은 대로 조용히 목포댁의 주막 담벼락에 잠복을 하고 기다리는데, 어느 순간 탕 탕 탕 총소리가 났고 방안



◇법흥사 중창불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몸소 일을 하는 지운스님.

에서는 "누가 총을 쐈느냐"는 지서장의 고함이 들렸다. 스님과 청년단원들이 신호가 왔다고 판단하고 목포댁의 집으로 일제히 뛰어 드는데, 방문을 박차며 몇 명의 산사람들이 총을 챙기고 나와 뒷마당으로 달아났다. 적을 본 청년단원들은 움찔했지만 기세 좋게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추격하는 시늉을 했다. 그들은 뒤 돌아 총을 쏘며 도망갔는데 그 와중에 청년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 그리고 바로 사방은 조용해졌고 총을 맞은 지서장은 어깨 관통상을 입었다. 그날 밤의 작전으로 경찰은 6명의 산사람 중 5명을 체포했다. 지서장은 총상을 입었고 청년단원 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다.

스님은 더욱 굳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 부처님과 보살님들, 신장님들의 가피로 절도 탈나지 않고 스님도 무사하리라는 믿음을 항상 채우고 살았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대둔사 아래 마을이 산사람들의 손에 접수됐다. 그들은 절의 책상이며 의자 등을 메고 갔다. 그들이 사무소를 차리고 마을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제법 부산하게 움직이더니 드디어 목포댁을 불렀다. 목포댁은 그들에게 맞아 죽기 직전의 형상으로 풀려났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결국 스님이 목포댁을 업어다 대둔사로 데리고 갔고 간호해야 했다. 목포댁이 풀려나고 곧바로 신산스님이 불려갔는데 신산스님은 이장 일을 보면서 결찰들의 업무에 많은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결국 매를 맞고 입적하고 말았다.

"참으로 치가 떨리는 시절이었지. 그래도 나는 늘 마음이 든든했어. 부처님의 가피를 믿었으니까. 그 뒤로 늘 생각해 보면 내가 부처님의 가피를 믿지 않았으면 나도 그때 죽었을지 몰라. 그 믿음이 나를 지켜준 것이라 생각되거든. 전쟁이 끝나고 지금까지 살면서도 나는 그 믿음을 버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불사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

스님은 언제나 백중날 천도재 만큼은 빠뜨리지 않고 직접 주관해 봉행한다. 수행자가 된 이후 두 눈으로 죽음을 목도해야 했고 뭇매에 피골이 어스러진 사람을 간호하기도 했던 시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중생의 몸은 수 백 번을 거듭해 죽는 것이야. 그러나 마음은 죽지 않거든. 그걸 불성(佛性)이라고 하지. 그 불성의 자리는 좋은 인연을 맺으면 좋은 형상을 만나고 나쁜 인연을 맺고 그곳에는 죽음이 없느냐"는 한 마디에 뭔가 가슴이 차오르는 느낌을 받았고 그때부터 제불보살님과 신장님의 외호를 인식하며 굳은 믿음의 자리를 지니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스님은 해남 부평의 칠성암으로 들어가 26년간 정진했다. 칠성암을 태영사라 개명하고 중창불사를 했다. 그 후 지금의 법흥사로 거처를 옮겨 화엄종 전남종무원장을 맡고 있다.

원력 세우고 매진하면 안되는일 없음 알아야

으면 나쁜 형상을 만나게 되지.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의 불성이 절집에까지 올 수 있는 날이 백중날이니 그날은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인 셈이야. 그래서 그날 기도를 특별히 잘해서 많은 중생들이 선한 인연을 맺도록 해야하는 거야."

지운 스님은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이룰 수 있다는 믿음, 불보살님의 가피와 신장님의 외호가 자기를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 아니면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일들에 대한 믿음일지라도 진심으로 믿을 때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다.

늘 생각을 흐트리지 않는데서 기도는 비롯되는 것이어서 믿음이 곧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가 곧 믿음으로 이어지면 무슨 일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지운스님은 특별히 당부했다.

신문 독자들을 위한 법문을 청했을 때 스님은 "법문은 한 소식을 통한 뒤에나 하는 것이지 지금을 할 것이 없어. 그저 살아오면서 터득하고 배운 것 몇 마디 한 이것이 전부야. **믿는 마음이 절실하면 모든 인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으니 한 생각을 그곳(믿음의 자리)에 집중하라는 것뿐이야.**"

글·사진=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리선행 법사의 스님이야기 홍도스님 (1)

5척 단구. 보통 염주알보다 몇 배나 큰 왕방울 염주를 늘 돌리고 있는 스님. 유난히도 걸음이 빠르고, 마치 홍길동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해 '방울스님'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홍도스님.

1935년 태어난 홍도스님은 지난 79년 입적해 44년이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대학생 포교, 군포교 등 한국 현대불교의 포교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스님이다. 입적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스님의 큰 원력과 헌신적인 포교활동,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는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첨단정보화시대를 자랑하는 오늘날, 한국불교가 시대와 현대인의 근기에 맞게 포교를 잘 해나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예' 라고 선뜻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한 현실이 안타깝기에 '1등 포교사' 홍도스님이 더욱 그리워지는 지도 모른다.

홍도스님은 대구 파계사로 동진출가 했다. 스님은 당시 한국불교계가 정화로 인해 혼란과 갈등이 깊어지자 불교가 젊어져야 하고 운둔에서 벗



어나야 한다는데 인식을 깊이 하고 도심포교와 청소년포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1962년 조계사 중고등 학생회 지도법사를 맡아 학생지도에 헌신적이었다. 그 시절 지금의 조계종 총무원 청사 자리에 있던, 낡은 합석지붕의 회관이 어찌 그리도 춥던지 겨울에는 법회를 진행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었는데 일요법회 시간이 되면 홍도스님이 오셔서 총무원에서 조개탄을 몰래 가져다가 난로를 피워주시며 공부하는데 차질이 없게 했다.

광덕스님이 주지로 계시던 봉은사에 계실때는 명성암에 주석하면서 대학생불자들로 '구도부'를 만들어 지도했다. 이때 활동하면 청년불자들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대불련의 활성화를 위해 간사를 동국대 불교학과로 전학시켜 학비지원까지 하며 열정적으로 대불련 지도를 하셨다.

60년대 중반에는 '최초 도심포교당'이라 할 대각포교원을 종로 4가에 있는 빌딩 4층에 개설했다. 3층에 위치한 교회에서 끊임없이 방해를 했어도 흔들림없이 초지일관으로 정기법회와 각종 불교의식을 행하면서 일반시민들을 불교에 이끌었다. 스님은 당시 돈이 조금 모이면 불교의 식집이나 경전번역서를 출판해 대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포교원에 대각보현회를 구성해 부처님오신날 제등행진에서 대상을 차지할 정도로 신도들을 조직화하였다.

스님은 이후 서울 후암동 뒤쪽 남산 기슭에 보현정사를 건립하고 거리포교를 실천했다. 당시는 야간통행금지가 실시되던 때였는데도 서울시민의 안녕과 불법 홍포, 특히 군승 창설을 발원하며, 새벽 3시엔 어김없이 목탁을 치며 대대적인 도량석을 시작하였다. 남산에서 출발하여 옛날 KBS방송국- 종로 3가 -중앙고등학교 - 청와대 앞- 옥인동- 서대문- 서울역을 지나 후암동 국방부 청사까지 갔다. 그곳에서 탑돌이 하는 것처럼 몇 바퀴 돌고 다시 절에 돌아오는 코스였다. 절에 돌아오면 새벽 5시가 지나 있었는데 그 일을 매일 되풀이 하였다.

작은 키의 스님이 직경 50cm가 넘는 커다란 목탁을 치면서 걷는데 어찌나 걸음이 빨랐던지 합장만 한 채 뒤따라 걷는 사람들조차 도량석이 끝나고 나면 온 몸이 흥건히 땀으로 젖었다. 가끔씩 다른 절의 대중이나 대불련 학생들이 동참하였는데 처음에는 통행금지 시간이라 제재하던 순경들도 어느새 합장으로 인사하고 한마디씩 덕담을 하거나, 도량석 하는 일행의 모습을 보는

1등 포교사…애칭 '방울스님'

대불련 창립·군포교등 선구자

자체를 즐거워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언제나 같은 시각에 울리는 목탁소리를 듣고는 감화되어 따뜻하게 덥힌 우윳잔을 들고 저 멀리서부터 기다리는 여인들의 모습도 늘어났다. 그래서 인왕산 기슭의 옥인동 산속 달동네를 지날 때마다 부처님 재세시 탁발하던 모습을 저절로 떠올린 동참 대중들은 환희심이 가득 피어올라 석가모니 불 정근소리가 더욱 커졌던 기억이 난다.

홍도스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번도 거르지 않고 초하루와 보름에는 서울역에서 용산 한강교를 건너 동작동 국립묘지까지 걸어가서 국가 유공자들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기원했다.

지금이야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이 거의 사라졌지만 60년대만 해도 대학생들이 피폐하고 어려웠던 농촌이나 어촌, 산촌에 가 농사일을 돕거나 야학을 펴고, 또 의료봉사활동을 벌이는 일 등을 많이했다. 그러한 농촌봉사를 홍도스님이 대학생들과 함께 처음 시작했다. 스님은 1964년 여름방학, 광주 지역 대학생들과 섬마을로 찾아가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스님의, 재치 넘치는 불교설화 이야기와 정성이 가득한 봉사 자세 때문에 농민들은, 병을 고쳐주는 의대생들보다도 스님곁에서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다. 의대생들도 솔선수범하는 홍도스님의 모습에서 감화를 받고 봉사에 온 힘을 쏟았다.

횡성 대승사 회주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영가천도 「책자 무료보급」
인간의 길흉회복을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인간의 고통중에서 절반이상이 영가의 장애로부터 온다!
집안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가정불화, 사업부진, 자녀문제, 불의의 사고나 재난,
이중에 절반 이상이 영가의 영향으로부터 온다.
"100% 영가천도 영험도량"
책 자 내 용
제 1장 영가의 실체.
1. 영가천도에 대하여
2. 영가(고혼) 천도의 의미
3. 영가란 무엇인가?
4. 착신현상이란 무엇인가?
5. 영가의 장애와 천도의 필요성
제 2장 천도재에 대하여...
1. 영가천도와 업장소멸.
2. 영가천도의 공덕.
3. 천도재와 위령제의 차이.
4. 수자령영가에 대하여.
5. 효행중의 효행.
6. 지장보살의 시대.
7. 천도재 법문.
제 3장 영가천도로 안락한 삶을 영위하다.
● 영가가 천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례.
● 영가가 착신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 천도재를 지낸 분들의 체험수기.
그밖에 여러 사례들 - 영가천도 책자 참조 -
100%의 확실한 영가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
천도재가 위령제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영가천도를 했는데도 영가의 장애라고 느끼거나 삶의 변화는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는 불자가 늘고 있다. 전국에 조상령 혹은 수자령 영가가 천도가 안되어 이로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이들이 상당 수에 이른다.
「미륵이 출세할때까지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리라!」
- 지장경 중에서 -
매월 합동 천도재 봉행, 천도재상담 전화 및 무료책자 신청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도량 성 거 사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283번지(독립기념관 IC)
041) 567-6820, 041)567-6822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전수법 -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쿤달리니, 미간과 백회 차크라개방, 에너지이저,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면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본체, 녹색광안경, 헤드폰, 사용책자등/미국 마이크로펄사)
* 오라진동주선 (미국 오라시스템사/중국OEM)
* 광안경(빨간색, 청색, 보라색, 순백색 /미국 마이크로펄사)
* 다이내믹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펄사)
세계 유일한 듀얼 바이놀비트 시스템
*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쇄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놀비트는 6개 상쇄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험을 말이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메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쿠션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기만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조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톤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 전화주시면 자세한 카다르그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 888-2142

불교의식(범음·범패), 기타
학 인 모 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 육 과 정
1. 의식과정(속성과정) : 기본과정, 중급과정
2. 작 법(속성과정)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 단 작법과정은 의식과정의 기본과정을 수료내지, 동등자격자
3. 사물(12개월) : 태평소(호적)
■ 모 집 인 원 : 각 반 20명(선착순)
■ 원 서 접 수 : 수시모집
■ 제 출 서 류
이력서 1통
입학원서 1통
반명함사진 3매 3통
■ 문 의 ☎ 031)562-2751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토록 지도함.
※ 전화, 서신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社團法人 삼봉불교대학

판각문화 전통 오늘에 잇는다

해인사 성보박물관 개관 기념

'지혜와 창조展' 24일~9월 24일

해인사는 우리 판각 문화의 성지다. 해인사 장경각에는 불법의 지혜로 민족의 자주정신을 드높였던 고려 민중들의 의지가 새겨진 고려대장경판이 모셔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해인사에서 성보박물관 개관을 기념하는 특별 판화전 '지혜와 창조전'을 연다. 지혜와 창조라는 전시 제목이 말해주듯이 선대들이 이룩해 놓은 판각문화의 전통성과 민족문화의 역사성을 통해서 미래를 향한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전시의 지향점이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 판화작가 24명이 2년동안 준비해온 다양한 판화작품들이 선보인다.

현대 작품으로 승화한 판화 미학

소재 해인사·주변 암자·석탑 등 다양

종류 목판·동판·석판화 등 광범

첫 기획전시를 여는 해인사 성보박물관장 향적스님은 "750여년만에 고려선인들 앞에 우리 후대 판화가들의 작품을 보이게 된 것이 기쁘다"면서 "앞으로 우리 전통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성보박물관이 되도록 다양한 특별전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인사 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판화가 홍선웅씨를 중심으로 정비파, 김영만, 임병중, 남궁산 등 국내 판화작가 24명이 2년 동안 해인사를 답사하고, 사전 작품 품평회를 여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준비된 만큼 전시에서는 다양한 판화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연꽃과 풍경 등 사물(四物)의 이미지를 반복적 도상으로 표현한 것들과, 현대인들의 일상적이며 소박한 삶의 가치를 불교문화와 접목시켜 추상적 이미지로 재구성한 것, 해인사와 주변의 암자, 그리고 가야산의 자연경관을 소재로 한 것, 불교 건축물 및 석탑 불상·선승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자연·생명 등 상생으로서의 우주적 가치관을 불교적 언어를 통해 재구성한 것 등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판화 작품들이 선보인다. 판화의 종류 또한 목판화, 동판화, 메조틴트, 실크스크린, 컴퓨터 프린트, 엠보싱지 판화, 석판화 등 판화 형식의 전모를 살필 수 있다.

이번 판화전을 기획한 판화가 홍선웅씨는 "조선 영·정조 시대까지 찬란했던 우리의 판각문화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해방 이후 정치 사회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해인사 판화전은 우리의 판각문화를 민족사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현대의 작품세계에 밀착시켜나가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는 24일~9월 24일까지 한 달간 계속된다. 055)934-0988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동자승이 노스님 되기까지

희노애락·윤회사상 영상속에

김기덕 감독 영화 '봄·여름…' 크랭크인

'수취인불명' '나쁜남자' 등 독특한 영화를 주로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는 김기덕 감독이 이번에는 수행자의 인생 역정을 그린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LJ필름)으로 메가폰을 잡는다.

9월 초 크랭크인에 들어가 내년 8월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어린 동자승이 중장년을 거쳐 초로의 노스님이 되기까지의 인생 역정을 통해 인간의 희노애락과 윤회사상 등을 김기덕 감독 특유의 독창적 연출로 스크린에 담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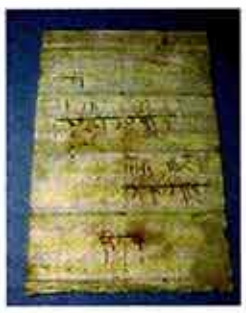
첫 촬영에 앞서 제작진은 현재 영화의 주무대가 될 경북 청송군 주왕산 주산 연못 사찰 세트장 마무리 공사에 한창이다. 특히 대다수의 불교소재 영화들이 현존하는 사찰을 배경으로 촬영하는데 반해, 이 영화는 조선 숙종때 만들어진 5천여평의 주산 저수지 한 가운데 수상 법당 세트를 만들고 90% 이상의 촬영을 이곳에서 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현재 영화 속에 등장하는 동자승과 중장년 스님역은 이미 전문 배우를 캐스팅 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비중있는 배역인 노스님 역은 실제 스님을 출연시키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과 인연있는 사찰에 협조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다.

한성호 LJ 필름 기획실장은 "영화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실감나는 연기를 위해 진짜 스님을 캐스팅하기로 결정했다"며 "55세이상 스님들 가운데 영화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작 발표회는 11월경에 가질 예정이다. 02)3444-4143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고려·조선 대외교류 어떻게 했을까



고려·元 관계 밝힐 티베트어 법지 최초 공개

조천도·조선통신사 행렬도 등 500점 선뵈

다리가 긴 행서체의 티베트어로 쓰여진 〈대원(大元)울루스 명령문〉의 법지 서식인 이것은 원나라 불교계 최고 권위자인 제사(帝師)가 고려 수선사(修禪社)의 진감국사 충지스님에게 보낸 공문서이다. 고려 사원과 원, 고려 불교계와 제사와의 관계 및 몽골 제국사를 고찰함에 있어 중요한 1차 사료가 된다.

원래 문서는 한 장의 커다란 종이였으나, 마모되어 크고 작은 6장의 종이로 나뉘어 지게 되고 다시 이것이 한 장으로 배접되었다. 문서 하단에 주인(朱印)의 가장 아랫부분이 남아 있다.

이밖에도 고려와 송, 원나라와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에서부터 조선의 대중국, 대일본 사신들의 내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조천도(朝天圖), 조선통신사행렬도 등에 이르기까지 500여점의 다양한 유물이 전시된다. 02)398-5074

'춤꾼 최승희 사진展' 열어

포스터 등 자료 30점도

광주시립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준비한 '춤꾼 최승희 사진전'이 10월 20일까지 계속된다.

일제시대 전세계에 동양춤의 아름다움을 알린 전설적인 무용가 최승희의 생애를 조명한 이번 사진전은 최승희 연구의 권위자인 중앙대 정병호 교수가 기증한 최씨의 사진 138점이 선보인다.

문화 소식

2002년 문예연감 발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 전문 연감인 〈문예연감〉(제26호)을 발간했다.

2002〈문예연감〉은 2001년도에 전국에서 벌어진 문화예술활동인 공연, 전시, 행사 등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개관을 수록하였고, 이전엔 없었던 총론을 분야별 개관 앞에 게재하여 해당분야의 흐름을 조명하도록 편성했다. 또한 각 분야의 활동상을 날짜별 일지로 정리하고 일지자료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통계표를 통해 2001년 문화예술의 특징과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지루하던 비가 개이고 모처럼 밝은 햇살이 비친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 오랜 비 덕분에 공기가 맑아졌는지, 먼 산이 또렷하게 보인다. 탁 트인 시야에 마음도 따라서 시원해진다. 티베트나 몽고 고원에선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시력이 좋다고 한다. 이런 날은 마음의 시력도 따라서 밝아졌으면 좋겠다.

화창한 햇살을 바라보니, 허공(虛空)이 이렇게 좋은지 미처 몰랐다는 생각이 든다. 우울한 날에는 바늘 하나 꽂을 곳도 없이 꽉 막혔던 마음이 한없는 창공 아래서 이렇게 툭 트인 여유가 생기니 신기한 일이다. 이럴 땐, 나도 함허(涵虛, 1376~1433) 스님이 된 기분이다. '속에 허공을 머금는다'는 그 이름(堂號)을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자모산 연봉사에서 3년간 보림(保任)에 힘쓰면서, 거처하던 방에 '함허당'이란 현판을 내건 뜻이 헤아려진다.

그릇의 용도는 사물을 담을 빈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이다. 또한 건축물은 사람이 거주할 빈 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다. 겉이 아무리 화려한 집일지라도, 속의 공간이 좁다면 무용지물이다. 인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속이 넓은 사람이 되자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 허공을 발견하고, 그것을 밝혀나가는 것이 공부의 요체이다.

함허기화의 '임종게'

한 물건도 없는 가운데
한없이 신령스러운 빛
가득 넘치는 허공심 노래

허공이 머금을 때, 사람은 피리가 된다. 마음이 비면, 샘이 터지듯 법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속 빈 대나무만이 피리가 될 수 있다.

허공은 모든 것을 감싸기 때문에 한없이 크다. 아무리 해도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없이 단단하다.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한없이 편안하다. 모든 곳으로 통하기 때문에 한없이 자유롭다. 세상에서 변치 않는 것은 허공뿐이다. 알고 보면 허공만큼 장엄한 것도 없을 것이다.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허공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내 마음이 허공이라면! 내 밖도 허공이고, 내 안도 허공이면 얼마나 시원할까. 그동안 색(色)을 찾느라 공(空)을 등한시해온 것을 되돌아보게 된다. 사물에 마음을 뺏기고 그 빈자리를 욕심으로 채우기 바빠서, 고요히 비어도 절로 충만한 본래 마음을 잊고 살았다. 꽃도 예쁘지만, 그 주위의 허공도 볼 줄 알아야겠다. 그래야 색즉시공(色卽是空)이 되지 않을까.

무일물(無一物)이 곧 무진장(無盡藏)이라고 한다. 역설(逆說) 중의 역설이지만, 인류의 모든 스승은 그 점을 역설(力說)했다. 풍란처럼 허공에 뿌리를 내리고 청생을 살았던 함허 스님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겼을지 궁금해진다. 임종게를 찾아보니, 놀랍게도 '한 물건도 없는(無一物)' 가운데 한없이 '신령스러운 빛'이 가득 넘치는 '허공심(虛空心)'을 노래하고 있다.

고요히 비어서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신령스런 빛이 십방에 두루 비친다
몸과 마음 다시는 생사를 타고나지 않아
가고 오고 또 가고 와도 걸림이 없어라

■문학평론가

삶의 거울인 죽음을 통해 다시 읽어보는 우리출판사의 죽음에 대한 책!!!!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E-mail : wonbook@chollian.net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기억하라



명난자 지음 / 신국판 / 296쪽 / 값 9,000원

역사 속 인물의 죽음에 관한 기록들!

'역사 속으로 떠나는 죽음 기행'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약 100여 명에 이르는 역사 속 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뒷이야기들이 사실감 있게 그려져 있다. 죽음의 순간까지 옥중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소크라테스, 마지막 순간을 '야 참 좋다'며 삶에 대한 한없는 만족감을 표했던 철학자 칸트하며, 염반에 드는 순간까지 몸으로써 활구(活句)를 보여준 옛 선사들의 이야기까지 참으로 눈을 떼기 어려운 '아름다운 죽음'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다.

참된 철학자는 결코 죽음을 생각지 않는다.
철학자의 지혜는 죽음에 대한 명상이 아니라,
삶에 대한 명상이라고 말한 이는 스피노자였다.
그러고 보면 죽음을 탐구하러 나가
내가 만나게 된 것도 삶이었다.
그러니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적멸의 즐거움



정휴스님 지음 / 신국변형판 / 240쪽 / 값 7,000원

고승들의 즐거운 죽음 이야기!

'시신을 벌레들에게 나누어주고 부도탑도 만들지 말라'는 청황스님, '열반에 들면 시신을 숲 속에 두고 들불에 타도록 하라'고 말한 혜안스님 등 충격과 전율을 느끼게 하는 여러 선사들의 입적 과정을 그렸다. 또 물구나무서서 거꾸로 입적하기나 뜰 앞을 태연히 걷다가 오늘 떠나겠다고 말하고 극락이 눈앞에 보이지만 자신은 지옥으로 가겠다는 유언을 남긴 여러 선사들의 임종게 등도 소개하였다.

육신이 불에 타 흙으로 돌아가 근원이 된다.
흙으로 돌아가 다시 돌이 되어 태어나고
혼을 키우는 그릇 속에서 천년을 산다.
죽는 것이 어찌 즐거움이 되겠는가.
삶도 죽음도 적멸이 되어야 즐거움이 되는 것을
부도는 안으로 적멸을 키우면서
천년을 살고 있다.

-본문 중에서-

죽어서 詩가 되는 삶이 있습니다



정휴스님 엮음 / 신사특판 / 132쪽 / 값 5,000원

삶과 죽음을 초월한 선사들의 깨침의 노래!

중국의 선사(禪師)와 우리 나라 역대 선사들이 죽음을 맞아 토해낸 열반송을 정휴스님이 짧은 시 형식으로 풀이하였다. 나고 죽는 일에 초연해지는 것을 평생의 화두로 삼고 정진해서일까, 선사들은 죽음을 사랑하고 즐겼다. 죽음을 죽음이 아니게 하는 힘, 그것이 수행의 절정이라고 말한 스님의 글에서 불교사상의 정수 및 선(禪)의 진수를 느낄 것이다.

이 禪詩(임종게) 속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 같이 임종을 준비하는
떠남의 언어가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진리회귀의 영혼의 모음이 있으며,
앉아서 열반하기가 싫어 서서 입적하는
해탈의 몸짓이 있으며, 걷다가 문득 명상에 잠겨
보리수 잎을 잡고 입적하는 침묵의 언어가 있습니다.
비록 진리가 언어를 떠나 있다 하더라도
선사들이 남긴 임종게 속에는 해탈의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장스님 엮음 / 신국판 / 232쪽 / 값 6,000원

죽음과 환생 사이의 영혼을 제도하는 밀교와 정토의 가르침!

티베트의 불교인들은 생일 잔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것보다 죽을 날을 알 수 있도록 수행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여기 현장스님의 책은 잘 죽기 위한 가르침인 정토신앙의 왕생 해탈법과 밀교의 중음신 해탈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는 울었고,
내 둘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였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나는 웃었고,
내 둘레의 사람들은
모두 슬피 울고 기뻐하였다."

-린포체-

평생 역경 매진 … 스님 족적 담아

운허스님의 크신 발자취 신용철 편저



한국 불교계의 숙원이던 고려대장경의 한글 번역이 37년 만인 지난해에 완성됐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글대장경 완간회향 대법회'에 모인 사부대중들은 하나같이 번역 작업의 첫 걸음을 내딛은 운허 스님(1891~1980)을 떠올렸다.

〈운허스님의 크신 발자취〉(신용철 편저, 동국역경원)는 "한문이라는 울타리 속에 갇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반대중에게 쉽게 전달해야 한다"며 평생을 역경 사업에 힘쓴 운허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엮은 책이다. 스님이 설립한 광동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용철 교수(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장)가 2000년 다산문화제에서 발표했던 논문「운허 이학수의 생애와 사상」에 스님의 연보와 〈운허선사어문집〉에 실린 글을 골라 덧붙인 것이다. 또한 지은이가 평소 직접 찍었거나 수집했던 운허 스님의 사진도 실었다. 독립운동가로서의 운허 스님의 자취와 불문에 든 후의 철저한 수행자로서의 생애, 후학의 교육을 위해 힘쓰고 경전 번역에 평생을 바친 스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다.

교직생활을 하다 1921년 금강산 유점사로 출가한 스님은 이후 범어사, 개운사 강원을 거쳤으며, 1932년에는 봉선사에 불교강원을 설립하고 동학사, 해인사, 통도사 강원 등에서 강사생활을 했다. 이때 〈화엄경〉, 〈자비수참〉 등 20여권의 경전을 번역 출판했다. 근대 불교사전의 효시인 〈불교사전〉의 탄생 또한 운허 스님의 원력으로 가능했다. 입적 11년 후인 1991년에는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기도 했다.

생애 · 사상, 항일운동 · 교육자 모습 조명

저자가 직접 찍고 수집한 사진 · 자료도

1장 '운허 이학수의 생애와 사상'에서는 춘원 이광수의 육촌 동생이기도 한 스님의 출생과 교육환경, 이시열로 개명한 뒤 만주에서 펼쳤던 항일 독립운동 모습을 담았다. 또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역경사업을 펼치고 광동학원을 설립 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수행자로서의 모습 이외에 중생들과 함께 했던 일화들을 모은 2장 '운허스님의 큰 삶과 지혜의 향기'에서는 광동학원 교장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직접 삼각합수를 가르치는 모습과 광동학교 1회 졸업생에게 손수 써 준 졸업장 사진도 볼 수 있다.

3장 '운허스님의 글'에는 스님이 광동 교지에 기고한 글들과「독립신문」에 실렸던 만주지역의「한족신보」주필로 쓴 사설 '임시정부 개조에 대하여' 등을 실었다. 4장 '운허스님의 저술'에서는 근대 불교사전의 효시인 〈불교사전〉과 〈화엄경해제〉, 〈대반열반경해제〉 등 스님의 저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 있다.

5장 '기리는 글'에는 월운 스님의 '장엄한 낙조', 문하생들의 추모글,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 축사 등 기리는 글을, 마지막 장인 6장에는 연보를 실었다. 값 8천원.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저승-그곳 넘나드는 이야기 사나소 지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인간 생사에 관한 유별난 보고서'란 부제가 붙은 〈저승-그곳 문지방 넘나드는 이야기〉(사나소 지음, 이론과실천)는 '죽음'에 관한 책이다. 하지만 지은이는 죽음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불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종교에서 말하는 죽음과 신화, 민담, 무속 속에 스며있는 죽음에 관한 소재들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죽음의 의미를 되새긴다. '죽음은 단순히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일 뿐이며 누구나 그 경계

신화 · 민담속 죽음 통해 의미 되새겨

선인 '문지방'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된다면 이승에서의 유령의 배회쯤은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지은이는 그동안 터부시 되어온 '죽음'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서 벗어나 자연의 섭리로 이해하자고 말한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저승에 관한 이야기와 영혼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각기 다른 시선, 윤회와 영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4장과 5장에서는 죽음의 순간을 경험했다는 사람들과 소설 속 유별난 죽음을, 6장에서는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장례문화를 살펴본다.

지은이 사나소는 32년 동안 중앙일간지 기자와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던 언론인으로, 순수 한국 무속진언 '사나소서(살아나소서)'의 줄임말이다. 책에 실린 글들은 지은이가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연재했던 것이다. 값 1만원.

세계의 공동체를 찾아 조연현 엮음



일상의 굴레를 훌훌 털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한번쯤 꿈꾸는 소망일 것이다. 그 휴식이 바로 일상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과 몸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물며 깨달은 삶의 진리와 바뀌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간결하고 솔직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이 책에는 국내에도 잘 알려진 틱낫한 스님의 '플럼빌리지'를 비롯해 인도의 명상마을 '오로빌', 스리랑카의 '사르보다야', 무소유를 실천하는 일본 '토요사토' 등이 소개돼 있다.

플럼빌리지를 찾은 환경운동가 김병수씨는 "10미터 정도의 짧은 거리를 평균 3분내지 5분에 걸려 걷는 걷기 명상을 통해 빨리 걷거나 뛰는 것도 모자라 동네 구멍가게에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됐다"고 고백한다.

환경운동 · 생태탐험가들의 체험담

〈세계 어디에도 내 집이 있다〉(조연현 엮음, 한겨레신문사)는 황대권, 유정길 등 환경운동가와 생태탐험가 9명이 직접 세계의 대표적인 공동체에서 오랜 기간 머물며 얻은 체험담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미국, 스리랑카, 인도 등 전세계 8개 나라 13개 공동체 마을에 머

책을 읽으면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것 같은 독자들의 배려를 이미 눈치 챘기 때문일까, 미래의 탐방객들을 위해 각장마다 말미에 해당 공동체의 지도와 주소, 인터넷 사이트,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다. 값 9천5백원.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앙코르와트 불상 낯설지만 속에 담긴 뜻은 하나"



책과 삶

브랜드 나인 대표 심 인 보

여행 에세이 '앙코르 기행'

사진 · 짤막한 설명 곁들여

앙코르 와트.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문화의 대표적 유적으로 12세기 중반 경에 건립된 바라문교 사원이지만 후대에는 불상이 모셔지기도 했다. 지금의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인도양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한 앙코르 왕국의 멸망과 더불어 쇠퇴한 앙코르 와트는 건물마다 신화와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그곳을 기업이미지통합 디자이너 심인보(46, 브랜드 나인 대표)씨가 여행하고 〈앙코르 기행〉이라는 여행에세이를 펴냈다.

앙코르 와트와 그의 첫 만남은 짧지만 강렬했다. 앙코르 지역의 문화는 같은 불교문화권인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 문화와도 너무나 달랐다. 이후 앙코르 와트와 캄보디아에 대한 호기심은 커져갔다. 다시 앙코르를 찾은 그는 고대 문명이 남긴 인류 문화의 걸작 앙코르 와트와 그 주변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캄보디아인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왔다.

그렇다면 왜 앙코르 와트일까? 지은이는 "화려했던 과거의 거대문명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 문명과 신화들에 대한 개인적 호기심과 무엇인지 뚜렷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와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란 느낌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이국적이고 기이한 불상과 사찰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결국 불상은 그 지역 사람의 얼굴과 닮아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 "불상이던 사찰이건 겉모습은 다르지만 그 속에 담긴 뜻,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콜라 한 캔을 마시기 위해 졸졸 따라다니며 사진모델이 되어주기도 하고, 벌 소용도 닿지 않는 물건을 팔기 위해 부채질을 해주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느꼈던 슬픔은 곧 내전으로 인한 피폐한 삶 속에서도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캄보디아인들에 대해 애정으로 바뀌었다. 200여 장의 사진에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담고 사진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짤막하게 곁들였다.

5년 전 지금의 아내에게 보냈던 그림엽서와 자신이 좋아하는 재즈음악 이야기를 모아 〈지금 우리는 키스하러 간다〉로 펴냈던 그는 현재 미얀마 등을 여행하고 책으로 엮어보자는 제안을 받은 상태다.

"〈앙코르기행〉은 개인적인 감상을 담은 책이기에 아쉬움도 남습니다. 다음 책은 좀 더 많은 준비를 한 뒤 신중히 내보고 싶습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Anger)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관심	법 상	무 한
3	달라이라마의 아주 특별한 선물	달라이라마	청아출판사
4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 화 동	은행나무
5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류 시 화	김 영 사
6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임 근 동	솔 바 람
7	영가현도	우 룡	효 림
8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김 용 옥	통 나 무
9	틱낫한의 평화로움	틱 낫 한	열 림 원
10	꽃은 져도 향기는 그대로일세	명정 정성옥	예 문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학교로 간 붓다 최시선 지음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 잘난 척해서 왕따 당하는 아이, 가출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줄까?

〈학교로 간 붓다〉(최시선 지음, 시공사)의 배경은 '학교'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곳에서 붓다는 아이들 생활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한다. 가령 가출을 하더라도 가출해서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산에도 올라 보고 하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주위를 보는 시선을 기르라고 말한다. 또 인터넷 서핑을 해도 그냥 멍하니 앉아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필요한 정보도 얻고 재미를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너무나 사소하게 보이는 이런 변화가 어쩌면 청소년들이 원하는 관심과 조언이며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나아가게 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지은이는 말한다. 값 8천5백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장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남전 잡아함경, **쌍윳따니까야**를 아십니까?

오늘날 **인문사회과학에서 중요한 테마**가 되는 화두에 대해 부처님께서 경전을 통해 답변하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역사적인 부처님의 원음(原音) 가르침
한권으로 읽는 쌍윳따니까야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주요목차 소개>

▲삶이 덧없고 목숨은 짧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깨닫은 이는 특별한 말을 사용할까 일상용어를 사용할까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사회적인 부와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보아야할까
▲딸이 태어나면 실망해야할까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권력에 도취한 삶과 바른 인간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길일까
▲수행을 닦는데 성적 차별이 장애일 수 있을까
▲지옥으로 이끌지 않는 천국은 있을까 없을까
▲깨달음을 이룬 뒤 말씀하시길 주저한 까닭은 무엇일까
▲종교가 달라 적대감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무례한 말로 모욕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과의 합일을 원하는 종교와 불교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
▲스승과 제자는 서로의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탐욕과 미움은 어디서 일어날까
▲약자를 폭력으로 다스리는 정치는 옳은 길일까
▲왜 존재를 뛰어 넘어서 원인을 물어야 할까
▲불교적 인과원리인 연기의 일반법칙이란 어떠한 것일까
▲어떻게 생노병사의 세계를 소멸시킬 수 있을까
▲이 세상은 어떻게 생성하고 소멸하는가
▲연기의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 올바른 수행자가 되려면 무엇을 두루 알아야 할까
▲세계에 대한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무지한 자가 깨닫은 자라고 자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깨닫기 전에 부처님의 궁극적인 의문은 무엇이었을까
▲바다보다 많이 우리가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타인을 방문할 때 상대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탈한 수행승에게도 이득과 환대와 명성이 장애일까
▲수행자가 여인을 방문할 때 몸가짐을 어떻게 취해야 할까
▲나와 내 것이라는 교만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겁멋이 든 수행자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나
▲홀로 떨어져 수행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란 구엇일까
▲몸은 병들어도 어떻게 하면 마음은 병들지 않을까
▲누가 묻는다면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다고 해야 할까
▲시간의 악마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삶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끝없는 추론과 헤아림은 어디에서 옵까
▲수행승들이 말씀을 부리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제자의 죽음 앞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시대를 진지하게 성찰할 때 악마란 무엇일까
▲정신적으로 높은 경지에 들더라도 어떻게 생각해야·할까
▲일체의 세계란 무엇이며 경험 밖의 것을 말할 수 있을까
▲수행자는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세에서 유익한 까닭은 무엇일까
▲부처님께서 새내기 수행승에게 병문안가서 어떻게 하셨을까
▲사물이 감각되고 인식될 때에 나는 그 가운데 있을까
▲베다(天啓書)에 정통한 자의 참다운 뜻은 무엇일까
▲귀부인의 오만한 초대에 수행승은 어떻게 응했을까
▲거센 파도와 소용돌이가 있는 인간의 바다란 무엇일까
▲주관과 객관 그리고 욕망의 관계는 어떠한 것일까
▲부처님께서 괴곤하셨을 때에 어떻게 법문을 하셨을까
▲어떻게 우리가 신들의 밧줄과 악마의 밧줄에 묶일까
▲여성이 겪어야하는 고통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여성이 지닌 힘 가운데 가장 위대한 힘은 무엇인가
▲열반이란 어떠한 것이고 그것을 실현할 방도는 있는가
▲재가생활에서도 탁월한 앎과 봄을 성취할 수 있을까
▲죽을 죽이는 성스러운 전쟁은 정당한 것일까
▲단지 하늘나라에 태어나길 기원하는 제사는 옳은 일일까
▲수행자가 보석과 황금을 수용해도 좋을까
▲숙명론적인 업의 이론에서 윤리가 나올 수 있을까
▲윤회에 대해 이교의 스승과 부처님은 어떻게 달리 말할까
▲훌륭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
▲불사(不死)의 참뜻과 그 분사에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팔정도, 팔정도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모든 수행의 근본은 어디에 있고 그것은 무엇을 지향할까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병드셨을 때에 어떻게 처유하셨을까
▲참선은 절대적인가 마음의 조건에 따라 달라져야되는가
▲'나는 우월하다'는 자만이외에 또 다른 자만은 무엇인가
▲세속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슬픔과 비탄을 떠어넘는 하나의 길은 무엇일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 최후의 유훈은 무엇이었을까
▲보리수하에서 부처님께서 깨닫은 내용은 연기법만일까
▲부처님께서 자신의 늙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신통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고 그 목표는 무엇일까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신 마지막 순간은 어떠했을까
▲몸에 병이 들었을 때에 마음을 다잡는 방법은 무엇일까
▲부처님께서는 홀로 계실 때에 무엇을 하셨을까
▲세속적인 재가의 신자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을까
▲숟 마시는 불자에게도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을까
▲부처님을 따르는 재가의 신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혜로운 재가신도가 베푸는 법문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위없는 깨달음을 전하는 초전법륜의 내용은 무엇인가
▲괴로움을 보는 자는 괴로움의 소멸도 보는가
▲어머니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연장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생명을 죽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종자와 초목을 훼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호화로운 침대에서 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울을 속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폭행을 일삼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신국판 / 496쪽 / 값 18,000원

<빠알리성전협회에서 나온 책들>
쌍윳따니까야 전집(전12권) 300,000원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9,000원
신간 맛지마니까야 제1권 값 30,000원
범어문법학
빠알리어사전

※ 이 책은 불서총판 운주사(02-3672-7184)나 여시아문, 교보문고를 비롯한 주요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빔보시 주문도 받습니다.

부처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살아있는 오늘의 우리말로—
한국빠알리성전협회
Korea Pali Text Society
전화 02-2631-1381 팩스 02-2631-3770 kptsoc@kptsoc.org

근 · 현대 불교사연구 '구술사' 방법 도입해야

선우도량 토론회

최근 국내 역사학계에서는 문헌자료를 통해 얻을 수 없는 사실을 보충하기 위한 '2차 자료' 쯤으로 취급하던 '증언'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역사관의 등장 이후 90년대 중반부터 국내 역사학계에도 현대사 연구에서 증언을 단순한 2차 자료가 아닌 하나의 역사로 승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있어왔다. 구술을 통해 씌어진 역사, 이른바 '구술사' 다.

아직 불교계에서는 이름조차 낯선 이 구술사를 근현대 불교사 연구방법론에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회장 혜담)는 20일 '근현대 불교사와 구술사' 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선우도량이 지난 4월 발간한 불교계 최초의 구술사 자료집 〈22인의 증언을 통해 본 근현대 불교사〉의 평가를 겸한 이 자리에는 구술사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윤택림 박사(미래인력연구원, 인류학)와 이선형(서울대 박사과정)씨,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연구회 회원인 성전 스님과 철오 스님, 동출 스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의 관심은 과연 근현대 불교사 연구에서 구술사가 유효한가에 모아졌다. 일반 역사학계에서 구술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문헌자료를 남기지 못한 민중의 목소리를 통해 역사에 기록된 이면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 보자는 취지에서다. 반면 10년 남짓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근현대 불교사 연구에서는 아직 문헌자료의 정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연구자도 5~6명에 불과하다.

정사(正史)로 삼을 '교과서' 조차 없는데도 구술사가 유효한가란 물음에 대해 철오 스님은 "정리된 정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구술사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동출 스님은 "〈22인의 증언…〉에서 담은 종단 정화사만 보더라도 정화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미진할 뿐더러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다" 며 "당시 생존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더 절실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고 말했다.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는 20일 조계종 교육원 회의실에서 '근현대 불교사와 구술사'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헌사료부족 현실에 자료축적 큰 의미
검증 · 검토통해 학문적 객관화작업 필수

성전 스님은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화두를 던졌다. 구술이 과거에 개인이 경험한 일에 대한 현재의 기억이다 보니 과거를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기억의 편린들이 오히려 올바른 역사 인식에 혼란을 줄 위험은 없겠느냐는 것이다.

김광식 박사는 "자료 축적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고 전제한 뒤 "학문적 연구의 자료로 삼기 위해서는 씨줄, 날줄로 엮인 각종 회고나 증언의 비교 등을 통해 학문적 검증과 검토를 거친 객관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김 박사는 "그간 불교계는 각종 회고와 증언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면서도 학문적 작업은 생각하지 못했다" 며 "지금껏 근현대 불교사에서는 문헌적 근거를 갖고 나타난 역사와 구술에 의한 역사가 서로 섞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신화적 '입소문' 의 요인도 작용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발간된 〈22인의 증언…〉에 대한 평가에서 동출 스님은 "앞으로도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내는 게 중요하다" 고 말했다. 윤택림 박사는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특정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내린 상태에서 그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많아 구술자를 통제하고 있다" 고 했고, 이선형 씨는 "구술자가 아니라 주변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묻는 방식이 많아 구술자가 정보제공자의 위치로 하락하는 듯하다" 며 " '묻기' 보다 '듣기'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향완의 시대별 변천과정. 왼쪽부터 10세기 이후 13세기까지 4단계의 토착화 과정을 보여준다.

고려시대 유행했던 '향완'
당대 불교용 향로가 원류



◇기년이 새겨진 은입사 향완 가운데는 가장 오래 된 표충사 '대정17년(1177)명 금동은입사 향완' (표충사 소장).

범당의 부처님께 향을 피워 공양할 때 쓰는 향로는 필수적인 공양구 가운데 하나다. 특히 그릇 모양의 몸체에 나팔 모양의 높은 받침대가 있는 특이한 형태의 향로를 '향완(香碗)' 이라 하는데,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해 조선시대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사찰에서 공양구로 사용됐다. 고려시대 금속제 '향완' 은 은입사 장식이 표면에 새겨져 있어 뛰어난 금속공예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고려시대 향완은 어디에서 그 형태가 기원한 것일까? 아쉽게도 삼국시대 토기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만 추정할 뿐 구체적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경미(서울대 강사)씨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최근 펴낸 〈미술자료 68집〉에 기고한 논문 '고려시대 향완의 기원' 에서 "고려시대 향완의 형식적 기원은 중국 당나라 말기 오대시기에 사용되던 불교 의례용 향로" 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다단 받침대 · 주발형 몸체 통일신라에 전래
10세기후 4단계 토착화과정 거쳐 현상태로

주 씨는 고려시대 향완의 형태에 대한 기존 학설이 한반도에서 출토되거나 전래된 유물만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하고 현존하는 8세기 이후의 중국 향로와의 비교를 시도했다. 현존 유물은 아니지만 둔황 막고굴 벽화에 표현된 불교의례용 향로의 형태 변화와 불교조각이나 기와에 표현된 통일신라 향완까지도 비교 대상에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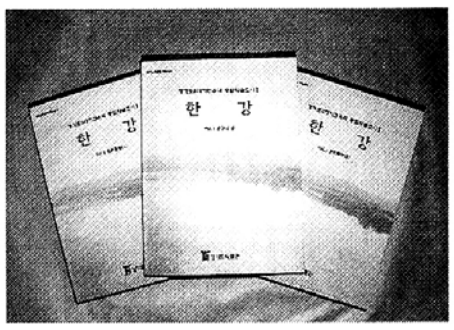
그 결과 주 씨는 "기본적인 형태는 토기에서 발달했지만 실질적인 향완으로의 발전은 중국 당나라 말기 오대 시기에 사용되던 불교 의례용 향로의 영향이 크다" 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 당대 향로에서 보이는 다단형 받침대와 주발형 몸체 등의 형태가 통일신라 말기부터 한국에 전해졌으며, 10세기 이후 4단계의 토착화 과정을 거친 후 12세기 중반 무렵 현존하는 향완과 같은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향완의 표면에 각종 문양을 새겨 넣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주 씨의 이런 주장은 지금까지 향완이나 향로 연구에 있어 공백기로 남아 있던 9~12세기를 메웠다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 현존하는 향완의 대부분이 12세기 이후 제작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한강유역 불교유적 56개소

경기도 박물관 종합학술보고서 '한강' 발간

한반도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한강 유역에는 불교유적 56개소를 비롯해 고고유적 172개소와 관방유적 64개소, 유교유적 330개소 등 모두 646개소에 898개의 문화유적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강 유역의 자연·인문 환경과 문화유적, 민속문화를 집대성한, 경기도박물관의 종합학술보고서 〈한강〉(사진)에서 밝혀진 것이다. 경기도 가평군과 남양주시, 여주시, 이천시, 광주시, 양평군, 하남시, 구리시, 고양시, 파주시 등 한강 주변의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001년 3~12월 조사가 이뤄졌다.

불교유적 가운데는 사적 382호인 고달사지 등 절터 19곳이 포함돼 있으며, 국보 4호 고달사지 부도를 비롯해 29점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특히 국보 1점, 보물 11점 등이 지역 국가지정문화재 12점 전부가 불교문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경기도유형문화재 10점과 기념물 3점, 문화재자료 4점 등 17점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국보 1 · 보물 11점 등
지정문화재 12점

기존의 조사보고서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불화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불화의 도상이 무슨 내용인지를 밝히고 화면구성, 필선, 색조에 대한 특징을 통해 제작연대를 추정했으며, 몇몇 불화는 불화를 그렸던 금어(金魚)에 대한 설명을 붙였다.

김기덕 강사 주장
"불교관련 인문학 자료 디지털화 기초단계부터 전문가 참여 필요"

용어표기 · 체제 통일작업 선행토록
다른 판본 · 번역본과 호환성 지녀야

이민희 교수

고려대장경 전산화본, 한글대장경 전산화 작업 등 불교 관련 인문학 자료의 디지털화는 시대적 추세다. 그렇다면 불교 관련 인문학 자료를 어떻게 디지털 자료화하고 활용할 것인가.

마침 역사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15~18일 개최한 '2002 역사학 국제회의' 에서는 역사학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 현황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17일 '역사학의 활용과 문화 콘텐츠' 주제 분과에서 김기덕(건국대 강사)씨는 "단순히 고전 자료를 전산 입력하는 단계를 넘어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등 문화산업으로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의 정보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역사자료의 디지털화 단계를 '기초자료의 정보화→활용→문화산업에서의 재창조' 의 단계로 나눈 김 씨는 "현재의 수준은 아직 정보화와 CD-ROM 발간 등 단순 활용에 머물고 있다" 며 "이마저 인문학자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다 보니 학문적 성과와는 다르게 왜곡되는 경향이 많아 인문학 전문가들의 참여가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이민희 고려대 연구교수는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화의 성패 여부는 시스템의 기능보다는 자료의 정밀성에 의해 좌우된다" 며 "유용한 정보 검색을 위해서는 용어 표기나 체제를 통일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디지털화 작업의 결과물들이 다양한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 동일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며 "다른 판본이나 번역본을 디지털화 하더라도 기술적 측면에서는 상호호환성을 지녀야 한다" 고 말했다.

김기덕 씨는 역사 자료를 문화 콘텐츠로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희소식
梵 鍾

범종이 스스로 운다(自鳴梵鍾)!!
아직도 잠자는 범종은 없습니까?
아직도 울리지 못하는 범종은 없습니까?
범종은 있으나
칠 사람이 없는 범종은 없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 던지십시오.
울어라! 한번만 命 하시면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원 하시는 시간에!
원 하시는 횟수대로!
영원히 크고 크게
울려 메아리 칠 것입니다.
離苦得樂을 이루고!
破邪顯正으로 맑고 밝은 氣運이!
부처님 眞理를 宣揚할 것입니다.
*年內로 하시는 寺刹은 염가로 해 드립니다.
시스템 시설은 선착순 입니다.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부영공업사 특수기계제작부
대표 신 현 직 부처님 품에서 發願祈禱!!!

☎ : 033-562-1535
H · P : 011-369-2732

당뇨·고혈압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일부는 달이고 일부는 볶아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불편이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거친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꼽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점차 없어집니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개월분 ₩150,000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 인 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

수행의 테크닉 비법 수련
(불교 수행 지도자 과정)

◆ 참선, 위빠사나, 염불, 독경, 사경, 단전호흡 수행자가 중단전 차크라가 막혀 상기되어 머리 뜨겁고 아프고 가슴 답답하고 명치 뻐근하고, 목이 막힌 현상을 스스로 간단히 뚫수있는 비법의 테크닉을!.
◆ 컨디션이 좋을 때 처럼 항상 머리, 이마, 눈은 시원하고 몸은 따뜻한 수승화강을 20분 이내에 누구나 스스로 체험!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와선, 간단한 동작을 취하면 저절로 복식 단전 호흡이 되는 비법만이라도 배우시면 허리디스크, 상기병, 불면증, 우울증, 당뇨병, 홧병, 수족냉증, 두통, 감기몸살, 피로를 단시일에 극복하게 되는 확신을 자신있게 드립니다.

※ 수련내용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참선, 염불, 독경, 위빠사나 (동국대 임승택 박사의 실참실수), 행선, 와선, 자동단전호흡, 부처님 감사수행, 업장소멸 진참회, 혼침 꿈극복, 도인체조 108의 테크닉을 단계별로 철저히 배움

■ 일 시 : 2002년 9월 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3시
● 장 소 : 서울 강남 청담동 늘봄공원 시네하우스 뒤 청호불교문화원 7층 대법당
■ 대 상 : 누구나 (불교교양대학이상 수료자 우선순위)
■ 문 의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법 왕 정 사
■ 전 화 : 031) 771-7745 · 6736 · 7038
011) 9088-7745 · 011) 416-2354

음양체형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서울 서초구 소재 보현정사(주지 보현스님)에서는 현대의 선·후천성 기형, 비만, 체형의 변화에서오는 병상증들이 음양체형관리에 의하여 건강을 되찾고 체력, 활력이 개선되는 것을 체험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은 물론 양로원, 장애인, 고아원 등의 소외된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스님의 수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음양체형관리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음양피부체형연구회 홈페이지 www.skin-reform co.kr(com)/음양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 육 안 내

▶ 모집기간 : 수시모집
▶ 교육기간 : 매주 수요일
오전반 AM 10 ~ PM 12시 30분
오후반 AM 7 ~ PM 9시 30분
▶ 교 육 비 : 보현정사 추천에 의하여 무료교육
▶ 교육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9-4
진솔빌딩 B1
(주)음양피부체형연구회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직장재직증명서1통 (전업주부아닌 경우)
▶ 상담 및 문의처

보현정사 포교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6-7호 이화빌딩 5F
전화번호 : 02)583-1080, 02)521-1415
H · P : 016)321-1080

※ 현 피부미용이나 비만 체형관리실 운영하는 분은 제외

한 철 사는 동안 벗어나야…

노력 않고 차원 높아질 수 없고

노력 않고 여여하게 살 수 없다



그림 · 최주현

인욕은 참는 게 아니라 일체를 둘 아니게 보고 모든 것을 놓아 가는 것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문 스님, 평소 때 마음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일을 주인공에 믿고 놓는 식으로 공부를 한다지만 별 다른 일이 없는 때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합까요? 그저 단순히 명상에만 잠긴다고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닐테고요. 조금이나마 주인공을 느끼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주인공,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당신이다.' 라고 관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답 앉고 서고 먹고 자는 생활을 물 흐르듯이 해나가면서 그렇게 하게 하는 놈이 누구인가를 놓치지 않고 계속 지켜봐야 하겠죠, 친밀하게 믿고. 배워나갈 때에는 이 이름 찾고 저 이름 찾고, 이 사람이 이러면 이렇게 듣고 저 사람이 저러면 저렇게 듣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걸 들더라도 그것을 듣게 한 그 자리에, 잘 된 것이 있다면 감사하게 돌려놓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되는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좋게 돌아가도록 다시 그 자리에 돌려 놓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책을 보더라도 내 주인공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을 보게 되는 거지 내 근본이 없다면 어떻게 책을 볼 수 있겠습니까?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모두가 다 근본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놔질 때는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된 게 없어지듯이 그렇게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하는 게 다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인간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사찰에서, 절에서는 재사를 지내면 항상 헌식을 하는데, 밥과 과일 떨은 거를 넓은 돌 밑에 놔두면 벌레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뭇 생명들을 위해서 갖다가 놓는 겁니다. 그런데 큰 구렁이가 돌 밑에서 그걸 받아먹으면서 한 이 년 남짓 살다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부처님 찾는 거나 똑같이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나와서 먼 산을 보고 있는데 돌 밑에 있던 구렁이가 나와서 하는 소리가 '스님처럼 저도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거는 도승들이나 듣지 보통 사람은 못 듣죠. 그러니까 '될 수도 있지만 그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넘기겠느냐?' 하니까 '죽더라도 꼭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말씀이, '3백 명을 꼭 교화를 시켜서 이 도리를 가르쳐 줄뿐만 아니라 법당에서 스님이 법을 설하거나 또는 예불을 올리거나 하면 항상 그 분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들을 수 있겠느냐. 셋째는 삼 년 동안을 이슬만 받아먹고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더랍니다.

그러니깐 그 구렁이는 그것 보다 더한 거라도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슬만 받아먹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헌식하는 것도 그때서부터는 안 먹고, 자기 동료들을 교화시키려고 애를 썼답니다. 끄트머리에 한 가지 또 뭐라 그랬느냐 하면, 장독대에 가서 장을 얻어먹을 수 있어야만 된다. 사람이 먹는 장 방울을 얻어먹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항아리를 넘어 들어가서 먹는 게 아니다. 장을 뜨러 왔을 때에 떨어지는 방울을 먹어야 마지막에 인간으로 환토할 수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스님이 말씀 한 거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노력을 안하고 그 뜻을 배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노력하지 않고 차원이 높아질 수도 없고 노력 않고서 스스로 여여하게 살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구렁이는 그걸 이겨냈답니다. 이겨내서 거길 떠나지 않고 공양주가 간장을 뜨면서 떨어뜨린 거를 받아먹으려고 기다리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한 번 받아먹고 또 한 번 받아먹고 세 번 받아먹는 데에 삼사 년이 넘었단 얘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깊은 의지와 깊은 뜻이 거기 서려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렁이는 사람으로 인도환생을 하는데, 그것도 뼈다귀만 남아가지고 너무나 애절하게 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벗고 인간으로 환생을 하는데 그 스님이 인도를 했답니다. 자손 없는 집으로 인도를 한거죠. 그거는 부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기에는 황당하게 들릴지 몰라도 부처님의 연기법이라는 것을 허투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습 하나 벗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다. 토끼라면 토끼 모습을 벗기가 어렵고 새라면 새 모습을 벗기 어렵고, 인간이 되는 데는 부처님 경지에 이르러서야만이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돼 가지고도 99%가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사람이 소로 살다가 그 소의 습을 놓지 못해서 도로 소로 태어나고, 사람도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살다가 보면 회향을 잘 못해서 도로 중세계 차원의 삶에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철 사는 데에 우리가 지금 궐연적으로 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깨우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불기둥이 자기를 움죽거리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고 자기 몸뚱이는 거기에 수레와 같이 중심을 끼어서 돌아가니 불성은 움죽거리진 않아도 항상 힘을 배출해 줍니다. 우리는 이 옷을 벗을 때까지라도 열심히 해서 차원과 모습과 또는 삶을 다시금 나올 때 고통받지 않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을 건져주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거를 막론해 놓고 잘하든 못하든 상대가 좋든 나쁘든,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놓고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놓되 한 군데다 놔야 합니다. 우리가 나온 구멍이 그 구멍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구멍도 그 구멍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자체도 없는 자유 자재권을 인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인욕바라밀을 실천하려면…

문 부처님 전에 오계를 받고 참다운 불자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저도 모르게 보고 듣는 것들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음탕하고 망칙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러면 안되지.' 하면서 참고 인욕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참는다고 다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오계를 받은 불제자로서 오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인욕바라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 가르침바랍니다.

답 내가 항상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시공이 없이 돌아간다고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업보 불을 자리가 어디 있고, 아니, 마음이 쉴 자리가 어디 있고, 또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정맥 · 동맥이 돌아가듯 그냥 막 뛰고 돌아가는 판국에 뭐가 붙을 자리가 있느냐 이 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 나온 관습에 의해서 잠재해 있던 것이 일어나죠? 또 바깥에서 보고 듣는 대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 자체를, 그것이 망상이다 업보다 이러지 마시구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100%의 잠재력이 있다면, 자꾸 생각이 나와야, 요것도 나오고 조것도 나오고, 요것도 보고 조것도 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나올 수 있어야 목석이 아니지, 그리고 성불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 아니 요런 생각 조런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면 목석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바로 자생중생들이 자꾸 생각을 나오게 하는 건데 그 나오게 하는 것을 업보니, 무슨 망상이니 이러고 퇴박을 하니까 '에이, 망상이라 그러는데 망상 좀 실컷 해봐라.' 이러곤 그냥 망상으로 밀어 가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공부하려면…

문 마음공부를 하면서 내가 몸을 받아 있을 때 나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게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도, 내가 죽어야 나를 볼 수 있다는 스님의 법문 또한 가슴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이것도 저의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주위 사람들도 다 같이 마음 공부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램인데 어떤 때는 답답한 생각이 들어 설명도 해 보지만, 이런 것도 다 놓아야 되겠죠? 모든 게 다 나 아님이 없다는 스님의 말씀처럼 둘이 아님을 알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 보렵니다.

답 집집마다 어떤 경우에는 부인이 안 따라오는 분도 있고, 또 남편이 안 따라오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걸 강제로 하면 부러지고, 또 너무 느긋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강도를 맞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전자보다 아주 달라져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남편이 안 따라오더라도 부인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고 자비를 베풀고 전자보다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면 처음에는 얼마 동안이고 모르다가 '내 아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거기가 어딘가 한번 가봐야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달라졌을 때는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생각은 하는데도 자기가 세웠던 자존심이 허락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저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그거를 따로 보지 마세요, 언제나. 따로 보지 마시고 항상 '내 마음이 이러니까 네 마음도 둘 아닌데 이렇게 되겠지.' 하고 믿어요. 믿고 거리감을 두지 마세요. 나를 안 따라온다는 거리감 말입니다. 여여하게 그냥, 안 따라 온다는 생각도 다 그냥 놓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착이거든요. 그걸 다 놓으세요, 그냥. 모든 것을 주인공을 믿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면 스스로 돼요.

그래서 이런 인연 만나는 거는 천 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얼른 닿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재주를 부려야죠. 그렇게 해서 공부하게끔 건수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수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너무 잘못되게 하면 지레 겁을 먹어서 안되니깐 편안하게 오게끔 자꾸 건수를 만들라는 얘깁니다. 당신이 다리를 놓지 않으면 누가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생각만 잘하면 올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생각을 잘해도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을 마음대로 응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을 붙들고 통하게끔 해야지 몸을 붙들고 말로 하고 몸뚱이를 끌려고 그러면 끌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끌어야 되는 거지 아무리 말로 하고 몸뚱이를 끌려고 해봤자 자꾸 달아나가는 걸요. 요리 핑계 대고 조리 핑계 대고 그러면서요.

자식들이나 형제들이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럴 때도, 또 도둑질이나 하고 아주 나쁜 일을 하고 다니거나 이래도 그거를 사해줘야 하고 들어오려고 하면 그거를 관해줘야 돼요. 그리고 본인한테는 나쁜 말 하지 말고 나쁘게 행동하지 말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붙들고 '둘이 아닌데, 주인공 둘이 아닌데 너도 마음에서 잘 이끌어갈 자격이 있데 그걸 구정물이다 맑은 물이다, 똥물이다, 흙물이다 그러지 않고 그냥 어느 물이든 다 받아들이고 어느 물에든 다 젖는 다는 것이 바로 그거다. 이런 물 저런 물 따질 것이 없이 그냥 하나로 젖는다. 어떤 거든지 다 젖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억지로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가 탐심도 없고 집착도 없고 또는 남을 모함하지도 않고 둘로 보지도 않고 모든 걸 그렇게 해나간다면, 공심으로서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게 없이 되는 거죠. 내 아픔같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인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참는 게 인욕이 아니에요. 참는 것이 인욕이라고 그러면 안되죠. 놓는 것이 그냥 인욕이에요. 놓는 거, 내가 찾으라고 그러지 않고 '놓아라' 이랬죠.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찾는다면 둘이 되니까 그냥 놓아라. 너한테 보림해라. 네가 너한테 보림해라. 그래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놓는다고 한 겁니다. 일체를 나의 근본과 둘 아니게 보는 마음으로 하나로 모아서 모든 거를 한 구멍에 놓아 나간다면 그대로 그것이 인욕이고, 참다운 계를 받은 바 없이 받은 것이 되고, 지킨다 안 지킨다가 없이 그대로 모든 도리를 스스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가피를 받을 수 있다는데…

문 스님의 법문을 알게된 지 십 수년이 지났으나, 근기가 낮아서 그런지 주인공을 찾다가도 화두 참선을 하거나 최근에는 염불 참선을 하기도 하는 등 계속 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많이 맴돌았습니다. 최근에는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하는 일들마다 좋지 않아 염불을 많이 하여 벗어나려 하였으나 하면 할 수록 가슴만 답답해지며 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주인공에 간절히 맡기고 관하자 마음이 편해지고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법문 중에 여러 불보살을 밖으로 찾아서 기도하다가 잘못되기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스님의 법문은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은 우주 최고의 음이고 진여불성 자리이기 때문에 간절히 할수록 가피를 많이 입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답 살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때는 생활에서 짓밟힌 것 같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은 떳떳하고 도도하기에 자기를 유(有)의 법이나 무(無)의 법이나 도도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득을 못하면 '이렇게 되니깐 이거 큰일났구나.'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내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죽든 나가서 죽든, 병이 들어 죽든 나한텐 아랑곳없다. 네가 끌고 다니는 거니까 알아서 해.' 하고 놔을 때에 비로소 주인이자 나를 끌고 다니는 시자가 되니, 이 몸뚱이는 시자라 그랬는데 마음이 주인이자 또한 시자거든요. 시자이자 주인이고, 둘이 아닙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주인공이 바로 자기 시자이자 주인이자 부처이자 자유인입니다.

기도나 염불을 하는 것도 바깥으로 끄달리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는 있죠. 그렇게 될 수는 있으나, 버스 지나간 뒤에 버스를 타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옛날에 어떤 스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인공!"하고 불렀습니다. 부르고는 "너 아침 공양했느냐?"하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신이 또 대답을 했습니다. "식기 닦았습니다."하구요. 그러니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발 떼어놓고 한 발 없어졌는데, 또 한 발 떼어놓고서 한 발이 없어졌기에 "밥을 먹었느냐?"하니까 벌써 "식기 닦았습니다."이거예요. 벌써 한 발 떼어놓고 말입니다.

그런데 염불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염불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염불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한다면 몰라도, 물론 시간이 초월이 돼서 빠르고 더디고가 없다고 하지만, 염불을 해서 그것을 이룰 양으로 애쓰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건 더디다 이거죠. 벌써 밥을 먹고 식기를 닦았는데 식기 닦은 뒤에 밥을 먹었느냐 하는 격이니,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간 뒤에 버스 찾는 격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불을 한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참선을 한다, 기도를 한다.' 하고 그 내가 붙는다면 더디 가는 길이다 이겁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저것 기웃거리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앞에 가로막힌 그 벽을 뚫고 나갈 수도 없고, 모든 상황이 나를 죄어 온다는 생각이 들 때에, 아주 급박할 때에 오히려 공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게 급박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만들어 놓는 것도 바로 자기 주인공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자기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도 만들었는데 그 자기가 또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한다는 것을 얼른 알아야 합니다. 공부를 잘해' 하고 자꾸 관하면 주인공 자리에서 그거를 이끌어줘요. 그렇게 해야 만이 거기에 선도 닿고 그렇다는 것을 믿고 부드럽게 하면서 스님네들한테 관하는 법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자꾸 마음을 이끌어 줘요. 그러다 보면 인연이 되게 돼있어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과거로부터 인연이 없었으면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돼야 이끌어지는 거지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안 되면 상당히 오래 가게 돼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이 마음공부를 필연적으로 해서 자활(自活)을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 18면으로 계속

☞ 17면에서 계속

믿음의 끈 놓지말고 한번 더 관하세요



그림 · 최주현

시키는 거라구요. 그러기 위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상황에 부딪쳤을 때에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겁니다.

색(色)으로만 생각하고 사량으로 생각한다면 당장 죽겠으니까 내가 어떡하든지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런데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내 주인은 어떻게 빠져나가나 그걸 보느라고 벌써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량으로 빠져나가려면 저 창문이 문인 줄 알고 그냥 나가려고 애를 쓰는 벌이나 같은 형국이거든요.

그렇게 급박할 때 모든 걸 다 맡겨 놓는, 그것이 바로 내 대로를, 벽도 없고 봇장도 없이 그냥 확 뚫어 버리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생활이 가난하지도 않고 몸도 건강하고, 친구들도 많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있어 모든 게 풍족한 사람들은 답답한 일이 당장 눈앞에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 주인공을 찾고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는 아예 그냥 죠아서 꼼짝못하게 만들어 놓는 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홀랑 껍데기를 벗고서 우주 바깥을 벗어나가나,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를 쓰고 그 껍데기를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나 그걸 보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니 참 묘한 이 이치를 내 생활에서 그대로 재료로 알고 맛을 보고 가는 계기로 삼으신다면 크게 쉬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정말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말고 한 번 더 크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마음으로 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간에 섭섭한 일

문 저희 집의 부모 형제간에 섭섭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남달리 우애가 깊은 편인데 사소한 일이 생겨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언니와 엄마께 섭섭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려, 주인공을 의지하려 애를 써보아도 섭섭한 마음이 항상 듭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히려 남 같으면 잊어버릴 수 있을 텐데 각별한 부모 형제지간이라 좀체 지워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저한테 마음을 깨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 가족으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그건 피치 못할 일이지요. 전자에 인연이 있으니까 만난 인연들이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인연이 있고 없고 간에 차원대로 만나는 인연이니까, 예를 들어서 금차원이라면 금끼리 모이게 돼있고 무쇠차원이라면 무쇠들끼리 모여서 살게 마련이거든요. 한가족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인연을 말하지만 모두가 줄줄이 매달려서 돌아갑니다. 인연이 없다고 한다면 독불장군도 있으련만 인연에 따라서 모두 공생을 하면서 공용하면서 공체로서 공식화하고 돌아가니까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나쁜 인연을 짓기도 하고 좋은 인연을 짓기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뭐가 잘못되면 부모의 탓을 하고 조상의 탓을 합니다.

그런데 각자, 가족에 대해서 상대방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각기 자기 탓을 해야죠. 자기가 그 자리에, 같은 차원에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잘했든 못했든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지, 내가 없다면 무슨 상대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내 탓으로 돌리고 지극하게 근본자리에 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회를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녹이는 거지 끊는 게 아닙니다. 끊는 거는 다시 이어질 수 있지만 녹이는 것은 돌이 아니게 녹이는 까닭에 아주 해말갛게 녹는 겁니다.

그렇듯 인연에 따라 만난 것일 뿐인데도 부모라는 생각, 형제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저런 기대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 또한 자기의 소견이지 상대방 본래의 일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그 기대 때문에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그 자리에 놓으세요. 그래야 형제라는 집착, 부모라는 생각에서도 한 발짝 벗어나 편안하게 대하게 됩니다. 높고 낮음을 다 둘로 보지 않고 일체를 다 놓고 사는 사람, 여여하게 그냥 놓고 갈 뿐이고 들을 뿐이고 볼 뿐이다 하는 그런 사람한테 열쇠는 맡겨집니다. 그러니 그런 괴로운 생각들이 이 공부를 해나가는 데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지극하게 관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만물 모든 생명이
내 한 생각에 움직이는
마음의 묘법 터득하기를…

바깥의 요인에 대해서…

문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깥의 요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외부의 자극, 대개 이것이 매개체가 되어 마음은 폭발하게 되는데 왜 부처님은 그것에 대허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문득 질문을 드리다 보니 답까지 떠오르는 것 같지만 아직은 설익은 수박입니다. 외부는 외부가 아니다, 종국에는 외부마저 사라져 버린다. 그것이 바로 진아입니까.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에 관해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불교라고 할 때 '불(佛)'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요, '교(敎)'는 우리가 지금 서로 말하고 배우고 또 화목하게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한 포기도 생명은 똑같으니 불교 아닌 게 없고, 모든 부모 자식지간 또는 형제지간도 다 똑같습니다. 벌레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고 이 세상만사의 살림살이가 우리의 근본 마음에 가설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물질세계의 50%만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부서지고 깨지고, 변하고 없어지고,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이라고 하는 이치입니다. 사람 살아나가는 도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직결되어 있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나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 없는 불 바퀴가 돌아가고 별성들이 반짝거리며 돌아가는데 우리 몸 속에도 조그마한 별들이, 그것들을 생명들이라고도 하고 모습들이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하죠. 그 의식들이 전부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몸은 금방 쓰러질 겁니다. 그야말로 송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들은 어디서 생겼나? 인과성으로 온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살던 인과, 즉 말하자면 악과 선이 전부 여러분 속에 있으니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는 화가 치밀기도 하고 타의에서 들어오는 유전성이나 세균성, 영계성, 업보성, 인과성 모든 것이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전부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을 본다면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것이요, 지금 행동하고 가는 것을 가만히 본다면 미래가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시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악과 선은 뭉쳐져 있어서 그것을 고 · 집 · 멸 · 도 사제법에서는 고(苦)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덩어리를 누가 만들었나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 짊어지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생 공용 공심 공체 공식화하고 조화를 이루고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라고 유별나게 붙일 것이 있겠습니까? 다같이 말했고 다같이 생각하고 다같이 행동한 것인데요, 거기에 무슨 나가 따로이 붙겠습니까? 혼자 짊어졌다고 한다면 그냥 혼자 나타나는 거죠, 말도 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말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고 붙이는 생각을 바꿔보세요. '더불어 같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가는 것이, 마음은 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자체가 모두 발자취를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취마다 없어집니다. 모든 게 공해서, 말을 했으면 과거로 금방 금방 들어갑니다. 생각 한번 잘하면 구덩이에서 빼낼 수도 있고, 생각 한번 못하면 구덩이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음만 말씀하시고 바깥의 것은 말씀 안하신 것이 아니며,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공심에서 한 생각으로써 놨다면, 합이 없이 놨다면, 바로 그것이 우주 전체가 먹고도 콩 한 조각이 되 남아서 여러분이 먹게 되고도 되 남고 또 먹고드 되 남는 그런 도리를 마음 하나로써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지만물 모든 생명이 내 몸 아님이 없어서 모든 것이 내 한생각에 모두 움직이는 이 마음의 묘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 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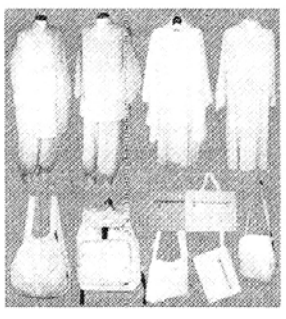
특허

BBS 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 • 법복 • 잠옷 • 바랑 판매 안내

불교계와 저희 기원섬유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고급모직 (특징 - 통풍 잘됨, 가볍고 구김없음,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2. 쿨맥스 (특징 - 품질 가장 우수함, 수분 발산율이 빠름, 구김없고 아주 가벼움, 물세탁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80,000) (동방바지 : ₩170,000) (두루막 : ₩150,000)
3. 특수직 (특징 - 제일 가볍고 시원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40,000) (동방바지 : ₩130,000) (두루막 : ₩110,000)
4. 아포텍스 (특징 - 몸에 붙지 않으며 까칠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60,000) (동방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5. 광목 (특징 - 순수한국산, 손염색, 멋을 가진 승복)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30,000)
6. 장삼 (조계종, 태고종) - 춘추, 하절기(가사도 주문 받습니다.)
(고급모직 : ₩220,000) (특수직 : ₩200,000)
7. 셔츠 (차이나, 라운드) : 가볍고 시원하며 물세탁 가능 : ₩30,000)
8. 걸망, 바랑, 나들이가방, 손가방, 보조가방
9. 가볍고 예쁜 법복(회색, 밤색) : 조끼 바지 : ₩65,000

하절기 시원하게 보내실수 있게 저희 기원섬유가 책임지겠습니다.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십선(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팔란을 소멸합니다.

◒ 잠옷(항균처리) - 남, 여(상, 하) : ₩65,000
특징 : 1. 특허청에 의장 등록된 옴자, 연꽃무늬가 은은하게 들어있음(제0246178호)
2. 항균처리된 제품
항균처리란? 각종 박테리아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청결한 몸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특수제품 임
3. 고급순면으로 촉감이 아주 뛰어남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02호
TEL : (053)764-4114 H·P : 011-9850-4400
지역 판매점 모집

고차원치유에너지 활용법 전수! 이제 전세계 비만인의 고민은 사라진다!!

비만완전탈출!! 지도자모집

세계최초 부산에서 전격 지도자 양성. 질병으로 변형된 DNA를 정상적인 DNA로 복원시키는 체계화된 학문교육, 약이나 氣등의 도움이 없다.

대 상
◆ 가족의 난치병 간호에 고통을 겪고 계신분
◆ 해외이민 희망자
◆ 先見之明의 지혜를 가지신 남 · 녀
◆ 인기폭팔 비만 및 피부미용 샵 운영 예정자

교육과정
◆ 비만 및 난치병 조정법 6일간의 속효 조정법으로 최고의 고등본능 방법술 전수
◆ 심이종 지능과 심이종 의식 구조학의 고난도 책응함방법 전수
◆ 부작용이나 요요현상이 없다

본학문을 전수받고 난후 당신은 아래와 같은 능력자가 된다!

1. 배운대로 하면된다
(살찌게 하는 DNA를 교정, 마르게 하는 DNA를 교정)
2. 피부가 더욱 아름다워진다
3. 상대를 하루 1~2시간 6일을 조정해주면 된다
4. 6일 이후 부터 비만 당사자는 자율적으로 자기본래의 표준골격을 되찾기 위하여 불필요한 체지방을 몸밖으로 자동배출 하게 된다. 부분비만은 물론 제아무리 거구의 비만인이라하더라도 옛날에 입었던 옷을 꺼내입게 된다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 놀랍다! 과연신기하다! 라고들 하나 믿기 어려운 기적같은 현실임)
5. 감기도 암도 같은 맥락에서 원상회복된다
6. 난치의 비정상 세포를 몸밖으로 배출시키고 복원시키는 비전의 학문을 전수받으시기 바람

※ 종교와는 무관하며 이법을 세상에 보급할 때가 되었으므로 지도자를 양성하며 인연닿는분 필히배워두시길 배워두면 성공한다!

문의처 부산시 진구 전포 2동 608-1
051) 805-3568~9 019-831-8351

高次元治癒에너지 人體適用硏究學會

깨달음은 이루어진다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관념과 이론이 아닌 구체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체계적인 수련 방법입니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분명합니다.

- 일상 피든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부족함 없이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할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
- 무상 무념과 삼매를 언제나 이루고자 할 때
- 생사의 두려움에서 초월하고자 할 때
- 영적 장애에서 벗어나 스스로 해결 확인하고 싶을 때
- 근심, 두려움, 좌절, 미움, 원망과 온갖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수련과정 -

本 性	참마음, 無心, 無我, 無分別智, 죄책감 소멸, 實體없음, 時空없음,
無碍法界	不空, 眞空妙有, 寂照現前, 無分別後得智 無上覺, 無碍自在, 업장소멸, 마음의 휴식 영적문제해결
無上覺	거듭남의 비결, 삶의 기쁨 원하는대로 이루는 법칙

깨닫기 위한 수행과 깨친 후 지속적 유지를 위한 수행 중 어느 것이 지혜로운가?

총마음 禪林院
033)435-3166 435-6166

"구입해서 한 번도 못 입은 수영복입니다. 제 예쁜 수영복이 옷장 속에서 나와 새 주인도 찾고 그 수익은 좋은 일에 쓰이라고 '아름다운 가게'에 내놓습니다"

자신에게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을 기증받고, 그 판매 이익금을 그늘진 곳의 사람들을 위해 쓰는 비영리단체 '아름다운 가게'가 문을 열었다.



◇아름다운 가게를 알리기 위한 숲속 콘서트와 알뜰시장이 지난 7월 27일 남이섬에서 열렸다.

사랑 나눔 … '아름다운 가게' 안국동에 1호점 열어

불필요 물품 기증받아 수익금 '그늘진 곳에'

연내 서울역 등 10여곳 '매장' 개관 예정

'물건을 통해 사랑을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순환형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설립된 아름다운 가게는 박원순 변호사아름다운 가게 상임이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장애인 고용과 약물중독자 치료기금 마련을 위해 재사용 물품 대장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굿윌과 구세군 재활센터처럼 우리나라에도 알뜰가게를 마련해보자는 것이었다. 이후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서 알뜰시장을 열었다. 지난 7월 25일에는 기업 1% 나눔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사람들 사진전'을 개최하는 아그파코리아대표 마티아스 아이히홀와 함께 알뜰시장을 열었고, 27일에는 남이섬에서 아름다운가게를 알리기 위한 숲속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공연 전 약 2시간동안 여름철 의류와 책, 여름용품 등을 판매한 수익금은 21만 8천원.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관광객들은 물론 집에서 잠자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찾아온 가족들과 함께 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9월 말에는 서울 안국동에 아름다운가게 1호 점이 문을 연다. 이후 올해 안으로 서울역을 비롯 전국 10여곳에 재사용 물품매장을 개장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생태운동과 나눔 운동을 생활화 하자는 것이다.

아직 상설매장은 문을 열지 않았지만 물품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가게에 참여할 수 있다. 물품은 택배로 보내거나 알뜰시장이나 아름다운 가게로 직접 가지고 가면 되고 기부 물품들을 분류, 손질하고 판매할 자원봉사 신청도 받고 있다. 02)3676-1004

여성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눈부처

정찬주 지음

"스님 눈에 비친 부처님을 보고싶어요"

"어디에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을 꽃으로 보는 사람 눈에는 비치는 것마다 다 부처다" (눈부처 중에서)

성철스님 일대기를 소설화한 '산은 산 물은 물' 등을 쓴 불교작가 정찬주 씨가 어른들을 위한 선(禪)동화집 〈눈부처〉(김영사)를 펴냈다. 산골의 암자와 조용한 선방을 찾아다니며 보고 들은 이야기를 동화로 엮은 책으로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어 사는 '봉정암 산새', 부처는 법당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가르침을 담은 '십우도' 등 스무 편의 짧은 동화가 실려 있다. 값 8천9백원.

어른들을 위한 禪동화집

함께 읽는 책



행복한 …

유철상 지음

〈행복한 가족여행 만들기〉(성하출판)는 여행칼럼리스트 유철상 씨가 가족여행객을 위해 펴낸 맞춤정보지다.

가족과 함께 조용히 다녀올 수 있는 유명 여행지는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을 계절별로 나누어 안내하고 있다. 실제 여행에 나섰을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여행코스와 코스간의 이동, 맛있는 음식점, 숙박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건강여행, 자녀와 함께 하는 체험여행 등 테마별 여행정보도 담았다. 값 1만원.

가족여행지 계절별 안내

캐릭터 형식 순금아기부처 카드

불자순금카드는 불교를 상징하는 부처님, 연꽃, 동자 스님 등을 친근한 캐릭터형식으로 제작한 제품으로 '달마', '연꽃', '일주문동자' 등을 비롯해 10여 종류가 있다. 카드는 1만 5천원, 목재 케이스에 포장된 것은 2만5천원이다. (주)쌍용 발행 귀금속 품질보증서도 제공한다. 8Cm×5.5Cm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여성단신

'사찰음식 한마당' 행사 참가 희망자 모집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적문)는 30일 서울시립노인요양원에서 열릴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사찰음식 한마당'에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연자죽, 버섯덮밥 등을 무의탁 노인들에게 봉양하는 이번 행사에는 '사찰음식과 노인건강 섭생법'이란 주제 강의와 레크레이션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02)355-5961

박물관 문화강좌 개최 전남대, 14주 과정

전남대박물관(관장 나경수)은 9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14주 과정으로 제13기 박물관 문화강좌를 연다.

'한국의 자연과 문화-그 원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전문과정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심화과정은 같은 날 오후 7시 전남대 박물관 4층 시청각실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학생 및 경로자는 4만원, 일반은 5만원이다. (062) 530-3582



주부 신행담

열반의 화음 온누리에 上 강형진 (나르바나 실내악단장)



8월 17일 본각 스님이 이끄는 화엄장학회 하기수련대회가 경기도 이포의 청련암에서 열렸다. 별장 같은 암자 옆엔 냇물이 흐르고, 달밤에 마당에서 돗자리 깔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풀벌레 소리의 반주에 맞춰 바이올린 독주를 했다. 연주 후 젊은 불자는 물론 노보살님까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공양시간에는 공연스감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연주 중 저 세상에 간 친한 도반을 축원했다는 분, 너무 감동받아 절에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 자주 보자고 몇 번이나 당부하시는 분… 아름다운 자연과 포근한 산사를 배경으로 음악을 들은 이의 감동은 아마 평생 기억되지 않을까 싶다. 이것이 니르바나 실내악단이 추구하는 음악포교다.

내가 불교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89년 무렵, 시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정성으로 도와주던 황득효 보살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다. 황 보살님 덕에 여러 스님을 뵙게 되었고 그 중 한 분이 지금의 나의 원찰인 금장사의 주지 스님인 본각 스님이다. 그렇게 스님과 초발심부터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나의 스님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정법 만나는 인연이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신행생활이 깊어지면서 더욱 절실해진다.

그렇게 10년을 보내다가 불교음악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현악기를 전공한 음악지도자라는 사실이 주변 스님들에게 알려지면서부터 불교계의 각종 행사에 초대돼 연주하는 일도 잦아졌다. 그때 당시엔 절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생소하고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신행생활과 일을 구분하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 15년 동안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했던 KBS 교향악단에서의 연주생활이 조금씩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평생 배운 것이 음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성공양을 통해 불자들이 신심을 길러 정법을 펼칠 수 있도록 포교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주위에선 다들 열악한 환경의 불교음악계에서 실내악단

99년 현악 전공 17명이 '악단' 창단

연주기회 부족·재정난 겹쳐 어려움

내가 불교음악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이미 평생 기억되지 않을까 싶다. 이것이 니르바나 실내악단이 추구하는 음악포교다.

내가 불교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89년 무렵, 시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정성으로 도와주던 황득효 보살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다. 황 보살님 덕에 여러 스님을 뵙게 되었고 그 중 한 분이 지금의 나의 원찰인 금장사의 주지 스님인 본각 스님이다. 그렇게 스님과 초발심부터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나의 스님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정법 만나는 인연이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신행생활이 깊어지면서 더욱 절실해진다.

그렇게 10년을 보내다가 불교음악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현악기를 전공한 음악지도자라는 사실이 주변 스님들에게 알려지면서부터 불교계의 각종 행사에 초대돼 연주하는 일도 잦아졌다. 그때 당시엔 절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생소하고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신행생활과 일을 구분하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 15년 동안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했던 KBS 교향악단에서의 연주생활이 조금씩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평생 배운 것이 음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성공양을 통해 불자들이 신심을 길러 정법을 펼칠 수 있도록 포교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주위에선 다들 열악한 환경의 불교음악계에서 실내악단을 운영하는 것은 모험이라고 한사코 만류했지만, 오히려 국민들 대부분이 초등학교때부터 서양 음악을 배워 왔다는 점에서 서양음악이 더욱 친숙하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 1999년 2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등 현악기를 전공한 불자 예술가 17명으로 이루어진 니르바나 실내악단을 창단했다.

그러나 막상 창단하고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클래식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교계에서 정통 실내악단을 꾸려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불교음악계는 국악이 주류를 이뤄 서양음악의 활동폭이 상대적으로 좁은데다가 불자들의 호응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행사를 주관하는 스님들이 쉽게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 또한 서양음악을 하는 전문음악인과 그것을 펼쳐 보일 무대, 연주기회의 부족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뒤따랐다. (계속)

전국 비구니회

전국 비구니스님들의 30년 숙원으로 완공된 전국비구니회관에서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각 분야에서 대승보살 정신을 발휘하실 서원을 가진 비구니스님을 찾습니다.

이 시대에 도심의 한가운데서 결사의 정신으로 모여서 자기의 수행을 연마하는 한편 사회의 요청에 대응하는 상구보리 하화정신을 실천하실 능력있는 비구니스님을 모집합니다.

1. 제출서류 : 수행이력서 1부(이력, 경력, 수행이력 기재)
2. 제출기간 : 모 집 - 2002년 9월 9일(음 8월 3일)
   - 9월 14일(음 8월 8일)
   면 접 - 2002년 9월 16일(음 8월 10일) 오후 2시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제 출 처 : 조계사 비구니회 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5. 면접장소 : 전국비구니회관 (서울 강남구 수서동 744번지)
6. 기타문의 : 02-733-5467

전국비니회관 사찰음식 / 금강선무도 무료공개강좌 안내

강좌	강연	요일	시간
금강선무도	광원 스님	9월 10일 (화)	오전 10:00
사찰음식	선재 스님		오전 11:00

실버타운 입주안내

1. 입주자격 및 절차
- ◆ 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분 및 60세 미만 부부
- ◆ 소정의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분
- ◆ 보증인(자녀)과 노인동행으로 직접 내원 상담 후 결정

2. 구 비 서 류
- ◆ 건강진단서,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 1부, 증명사진 3장

3. 시 설 안 내
- ◆ 3동(96실) ◆ 숙실평형 : 9.5평

4. 부 대 시 설

회의실, 강의실, 진료실, 간호실, 재활치료실, 약국, 사우나, 식당, 세탁실, 강당, 상담실, 휴게실, 수영장, 체련실, 바둑 게이트볼, 상림욕장, 탁구장, 독서실, 공작실, 서예실, 노래방, 채소재배단지, 온천탕(시공중),산책로

5. 입 주 비 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입주금 중 보증금은 퇴실시나 사후 돌려드립니다.

6. 연 락 처

02)743-0294,011)9781-7301 Fax 02)747-4866

※ 공양주, 행자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실버타운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산에서 기도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011) 696-85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45세~60세 대구
011)699-9120

사찰여직원 구함
사찰 종무실에서 근무할 여직원
사찰업무방침을 따르고 (사찰에서 숙식가능, 사찰근무복 착용...)
경리회계 등기본지식을 갖추고 사무능력이 있는자로써 35세이하
북한산 노적사
02)353-4924
011)9734-4924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사무함께 보실 분
02) 487-8500
02) 475-86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부산, 영도
051)416-3121
011)9678-2340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정릉 보림사
02)914-6187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설계시공 A/S 상담

한전승인업체
남강기전 02)338-0400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 택 : 031)563-8733
031)563-8771
H · P : 011)255-328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4)976-8116

산세 수려한 도량에 복 지으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545-237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877-7514

한의사 초빙
사찰에서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병고로 고생 하는 분들을 돌보아 주실 약사보살 같은 한의사님을 구합니다
016)811-0118

천도의식 · 불공 안택 등
임시로 스님이 필요한 곳은 연락바랍니다
055)336-5691

기도부전스님 구함
기도정진하시는 스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 통영시 봉평동 미륵산 용화사
055)646-3090
055)645-3060

● 사무실과 법당을 맡아서 도와주실 스님을 구합니다 (운전, 컴퓨터가능)
●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기도 이천
www.wonkyungsa.com
031) 641-6311

자비간병인 교육대학 후원회 모집안내

자비간병인 교육대학은 2002년 8월 5일(2개월 과정)부터 개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불교 포교 활동과 지역사회복지 · 보건을 위한 전문간병인 양성교육기관으로, 본 이념에 뜻을 같이 하고자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제 2기 수강생을 수시 접수 함

후원회 법보시 입금계좌번호

▸대구은행 006-05-003306-1 ▸조흥은행 802-04-483739 (자비간병인 교육대학)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2동 531 ● 전화 : 053-255-7573, 7583
대한불교조계종 자비간병인 교육대학장 합장

49재 천도재 시다림 봉불 점안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 수 스님 입니다
상주할 인연 사찰을 찾습니다.
016)857-4500

◎ 모십니다 ◎
양로원에서 입소할 독거 노인을 모십니다
(만 65세 이상)
실비는 유료
전화 061)363-8898
팩스 061)363-889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주소 : 충남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042)567-5539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 종교부지 : 97평, 대지 : 94평
● 법당 : 목조건물 15평
지장전 목조 10평
● 요사채 : 20평 ● 가액 : 1억 1천
● 스님 건강문제로 '급안내'
043)853-4779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윤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청운역학원 02)723-7449 / 011)9638-8229

남 활법사 · 지부장모집 여

교육기간
● 정규반 - 16주(1주 : 3시간)총 48시간 ● 속성반 - 4박 5일(1일 8시간) 총40시간
교육후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하여 협회의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숙식제공(단 1명이라도 교육함)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 마사지교육
4. 기공술 6. 운동회복법(저항운동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발관리교육
※ 한번회원이 되면 평생회원이 되며 3개월에 한번씩 세미나를 개최하며 자격취득자는 중국안마(추나)자격 및 침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기회부여.
※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서 우송해드립니다.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4)855-6461 02)2212-8815, 011)522-1122
http://www.hwalbup.or.kr E-mail wooh57kr@yahoo.co.kr

사찰(급)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울산 1동
● 전체 평수 약 330평
● 전통 유치원
● 시내 중심가
● 덕림산이 주위에 있음
● 가액 : 7억 전세가능 : 2억
011)603-8450

포교당 안내

● 위치 : 광안지하철역 1번출구 3층건물 중 3층
● 건평 : 65평
● 보증금 : 30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 4,000만원(조절가능)
011)677-874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
● 대지 : 88평 (실사용 200평 이상)
● 건물 : 임법당 10평, 요사 15평
● 특징 : 교통 주차 편리
● 가액 : 8천만원
055)852-4130
011)879-4791

사찰 급안내

● 위치 : 화성시 팔탄 (도로근접) 뒤에 야산을 띄고 있음
● 법당 : 23평
● 산신당 : 5평, 요사채 : 70평
● 부지 : 240평
● 가액 : 3억 절충가능
- 관심있는 분만 전화요망 -
011)785-5670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 화엄경 (80권) - 1,6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21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해인사 055) 932-7252 김창본
신부락 011) 545-7252 처 사

사찰 안내

● 위치 : 마산지역
● 법 당 : 25평(포집)
● 지장전 : 10평(포집)
● 요 사 : 80평
● 부 지 : 4,600평
● 가 액 : 8억 5천

● 위치 : 부산
● 법 당 : 50평
● 요 사 : 170평
● 부 지 : 590평 (시유지 포함)
● 가 액 : 9억

● 위치 : 경기의정부
● 법 당 : 20평
● 법 당 : 40평
● 법 당 : 1600평
● 법 당 : 7억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안내

● 등작구 상도 2동 201-60호 백운사
● 대지 : 66평
● 건평 : 1층 28평 2층 21평 지하 5평 합 : 56평
● 부처님 네분 모셔져있고 후불탱화, 영단, 부처님 단청 갖추어져 있음
● 가액 : 5억 7천만원
011)722-0302
02)815-0302

포교당 안내

● 위치 : 광진구 화양 사거리
● 25평(거실, 방, 주방, 욕실, 법당)
● 권리금 1700만원
● 보증금 : 800만원 월 55만원
011)251-5287
광진구 화양동 21-26호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김해 회고 요지
● 법당, 삼존불, 지장, 산신, 용왕, 지장소불106불, 영가단, 후불흙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산신탱화, 용왕탱화
● 평수 : 3층, 50평 방 3개, 주방, 샤워실, 주차장완비
● 가액 : 전세 3천만원, 월 47만원 (절충가능)
시설비 : 2000만원
017)556-5681

암자용도전원주택안내

●위치 경북 영천근교 대구서 50분 - 1시간
●부지 밭 600평 중심에 대지 150평 + 제곡부지
●건물 신축한옥 30평 (큰방 2, 작은방 2 큰마루, 부엌 화장실) 외 창고 12평
●특징 산세수려하고 마당앞엔 사천 흐르는 청정계곡이 있고 마당까지 큰차진입
●가액 7800만원 (실제공사비)
054)337-5156
011)9857-5156

易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듣기만 해도 암기 됨, 감명비법공개
◆ 주야, 주말반 : 초보에서 전문까지
◆ 특강반 (법당 · 포교원운영 · 스님 · 법사)
◆ 사주로 영가찾는 법 등
◆ 개운법, 영가 · 조상천도 상담환영
☎ 02)2236-2284 (2,6호선 신당역)

권대창불교건축 권대창목재

● 사찰대웅전 건축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공장 054) 781-4989
H P 016)768-4324
011) 246-2210

● 태백산(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존양목
▲ 연목 : 12자 ~ 24자까지 5치 ~ 8치
▲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 보감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창중합개발 이중봉 합장

포교당 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7호선 남성역 1번출구에서 약 500 m
● 평수 : 약 35평
● 특징 : 아미타 주불, 신중탱화 모셔져있음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2)598-1326

포교당 안내

●위치 : 경북 영천(영천 롤게이트 부근) 교통편리
●대지 : 약 100평, 건물 50평 단층한옥 (새로 수리함), 임법당 (즉시법회가능) 방 3개, 창고 1
●특징 : 마을 끝집에 야산을 끼고 있어 토굴을 겸해 포교당으로써 적절함
●가액 : 3500만원
054)337-9916
011)9727-9935

사찰 안내

수백년 묵은 느티나무가 옆에있고 앞에는 큰 냇물이 사철 흐르는 유원지
●대지 : 200평 ●전 : 700평
●방 2개, 창고 1개
●가액 : 7200만원
054)262-6673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평수 : 땅 대지 200평 법당(콘크리트 기와) 28평 산신각 2층 5평, 요사채 30평 공양간 5평, 대지 공양간 5평
●즉시 법회 가능
●가액 : 1억 5천만원
052)294-7025
016)9294-7025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요지 황령산
● 소나무 숲속 우거진 기도도량
● 평수 : 500평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5개
● 전세 : 5500만원
055)385-0065~6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길안면
● 법당 1개(20평)
● 요사채 1개(20평)
● 대지 : 689평
● 심야보일러 심야온수
● 가액 : 7천 500만원
011)423-6453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 면적 : 59평
● 법당 : 25평, 요사 : 35평 (도심속의 작은 사찰)
● 가액 : 1억 6천

● 위치 : 사량도(남해)
● 면적 : 3,000평(종교부지 1,000평)
● 법당 : 10평, 요사 : 15평 (불사 중 중단된 사찰 임)
● 가액 : 3억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사찰부지안내

● 서울 관악산 10,000평
● 용도 : 사찰 및 복지시설
● 평당 : 25만원
● 경기도 이천 땅 5천평
● 평당 2만원
011)241-0408

사찰 안내

●의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부지 : 약 320평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10대
●가액 : 2억 5천만원
011)9756-4845

사찰(급)안내

● 위치 : 삼천포 앞바다가 멀리서 흰히 보이고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약수물이 많이 나오는 청정도량임
● 부지 : 약 3000평 (준농림지) 중
● 법당 : 27평, 요사채 : 약 50평 (스라브)
● 주지실 : 12평, 삼성각 : 16평 (목조)
● 가액 : 3억 7천만원
※ 복지시설도 하기 좋은 산세좋은 도량 임 대형차량 진입 및 주차장 약 200평
016)207-5600

사찰안내

●위치 : 전주
●대지 : 130평, 법당 : 30평
●산신각 : 5평 요사채 : 60평
●가액 : 2억 3천만원
063)291-7532
017)336-7523

사찰 양도 안내

● 부지(종교용지) : 2013坪 ● 法堂 : 13평
● 요사채 : 20坪 ● 매가 : 8억 5천만원 ● 위치 : 서해안
● 특징 : 1. 1400년된 전통사찰(사지)
2. 마이여래불(지방문화재로 지정 조성연대 고려말로 추정)
3. 암반약수(수량풍부) 4. 자동차 진입 가능
5. 천혜의 자연 경관과 우람한 바위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좌청용 우백호가 뚜렷한 대찰터임
6. 지방 문화재 보전 사업비 지원 사찰임
사찰정보센터 : 금강기획 02)736-3578~9 011)789-225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양시내
● 대지 : 27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양도 : 8억(대출가능)
● 뒤는 산세좋으며 앞은 안양중심가를 관망할 수 있음

● 위치 : 충북 정평
● 대지 : 4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2억 7천
● 산세좋은기 도도량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만덕종 지하철역 인접, 교통편리
● 평수 : 대지 50평, 건평 150평, 공터 25평
● 구조 : 방3개, 거실, 주방 大, 임법당 후불탱화, 신잔탱화, 산신탱화 A급
● 가액 : 1억 3000만원
051)331-9937
017)844-9937

사찰안내

●위치 : 계룡신도시 아파트 3만세대 밀집지역
●대지 : 150평
●건평 : 99평(법당, 요사, 식당) 3층건물
●특징 : 현재법당 불사 중 심야보일러
●가액 : 3억 1천만원
011)436-7529

포교당안내

● 위치 : 이천시 터미널에서 3분거리
● 면적 : 20평, 방 3개, 욕실 2층건물 중 2층으로 옥상사용가능
● 특징 :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가액 : 전세 250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1)387-5858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백두대간, 산세좋고 전망좋은
● 밭 1991평, 터정리 완료 (불사가능)
● 토굴은 블럭으로 조성
● 방 1, 부엌 1(재래식)
● 가액 : 5천만원
011)9542-2537

사찰 안내

● 위 치 : 서울
● 대 지 : 18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40평
● 산신각 : 15평
● 가 액 : 6억

※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양수 하실 분 전화상담 환영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토굴안내

● 위치 : 청송 주왕산 국립공원 부근
● 대지 : 244평, 네모 반듯
● 건물 목조 황토, 요사 18평 1동 창고 2동, 임법당
● 특징 : 비구니 수행처로 적격 바로 앞 계곡 물 좋음, 정토평창 마당까지 차량 진입 가능
● 가액 : 3500만원
011)512-2238

부지안내

● 위치 :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 아래 명당자리 도로에서 200m 안골
● 부지 : 400평
● 가액 : 4천 5백만원
● 특징 : 진입 도로 완성되어 있고 사찰을 바로 지을 수 있게 터 정리 완비
033)553-7653
011)368-7653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 대지 : 300평, 법당 8평, 요사채 40평
● 가액 : 1억 7천만원
055)744-2167
011)541-842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사찰 허가필
● 부지 900평 중 대지 200평
● 신축건물 25평
● 현재 불사 중
● 가액 : 8500만원 답사 후 절충
011)9595-9537
054)432-7111

부지 안내

● 위치: 경북 영천
● 산 26000평
● 준농림지 3600평
● 과실수 다수
● 산입구까지 차량진입
011)9570-9977

포교당 안내

● 평수 : 30평
● 법당, 주방, 방 3개
● 보증금 :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1700만원(절충가능) 시설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
02)2208-6098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인근
● 부지 : 2000평
● 대지 : 420평
● 법당 : 가건물 20평
● 요사 : 45평
● 가액 : 2억 5천만원
● 전세 : 5000만원
016)868-5517

사찰 안내

● 위치: 마산시 내서읍
● 법당, 요사채 2동
● 가액은 답사 후 결정
011)9534-2555

불교 이래서 좋다

박현이 대전 한밭레츠 등록소장

"함께 행복해지는 길 깨달아"



나는 대학시절에 사회학을 공부했다. 여성, 노동자, 농촌 등 사회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것인가가 늘 나의 고민이었다. 노래패 활동 등 여러 가지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만 쌓여갔다. 점점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어갔고, 무엇을 봐도 다 문제투성이로만 보여 걱정만 늘었다. 사회운동가들에게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그때부터 몸이 많이 아프기 시작했고, 그 인연으로 불교를 만났다.

대학 4학년 무렵, "적을 비판하면서 어느새 적을 닮아버리는"이라고 운동권을 비판하던 정토회 한 선배의 글이 마음에 확 와 닿았고, 자연스럽게 정토회에 끌렸다. 그 후 정토회에서 '불교환경교육원'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법륜스님을 지도법사로 승가공동체의 본래 모습을 잘 유지하기 위해 생활원리를 만들고 실천하는 공동생활은 내 인생의 소중한 경험들이었다. 적막한 산 한가운데서 혼자 조용히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의 한 복판에서 '깨달음의 사회화'를 나로부터, 그리고 또 같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지난 봄학기부터 대전정토법당의 불교대학에 다니고 있다. 같이 공부하는 보살님들과 서로 조를 짜서 '숙제' 검사도 한다. 늘 남을 원망하고, 세상의 아픈 모습도 내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 나말고 누군가 잘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괜히 힘들게 살려하던 나에게 불교는 그 인식을 바꿔주었다. 요즘에는 〈금강경〉의 '법회인유분'을 즐겨 읽고 있다. 부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 가사 걸치시고 탁발하러 나갔다 돌아와, 제자들과 얘기 나누시는 이야기. 그렇게, 나도 살아가는 속에 자연스럽게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 있음을 깨닫고 있다.



◇21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정신대할머니 수요집회에 참여한 나눔의 집 '청소년 평화 · 인권 캠프' 학생들. 일본군의 위안부 만행에 대한 역사를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 평화·인권 캠프' 열려

떡매치기 등 '체험' 중심 역사교육 프로그램 다양
'나눔의 집' 행사에 하남고생 등 청소년 34명 참가

지난 20일부터 2박3일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청소년 평화 인권 캠프'가 열렸다. 경기 하남고, 경화여고 등 34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에서 청소년들은 '체험'과 '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인식과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20일 오전,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통해 재현된 위안소. 한 평 남짓 되는 이 공간에서 청소년들은 할머니들이 겪었을 고통을 느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편지쓰기'를 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 때 당시의 실상을 여과 없이 체험보자는 취지로 준비됐다. 편지쓰기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은 이어 위안부 역사관에 진열된 위안부 관련 자료와 유물을 관람했다.

학내 일본연구동아리 '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정아(18 · 경기 경화여고) 양은 "저 같으면 죽었을 거예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었다던 할머니들이 그 아픈 상처를 어떻게 참아냈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저민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이어지는 위안부에 대한 설명과 일본군의 잔혹상, 그리고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상을 담은 영상물 관람 시간. 지난 9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최초로 증언한 故 김학순 할머니(당시 67세)의 육성이 들려오자, 청소년들의 눈시울은 붉어졌다.

잠시 후, 앞마당에서는 '떡매치기' 퍼포먼스가 열렸다. 한번은 일본제국주의 각성을, 또 한번은 진실규명에 소홀한 한국정부의 무책임성을, 마지막 한번은 지금의 경험을 망각하지 말자는 다짐의 의미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힘껏 떡매를 내려치며 '아픈 역사'를 털어냈다.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참가한 구애란(18 · 경기 하남고2) 양은 "이곳 할머니들과 만나게 되면서 역사적 진실을 깨우치게 된 좋은 계기가 됐다"며 떡판을 후려쳤다.

다음날인 21일, 자원봉사 활동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 학생들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신대대책협의회가 주관하는 제522차 수요집회에 참가했다.

청소년 담당=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불교 소재 플래쉬 애니메이션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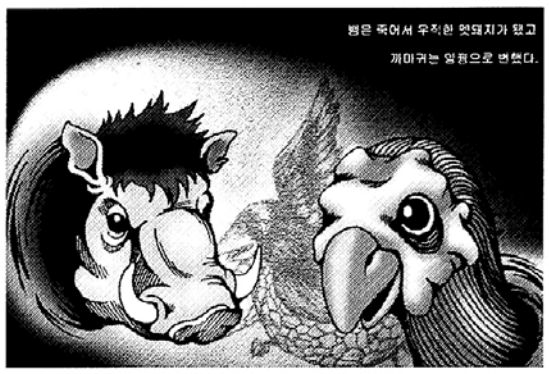
대불어, 불교 설화 등 홈페이지 통해 제공

컴퓨터를 친구 삼아 혼자서 노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대불어)가 불교 소재 플래쉬 애니메이션으로 찾아 간다.

플래쉬 애니메이션은 침체된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전면적인 투자와 소재개발 끝에 시도하는 대불어의 역점 사업으로 불교 설화나 본생경 중 재미나고 친숙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엮어진다. 대불어는 새롭게 단장된 대불어 홈페이지(www.dongja.org)를 통해 매월 한 편씩의 이야기를 업그레이드시켜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부처님 가르침에 묶어놓겠다는 포부다.

'사냥꾼의 출가 전생이야기' '혜통스님 이야기' 등을 형형색색의 원색적인 색채와 재미있는 음향, 3D 화면 등으로 제작하고 있는 대불어는 이달 말에 마무리 작업을 완료하고 홈페이지에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 천미희 기자



◇대불어가 홈페이지에 소개한 플래쉬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청소년 단신

불교레크리에이션協 '2급 지도자 과정' 개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운광)는 9월 16일부터 11월24일까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과정'을 개설한다. 매주 월 금요일 저녁 7시부터 3시간동안 마련되는 이번 강좌는 부문별 강의와 종합실습을 포함해 총 72시간동안 진행된다.

이성훈 연수국장 등 불교계 전문 강사들이 강의할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불교교리 △포크 및 스포츠 댄스 △노래, 율동 지도법 △풍선 데코레이션 △전래놀이, 실내외 게임 △캠프교육 △이벤트 및 야외활동 진행 실습 등의 일정으로 꾸며진다. 교육비는 교재와 실습비를 포함해 3십5만원이며, 2회 분납 가능. 60시간 이상 이수자에게 2급 지도자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02)738-7860

담배를 끊읍시다

담배 유해 성분 1

CO 등 성분에 40가지 발암물질

일반적으로 담배 연기를 한번 들이마실 때에 약 50cc의 연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가운데 일산화탄소 전량과 니코틴의 90%, 타르의 70%가 몸속으로 흡수된다. 니코틴과 타르 외에 담배에는 약 4,000가지 정도의 화학적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 40가지 정도는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일산화탄소(CO)는 무연탄 냄새로 우리에게 친숙한 물질이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마치 적은 양의 무연탄 냄새를 지속적으로 맡고 있는 것과 같아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감퇴시켜 만성 저산소증 현상을 일으켜 신진대사에 장애를 주고, 조기 노화현상을 일으킨다.

일산화탄소의 환경기준은 24 시간 생활공간에서 10ppm으로, 담배 연기의 경우 최고 45,000ppm까지 함유하고 있다.

흡연량과 혈액 내 CO함량에 따른 증상을 살펴보면, △하루 한 갑~한갑반 2~5% 무증상, 가벼운 지각 감소 △2갑 5~10% 심한 운동 시 호흡곤란 △3갑 10~20% 두통, 가벼운 운동 시 호흡곤란 △20~30% 신경질, 기억력 상실, 안절부절.

네티즌 불교동아리 순례

세이클럽 '불광 금용마을'

불교동호회 중 자료 가장 많은 곳

세이클럽의 '불광 금용마을'(http://club.SayClub.com/@kjh4910)에 들어서면 단아하면서도 정돈된 법당을 보는 것 같다.

670명의 회원이 이끌어가는 불광 금용마을은 2001년 5월 개설됐다. 회원은 적지만 총 방문회수가 10만회가 넘고, 세이클럽 불교동호회 중 두 번째로 인지도가 높다. 특히 30~40대 회원 중심으로 자신들의 삶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담아내고 있다.

세이클럽 불교동호회 중 불교자료가 가장 많은 곳이라는 소개처럼 자료실은 불자초보반, 중등반, 고등반, 연구반으로 구분되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초보반은 절하는 법에서부터 기초교리문답, 석가모니부처님과 신행에 관한 모든 것들을 속 시원히 가르쳐 준다. 그밖에 '독송자료실'과 '한국불교전설'도 재미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세이클럽 '불광 금용마을' 초기화면.

'낭만의 방'과 '추억의 방'은 좋은 글과 시 감상, '건강지킴이'는 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자연 건강법을 소개한다. '끝말잇기'는 불교공부를 통해 얻은 자신의 생각을 시구절로 표현하여 한층 부드럽게 다가간다. '모임알림판'은 한달에 한번씩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과 이웃돕기 성금도 모금한다. 회원들 간의 친목도 다지고 보시행을 몸소 실천한다.

작지만 소중한 불심을 키워가는 사람들….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에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한길 기자 sunggak@buddhapia.com

불가의 비법과 선인의 비전을 합방한 기적의 신물질!

"화림한방화장품"은 자연의 순수 한방약재를 주원료로 하여 고대 동양 미인들이 애용하던 주안술을 이용하여 당사 연구진이 개발한 특허출원 준비중인 제품이다.
생약성분에서 추출한 기적의 신물질 "전단물질"이 미백효과, 피부 노화방지, 기미 및 각질제거, 주름제거 등 각종 피부고민으로 부터 여성을 해방시켜주며 모든 여성들을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 부드럽고 보송보송한 피부, 항상 촉촉히 젖어 있고 윤기있는 피부로 가꾸어 준다.

출시 품목 (화장품)

◆ 한방에센스 크림 ◆ 한방베이스 크림 ◆ 한방미백크림
◆ 한방 아이크림 ◆ 한방 영양크림 ◆ 한방 밀크, 스킨 로션

출시 품목 (비누)

◆ 서시한방비누(여드름 제거용) ◆ 옥용한방비누(피지 제거용)
◆ 수다라한방비누(미백용/클린싱 크림효과)

세계 각국 특허 출원 준비 중

불자로써 화장품 및 비누 사업에 참여하실 분 (소자본 가능 / 재택 근무 가능)

HR herbal medicine Cosmetics (주) 화림한방화장품
www.hrcos.com

전국지사◆대리점모집

"화림한방바이오"의 제품들은 불가 선사의 문중으로부터 전수받은 "법제와 구증구폭"의 비법을 현대의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생산하였다. 다이어트 식품은 식사를 즐기면서도 살을 줄일 수 있고 요요현상이 전혀없으며 다이어트 최대 난제인 복부비만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장을 청소하여 인체의 체지방을 제거함으로써 비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 또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게 하며 몸의 가뿐함을 만끽할 수 있다. 선식은 성인을 위한 건강식, 청소년을 위한 영양식, 유아를 위한 이유식으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효능도 있어 일석이조의 새로운 개념의 선식이다.
향은 천연향으로 제조되어 악취제거, 공기정화 기능이 탁월하여 제사용으로 뿐 만 아니라 가정, 사무실, 고시원 등 일상 생활에 널리 이용할 수 있다.

출시 품목 (식품 / 향)

◆ POINT24 – 최상의 다이어트 식품(식사를 즐기면서...)
◆ 달마선식 – 다이어트 식품 겸용 건강선식
◆ 화림비향 – 새로운 개념의 향, 먹을 수 있으면서 피우는 향

세계 각국 특허 출원 준비 중

불자로써 다이어트 및 건강식품 사업에 참여하실 분 (소자본 가능 / 재택 근무 가능)

HR herbal medicine Bio (주) 화림한방바이오
www.hrbio.com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254-16 Tel : 053)313-2711~15 Fax : 053)313-2716

"효도·감사정신 확산되길"

남양주 봉선사서 우란분절 사은법회 열려

월운·일면 스님등 1천여 사부대중 참석



◇23일 봉선사 우란분절 '사은법회'에서 '우란분공양'을 올리는 신도들.

23일 남양주 봉선사(주지 일면). 불교의 '효'의 날인 우란분절 법회에 동참하기 위해 신도들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이날 법회는 부처님의 위신력과 스님들의 수행력, 불자들의 발원 공덕이 합해진 생명 해방의 날, 고통 속에서 헤매는 모든 생명들을 해방시키는 날로 만들기 위한 '사은법회'였다. 기존의 천도재에만 머문 신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신도들이 스님들의 가르침에 보답하는 의미가 더해져 승가와 재가의 화합과 신뢰, 존경의 한마당이었다.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주지 일면 스님 등 1000여 사부대중이 모인 법회는 영가를 목욕시키는 '관욕', 지장보살님을 청해 영가의 왕생극락을 빌고 살아있는 이들의 업장소멸을 발원하는 '상단불공축원' 순으로 1부가 끝났다.

2부에서는 대중 스님들이 상단에 오르고 신도들에게 설법 대신 '우란분경'을 독경했다. 여기에 신도회 및 지역회 대표들은 합창단의 찬불가 '공양게'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루명을 밝혀준 스님들께 작은 정성이 담긴 '우란분공양'을 올렸다.

김 원광등 경기도 구리 지역장의 '사은사(謝恩辭)'가 끝나자 불자대중들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다는 의미에서 스님들께 삼배의 예를 올렸다. 여기에 월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효심뿐 아니라 보은의 뜻이 담겨있는 사은법회가 각 사찰, 전 국가적으로 행해져 하나의 문화적 풍토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영가가 극락왕생에 들도록 신도들과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합께 독경하는 '영가시식'과, 위패를 모시고 탑돌이 후 소대에 나가 회향하는 '봉송소전'을 끝으로 회향을 했다.

행사를 준비한 김순경 봉선사 신도회장은 "3년 전 불교가 수승한 것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회를 계획했다"며 "삼보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은법회'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공양을 받은 스님들은 더욱 열심히 정진해야겠다는 다짐이 얼굴에 가득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목탁소리 — 훼손된 큰스님의 뜻

여 수 령 (취재2부 기자)

지난 7월로 입적 20주년을 맞은 경봉(1892~1982) 스님. 스님은 70여 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써왔으며, 또한 당대 선사들과 나눈 많은 편지글들을 보관해 둔 것으로 유명하다.

스님의 기일에 맞춰 나온 〈꽃은 져도 향기는 그대로일세〉(예문)는 경봉 스님의 상좌인 명정 스님(통도사 극락암 선원장)과 시인 정성욱 씨가 스님의 일기와 편지를 묶어 펴낸 책으로, 언론은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꽃은 져도...〉(예문)는 서문의 무단전재와 공동저자간의 마찰로 출간 의의를 반감시키고 있다.

문제가 되는 글은 책의 서문에 실린 법정 스님의 글 '향기로운 꽃, 경봉 큰스님'으로, 이 글은 법정 스님의 허락 없이 사용됐을 뿐 아니라 일부 내용을 임의로 고친 상태로 출간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서울 성북동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은 지난 14일 "문제의 글은 법정 스님이 1985년 〈삼소굴일기〉에 써준 서문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책에서 이 글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출판사에 보냈다. 결국 이 사건은 정 씨가 길상사를 찾아가 사과하고 책에서 법정 스님의 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공동저자인 명정 스님과 정성욱 씨 사이에 "정 씨가 동의 없이 책을 출간했다"는 주장과 "책 출간에 관해 충분히 상의했으며, 인세도 전달했다"는 주장이 오고갔기 때문이다.

'자연을 벗 삼아 수행하며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큰스님의 이야기를 통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삶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겠다'던 출간 의도와는 동떨어진 상업주의적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큰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한 책이 도리어 누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온 이번 일을 보면서, 책의 출간 의도 뿐 아니라 출판 절차와 방법 또한 여법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17일 부산대역에서 열린 예수성심수녀회 주최의 지율스님 초청, '길거리 특강'.

천주교 수련행사…지율스님 '길거리 특강'

"산에 산에 산에는 산에 사는 메아리 언제나 찾아와서 외쳐 불러도...벌거벗은 붉은 산에 살 수 없어 간다오."

17일 지하철 부산대학교역에는 예수성심수녀회 수녀들과 지율스님, 수녀회 소속 청년회원들이 함께 부른 동요가 울려 퍼졌다. 자연의 소중함을 노래한 동요를 함께 부르며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길거리 특강을 가진 이날 행사는 예수성심수녀회가 주최한 여름 피정(사찰 수련회에 해당).

이날 지율스님은 특강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피부로 느껴보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며 "우리의 무관심으로 파괴되어 가는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한미불교문화원 건립 기금모금 전시회 개최

미국 뉴욕시에 한국 불교문화의 종합 전시공간으로 마련되는 한미불교문화원(추진위원장 도안) 설립을 위한 국내 기금모금 전시전이 열린다.

스님과 일반작가의 사진과 그림, 서예작품 등 4백여점이 선보이는 서울전은 다음달 4일부터 10일까지 덕원갤러리에서, 부산전은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국제신문사 전시실에서, 그리고 광주전은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남도예술회관에서 각각 진행된다.

김재경 기자



◇21일 완전히 침수됐던 김해 정암사에서 주지 법상스님과 염불공양회 회원들이 법구와 가재도구를 정리하며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물푸기·가재도구 세척·흙투성이 옷 세탁

불자들 김해수해복구 비지땀

자원봉사자 100여명 해군등과 힘 합쳐
조계종, 2천여명 더 모집 일손 지원

코를 찌르는 악취, 진흙이 말라붙은 채 여기저기 쌓여 있는 가재도구와 옷가지들. 21일 김해시 한림면 시호1구 마을의 수해복구 현장은 마치 전쟁터의 폐허같았다.

물이 빠지자 각지에서 달려온 봉사자들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마을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방안까지 차올랐던 물을 퍼내고, 가재도구를 들어내 그릇을 씻고, 진흙투성이의 옷을 세탁하면서 마을은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갔다.

이날 조계종 자원봉사단 100여명도 복구현장으로 달려왔다. 부산보현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염불공양회, 보현회,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등에서 참여한 봉사자들은 물에 잠긴 정암사를 비롯 민가에 흘어져 복구에 비지땀을 흘렸다.

그러나 역시 가장 부족한 것은 일손. 24일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을 비롯 통도사 강원 40여명의 스님들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일손은 부족하기만 하다. 이번 봉사단 모집 실무를 맡은 이기표 부산보현의 집 원장도 "봉사자 모집이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조계종 자원봉사단은 앞으로 열흘동안 2천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051-506-0146) 시호1구 복구를 도울 계획이다.

한편 부산·경남지역 공무원 불자들과 정토회도 수해복구에 동참했다. 부산시청과 영도구, 사하구 등 7개 구·군청 불자들과 경남도청을 비롯한 20개 시군 불자회도 수해복구에 동참하고 있다. 정토회 긴급구조단도 경남 함안군 법수면 수해지역(백산마을, 대평마을)으로 17, 18일 수해복구활동을 다녀왔다.

김해=천미희 기자

1인1나무 심고 가꾸기 운동

제주법화사, 2005년까지 대대적 복원 불사

제주 법화사(주지 시몽)는 법화사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인1나무 심고 가꾸기 운동'을 전개한다. 법화사 복원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서귀포시 풍림콘도에서 전·현직 임원간담회를 열고 주변조경을 위한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구좌를 개설해 불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제주도의회 임기옥 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신도회장과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시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법화사지 복원사업은 제주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잡는 의미있는 일"이라며 동참을 당부했다.

제주도 기념물 제 13호로 지정(보호)구역 4만 4095㎡에 이르는 법화사지는 2005년까지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건물 및 연지복원, 부대시설정비와 조경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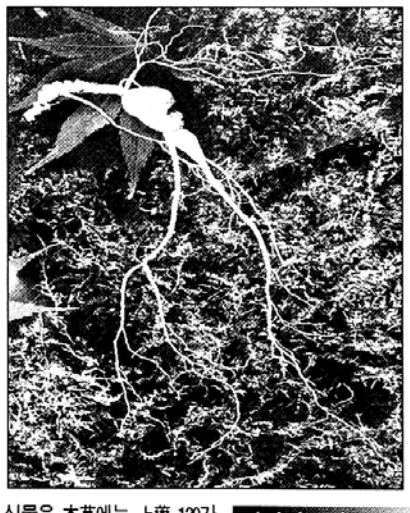
김주일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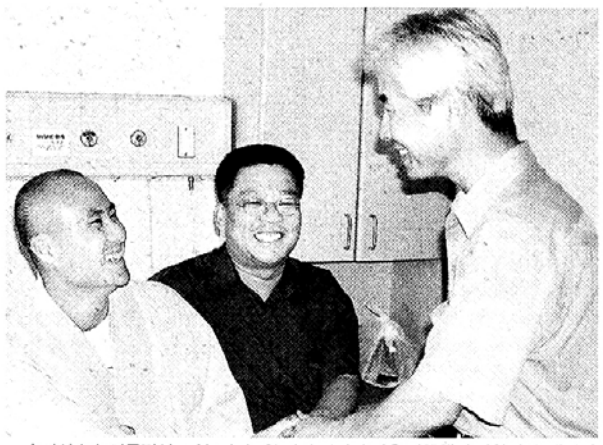
가시오가피 / 일반오가피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KNS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願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到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천?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신장 이어 간 기증한 도우스님

"골수도 필요하면 드리겠어요"

신장에 이어 간까지 기증하고 골수까지 기증하겠다는 젊은 스님이 있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주인공은 경남 창령군 월령사의 도우 스님. 스님은 지난 2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말기 간경화 환자인 김모 씨(30 · 회사원 서울 강서구)에게 15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간 일부를 떼어 주었다.



◇이식수술 하루전인 20일, 지난 4월 이미 신장과 간을 기증했던 강원필씨, 생명나눔실천회 손양호 이사(오른쪽)와 함께 도우스님이 웃고 있다.

통도사 학인시절 장기제공 서원

"장기기증 보살행에 많이 동참하길"

부인과 5살, 3살 난 두 아들을 둔 가장인 김씨는 "스님의 간 기증이 우리 가족 전체의 생명을 살려줬다"며 "그저 감사한 마음 뿐"이란 말만 되풀이 했다.

도우 스님이 장기 기증의 원을 세운 것은 98년 통도사 승가대학 학인 시절. 출가한 지 1년 째였다. 불제자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하던 스님은 지난 99년 8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생면부지의 신장질환자에게 자신의 왼쪽 신장을 선뜻 내놓았다. 첫 번째 기증. "나의 장기 일부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게 됐다는 데 환희심을 느꼈다"는 스님은 당시를 생각하는 듯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머리 깎은 출가수행자로서 육신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 한 번 더 마음을 냈다"는 도우스님은 "장기기증이라는 몸보시가 특별할 것이 없어 세간에 알려지는 것이 쑥스럽지만 간 기증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알려서 장기 기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장기기증의 선연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자비와 보시행을 직접 실천해 보인 스님은 이것도 모자라 이미 3개월 전에 혈액암 환자들을 위해 골수 기증 신청도 해놓은 상태다. 스님은 "사람들을 이익 되게 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장기기증만큼 참다운 보시행은 없다"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에 동참하기를 바랐다.

지난 97년 경남 통도사 주지 월파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도우 스님은 통도사 승가대학에 이어 지난해 법주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현대불교'에 실린 마성스님 서평을 읽고 있는 김용옥 교수.

"EBS특강 불교 새인식 계기로"

도올 김용옥교수, 정대 총무원장 예방

최근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을 펴낸 뒤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도올 김용옥 교수가 20일 조계종 총무원 정대스님을 예방하고 20여분간 환담을 나눴다. 이날 환담은 공식 예방이 아닌 도올의 갑작스런 방문으로 이뤄졌다.

환담은 주로 달라이 라마 초청 문제와 이달말부터 방영되는 EBS 기획특강 '도올, 인도를 만나다'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도올은 자신의 책을 정대스님에게 전달하면서 "달라이 라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대스님의 질문을 받고 "정직하고 깨끗한 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대스님이 "달라이 라마 초청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 쉽지 않다"고 했고, 도올은 "정치적 사안을 떠나 초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올이 29일부터 시작되는 EBS 기획특강과 관련해 "이번 기회를 한국 지식대중에게 불교를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고, 정대스님은 "불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데 부족한 면이 많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도올은 "불교가 세계의 주류와 접목이 덜됐으나 지금부터 시작이다. 한국불교는 이론적 토대와 수행풍토가 서 있고, 우리 민족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 이런 불교는 세계 어디에서도 흔치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총무원을 방문한 후 도올은 현대불교신문이 운영하는 책방 여시아문을 방문해 동국역경원에서 출판된 현대불교신서 시리즈 30여권을 구입했다.

도올은 특히 현대불교신문 383호 15면에 보도된 자신의 최근저서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에 대한 마성스님의 서평에 대해 "건전한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며 "논쟁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교가 그만큼 발전한다"고 말했다.

"건전한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

불교-세계주류 접목 이제부터"

마성스님의 서평과 이에 대한 도올의 견해가 현대불교 일간 인터넷 신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보도되자 21일 현재 50여건의 의견이 오르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명우 · 김두식 기자

미군캠프에 문화유적 20여점

문화재청 조사 석불입상 2점등 지방문화재 가치

문화재청은 12~14일 주한미군 주둔지역 내 문화유적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결과 부산 캠프 하야리아의 고려시대 석불 3점을 비롯해 전국 5개 캠프에서 20여 점의 문화유적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지역 안에서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부산시 부산진구 캠프 하야리아에서 발견된 높이 85~95cm의 석불입상 2점과 석불 반가상 1점은 고려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조각기법은 단순하나 보존 상태가 양호해 지방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문화재청은 "이들 유적에 대해서는 국가 귀속과 문화재 지정 등의 보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유적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석불 외에도 고인돌 7기(대구 캠프 헨리)와 19세기 석상(대구 캠프 워커), 분묘 8기(경북 왜관읍 캠프 캐롤), 일제시대 신사 기둥(대구 캠프 조지) 등이 확인됐다.

권형진 기자



◇하야리아에서 발굴된 석물입상

부산 구룡사 인근에 쓰레기 주차장

신도·주민등 200여명 구청에 허가취소 요청

부산 덕천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구룡사(주지 효선) 인근에 쓰레기 차량 세차 및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자 신도들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구룡사에 모인 신도 및 주민 2백여 명은 근린공원입구에 쓰레기차 세차 및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면 쓰레기 폐기물, 청소차의 매연, 소음, 악취 등으로 공원의 면모가 크게 실추될 것이라며 허가신청 불허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시지정 문화재인 의성으로부터 50m 이내의 거리에 있어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거쳐 허가를 얻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위원회 의원 윤영주 교수는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허가했다"며 "쓰레기차 주차장과 세차장이라면 심의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현상변경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효선스님은 "근린공원에 쓰레기차 주차장과 세차장이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북구청을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봉정사 극락전 기둥 외국산나무로 보수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 알려진 경북 안동시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의 기둥 일부가 외국산 나무로 판명됐다.

19일 문화재청은 극락전 처마와 부재의 쳐짐현상과 벽체의 균열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기둥의 시료를 채취, 산림청 산하 임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기둥 16개 가운데 4개가 북미산 리기다 소나무, 1개가 낙엽송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 2개 기둥은 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72년 해체보수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다"며 "극락전의 역사성을 감안해 기둥 중 외래수종 5개를 포함해 7개의 기둥 모두를 내수성과 내습성이 강한 우리 고유의 육송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동 봉정사 총무 진홍스님은 "적절치 않은 나무가 기둥으로 사용된 것은 잘못이지만 이번에 사실이 규명돼 보수공사에서 교체하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안동=박원구 기자

강제수용 선암사앞 토지 주공, 비싼값 받고 되팔아

95년 서민아파트 건설 명목을 내세워 선암사앞 토지를 강제 수용했던 대한주택공사가 그 땅을 민간건설회사에 비싼 값으로 되팔아 물의를 빚고 있다.

전통사찰인 선암사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에 심각한 훼손이 예상되자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있었으나 주택공사는 선암사 부지 2만여 평을 강제수용했다. 또한 2만여 평 가운데 9천여 평에는 주공아파트를 짓기로 했지만, 지난해 1만1천 평의 부지를 민간건설회사인 건봉개발에 되판 사실이 드러났다. 수용당시 35만원이던 평당 가격을 243만원으로 껑충 올려 민간건설회사에 되판 것이다.

선암사측은 "서민주택 건설을 빌미로 전통사찰의 토지를 강제수용해놓고 민간업체에 되판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문화·이벤트 행사로 청년불교 활성화

사랑의 연꽃페스티벌 행사

대불청·듀오 공동주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규범, 이하 대불청)는 결혼정보회사 듀오와 공동 주최로 올 10월 12일 강남 코엑스에서 '사랑의 연꽃 페스티벌'을 연다.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대불청의 기획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불교상식 열전 퀴즈, 사랑의 연꽃 촛불 전달식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불자의 건전한 만남과 결혼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대불청은 사랑의 연꽃 페스티벌에 이어 침체된 각 지구와 지회 활성화를 위해 '불교청년 인연의 밤'과 '절로 가는 인연여행'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10월중에 가질 계획이다. (02)738-1920 김철우 기자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동국대 사회교육원

동국대 사회교육원(원장 권기종)이 가을학기 수강생을 30일까지 모집한다.

동국대 사회교육원은 불교교양, 불교전문교육, 불교연구, 불교박물관대학,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교육과정으로 방과후 아동지도사과정과 표현자료과정을 두고 있다. 수업은 9월 2일부터 시작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02-2260-3728-9) 나 홈페이지(http:\\dgucc.dongguk.ac.kr/~soedu/index.html) 참조.

권형진 기자

최면-전생 특강 안내





21세기는 황도대(天球의 적도)의 변화에 따라 지난 2000년의 쌍어궁시대가 막을 내리고 영적 개화의 시기인 보병궁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보병궁 시대는 인간의 영성이 열려서 산 자와 죽은자 사이에 영적 교신의 실재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영혼의 실재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앎'의 사실로 밝혀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찾아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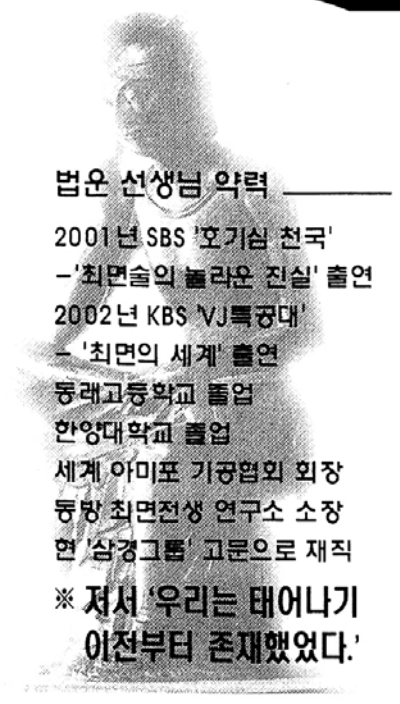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면-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강의 내용

① 타인최면유도 ② 최면으로 하는 제령(際靈)천도 ③ 원격 제령(際靈) 최면 ④ 전생퇴행최면 ⑤ 최면파동(波動)요법

강의 안내

◎ 개강 : 수시접수 ◎ 시간 : 매주 토요일 3시간, 3개월 과정 ◎ 특강 : 지역별 그룹특강 가능



법운 선생님 약력

2001년 SBS '호기심 천국'
-'최면술의 놀라운 진실' 출연
2002년 KBS 'VJ특공대'
- '최면의 세계' 출연
동래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졸업
세계 아미포 기공협회 회장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현 '삼경그룹' 고문으로 재직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동 방 최 면 전 생 연 구 소

◆ 문 의 처 : 017-587-0777,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극락새가 피안 노래하는 부처의 땅



◇소박함과 화려함, 자연과 사람의 손길이 행복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불갑사 대웅전(보물 830호).

그 절에 가면 — 모악산 불갑사

마라난타가 세운 절

봉숭아꽃 비에 젖고 있었습니다. 여염집 마당에서나 봐 온 꽃을 이슥한 산골 절에서 만난 감흥은 각별했습니다. 올 밀, 두엄자리 곁, 더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수줍게 붉은 가슴을 열어 보이는 꽃. 그러다가 어느 첫눈 오는 날, 손톱 끝에서 눈썹달로 뜨는 꽃 그 꽃이, 한 나절을 바쳐 달려온 서해 바닷가 전라도 영광 땅을 지척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불갑사 온 마당이 내 집인 양 편안해졌습니다.

모악산(母岳山, 516m) 불갑사(佛甲寺). 부처 '불' 자에 천간의 첫째인 '갑'을 붙인 이름이니, 그 뜻은 곧 '으뜸되는 절(佛寺之所宗)'이겠습니다. 그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제에 불교를 처음으로 전한 인도승 마라난타가 남중국 동진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 수도 한성에 이르기 전 영광 땅에 도착하여 불법을 펴니 이곳이 법성포였다고 한다. 그리고 법성포에서 가까운 모악산에 마라난타가 절을 세웠는데, 바로 이 사찰이 으뜸되는 절(佛寺之所宗)이라는 뜻의 불갑사다.

불갑사 고적기에 전해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한편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에 불교가 유입된 지 12년 뒤인 침류왕 원년(384)에 마라난타에 의해 불교가 전래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후 불갑사는 아홉 차례에 걸친 중창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데, 고려 말 충렬왕대(1274~1308의 왕사였던 각진국사(覺眞國師, 1270~1355)에 의한 3창 때는 전각의 규모가 500여 칸에 이르는 거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엄수행체계 상징 53계단

지금 불갑사는 소박하리만큼 작고 고운 절입니다. 모악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을 끼고 배롱나무 꽃 (나무백일홍) 곱게 핀 돌머리를 지나면 부처님 품으로 발길을 이끌어 주는 돌계단이 나타납니다. 천왕문까지 53계단. 이른바 화엄경의 53수행 체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왕문을 지나 만세루를 돌아 석축을 오르면 대웅전 앞마당입니다. 대웅전 맞은편은 만세루, 좌우로는 명부전과 일광당이 ㅁ자 구조를 이루며 그리 넓지 않은 절마당을 한없이 넓게 열리는 화엄의 광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불갑사 역시 대웅전(보물 830호)이 가장 빼어납니다. 그런데 대웅전의 앉음새가 여느 사찰과 다릅니다. 부처님의 좌향 또한 건물의 측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물은 서쪽, 부처님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라난타를 기리기 위해 그가 건너온 서해 바다를 향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남쪽을 보고 계신 것은 지세의 흐름에 따른 것이란 게 주지 스님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법당이 불갑사뿐인 것은 아닙니다. 부석사 무량수전과 마곡사 대광보전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것과도 달리 불갑사의 대웅전은 부처님의 눈길이 닿는 측면 벽까지 꽃살문을 달아 절 올리는 모든 이들의 엄귤에 꽃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불단 불국토를 연상케

조선 후기의 건물 중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웅전은 평범한 눈으로 봐도 그 빼어남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정교한 조각품 같은 꽃살 문, 화려함에 우아함을 더한 내부 단청, 내부 공포 사이의 벽에 그려진 조사 진영, 그 모든 것들이 최고의 정성과 솜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미는 불단 쪽입니다. 민화풍의 조각이 온갖 상상력을 자아내는 좌대, 천인들의 손으로 만든 듯한 닫집, 그리고 닫집 아래에 모빌처럼 드리워진 구름과 극락조. 불국토가 바로 이런 곳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 부속 암자들은 도량과 한몸을 이루면서도 각기 독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수도암, 오진암, 불영대, 해봉암, 전일대. 그 이름들은 수행—견성—보림—부처—열반의 의미를 내포하면서 불교 수행 체계의 전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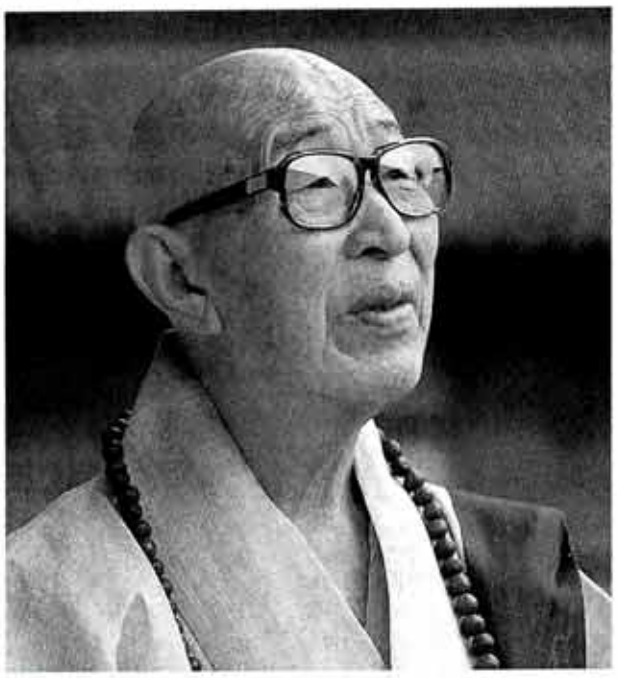
불갑사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9월이면 꽃을 피워올리는 상사화가 지천으로 피어난다는 점입니다. 잎이 다 시들고 난 뒤 꽃대가 홀로 솟아 꽃피운다 하여 이별초라는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한 꽃. 그러나 이 꽃은, 잎이 다 시들고 지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때, 홀로 솟아올라 꽃을 피우기 때문에 '피안화(彼岸花)'라고도 부릅니다. 나는 그 이름을 지지합니다.

9월이면 '피안화' 만개

붉은 상사화는 9월이 돼야 피지만 연분홍색 꽃잎의 상사화는 요즘에도 꽃을 피웁니다. 지금 불갑사 대웅전 옆에도 그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 글을 시작할 때, 제가 아주 많이 좋아했던 한 스님이 몸을 바꾸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갑사 대웅전 옆에서 본 그 꽃을 스님의 환생으로 알겠습니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모악산의 얼굴 — 수산스님

노덕 많으면 절 장엄, 대중은 환희심

절집에 노덕(老德) 많으면 절이 장엄하고 대중들이 환희심을 낸다고 합니다. 수산 스님을 뵈면서 그 말의 의미를 실감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부처님 만나러 온 할머니들과 일일이 손을 잡으시면서 안부를 묻는 수산 스님.

어른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겠습니다.



입산 출가 후 줄곧 참선 수행에 정진해온
한 납자의 구수하면서도 진솔한 수행이야기!!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수행, 가슴을 저미는 애틋한 사연, 세속을 떠난 여유,
피식 웃음을 자아내는 재미, 우리 삶을 일깨우는 작은 울림

선방 이야기
토굴土窟이야기
능인 스님 씀

맵고 짠맛에 길들여졌다가 양념 하나 안된 자연식을 맛보았을 때의 느낌이 이럴까. 복잡한 사회에서 숨돌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청량제가 될만한 책. 읽다보면 문득 '깨달음'에 한 걸음 다가선 듯한 느낌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대한매일신문

국판/230쪽/7,500원

티베트 밀교 무상 심요법문 【無上 心要法門】

티베트 밀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대수인법문〉에 대한 해설!

심요 법문이란 마음 수행의 길에서 항상 수지하면서 수행의 지남으로 삼을 수 있는 짤막한 몇 구절의 요약된 법문을 말한다.
〈대수인법문〉은 대승의 교의를 통달하여 증과에 이르는 길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심요 법문이다.
이 원문을 자주 독송하고 심요로 삼아 호지한다면 흐트러지기 쉬운 일상생활에서 흔들림 없고 굳건한 수행심과 신앙심을 지니게 될 것이다.

박건주 역해/국판양장/205쪽/8,000원

원리를 알면 漢字를 쉽게 깨우칠 수 있다!

한자는 대부분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문자이거나 추상적인 지사문자, 그리고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나 글자의 어원을 이해하면 그것을 확장하여 다른 글자의 뜻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이제 나도 한자 전문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재미있게, 쉽게 익히도록 이야기식으로 꾸미고 있는데, 글자이다 그 글자가 본시 어떤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나 하는 어원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쓰이는 한자말을 응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1,800여 한자를 중심으로, 반복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원리를 이해하도록 해준다.

신용태 저/신국판/554쪽/17,000원

한 권으로 끝내는 한문 문법과 해석! 알기쉬운 한문해석법
심재동 지음/신국판/383쪽/12,000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타운힐 빌딩 3층
전화 02)3672-7181~5 (출판부) 926-8361